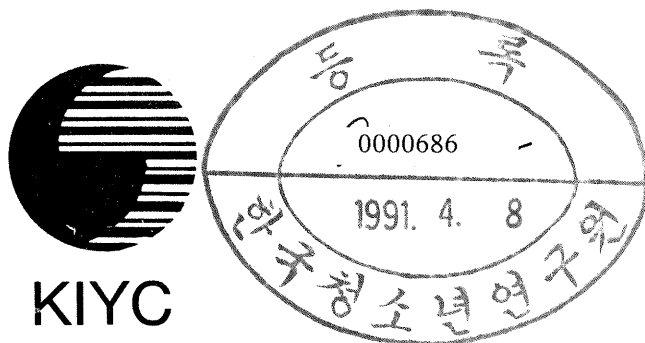


제 1 회 국제학술회의

청 소 년 문 화

새사회 건설—청소년을 주역으로



OCT. 24~25, 1990

한국청소년연구원

목 차

○ 개회인사 및 발제연설	이윤구...	5
○ 축사	정동성...	9

I. 청소년과 현대사회

청소년들의 사회정치적 여건 :

청소년들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엔리크...	11
청년세대와 그들의 생활세계	김일철...	19
토론 (1)	트레너...	21
토론 (2)	김성이...	24

II. 생활태도, 여가 및 가치관 : 청소년과 성인

일본의 청소년	다모츠 센고꾸...	27
미국의 비행청소년 처리문제	슈왈쯔...	35
熱望과 挫折, 그리고 反抗 :		
變動社會속의 韓國青年文化의 特徵과 課題	차경수...	43
토론 (1) : 변모하는 중국의 대중매체와 또래집단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손충웅...	49
토론 (2) : 아랍에미레이트의 젊은 여성들—현실과 야망	아바스...	58

III.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취업기회

교육과 청소년의 직업 기회	고메즈...	69
청소년의 敎育과 職業成就	이미나...	73
토론 (1)	김영화...	93
토론 (2)	이원덕...	98
토론자들의 논평에 대한 응답	이미나...	101

IV. 청소년 범죄와 사회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회적 태도 : 비판적 평가	오도넬	105
한국의 중류계층 비행	심영희	115
토론(1)	실버라이젠	133
토론(2)	김의철	136

V. 미래의 전망 :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사회

새사회 건설—청소년을 주역으로 : 신화 그리고 꿈과 가능성	나이야	141
청소년에게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사회 :		
역사적이고 문화비교적인 관점에서	김의철	149
토론 : 청소년들의 건강생활과 스포츠활동의 중요성	트루	207

개회인사 및 발제연설

이 윤 구

(한국청소년연구원장)

김 용균 체육부차관님, 문 태갑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 김 문희 한국청소년연구원 이사장님 그리고 세계원근 각국에서 이 학술회의를 빛내주시기 위해 오신 석학, 전문가 여러분, 영연방과 유네스코등 국제기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파송되어 오신 대표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귀빈과 참석자 여러분!

저는 이 모임을 주최하게된 한국국제문화협회와 한국청소년연구원을 대신하여 이 대회를 메워주신 여러분을 충심으로 환영하며 이 대회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머리를 조아려 감사의 뜻을 우선 가슴깊은데서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뜻깊은 회의의 서두에 개회인사와 더불어서 발제하는 말씀을 몇마디 드릴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란 연령집단이 한 국가사회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사회과학의 새로운 연구분야로 부각하게 된 것은 지극히 현대적인 상황입니다. 아주 미개한 원시사회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은 『청소년』이라는 과도기가 없이 곧바로 청년성인이 되었습니다. 10대의 소년소녀들이 심신의 성장이 빨라서 어른노릇을 하려고 하면 어른들로부터 아이취급을 받게됩니다. 반면에 20대 중반까지도 아직 성숙하고 독립된 한 사회인으로 처세하지 못하고 학업도 직업도 제대로 갖지못한 불안하고 유동적인 집단구성원들의 숫자가 대단히 많은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인구학은 현대 인간의 사망률이 해마다 줄어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15세에서 24세의 청소년 사망률만 유독 증가하고 있음을 걱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통사고, 자살, 살인등이 미국의 남자 청소년 사망의 4분의3에 육박하고 있고 5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약화, 약물 오·남용, 미혼소녀의 임신, 청소년의 탈가정 및 탈학교, 그리고 심각한 청소년 실업(失業)이 현대사회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개발중진국가들도 불행하게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80년도와 '90년도, 10년사이에 소년강도범은 50.8%, 소년방화범은 81.8%의 급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라는 복합명사가 지구촌에 소개된 것은 1960년대, 그러니까 한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배우다가 하룻밤 사이에 어른이 되던 옛날과는 달리 국민교육과 직업훈련의 기간이 길고 복잡해진 현대,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 와서 산업사회의 중핵을 청소년들이 차지하게 되었지만 이 청소년화(Juvenilistic)해 가는 사회적 구조가 청소년들의 문제나 욕구에 적절한 배려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폭풍처럼 구라파를 휩쓸면서 일어난 학생들의 반체제적인 반항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기성세대, 전통적 가치관, 산업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새 문화를 추구하는 몸부림으로 온 세계를 흔들고 60년대말 70년대초에는 청소년이 사회개발이나 국가의 중요한 결정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힘(Youth Power)이 커졌습니다. 1968년 유네스코 총회보고서의 새로운 용어들은 “대치와 대항”, “대체문화”(Counter-Culture), 그리고 “청소년문화”(Youth Culture)였습니다.

60년대의 청소년은 진실로 독립된 특유한 집단, 더우기 사회전체속에서 어른들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르고 가족, 교육, 문화전통에서 해방된 새 세력집단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행이전 불행이전 이 태풍같은 바람은 70년대의 서구라파와 북미의 대학사회에서, 이 새 문화는 세계적인 확산으로 번지지 못하고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60년대 청소년들의 유토피아적이며 이상주의적 환상은 인간과 인간의 인도적인 관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 그리고 국가사회와 다른 나라와의 평화적 공존등 숭고한 정신으로 일취월장했으나 70년대 후반으로부터 지구촌이 총체적으로 직면한 경제불황의 위기가 청소년문화의 세찬 불길에 찬물바람을 쏟아붓듯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온 '80년대는 청소년들에게 실업(失業), 불안, 방어적 태도, 실의와 절망, 그리고 근본적인 생존자체의 심오한 위기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에 인류의 공통적 과제는 이제까지 30여년간 추천하는 새 삶의 스타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불황경제의 70년대에 참패한듯 고개를 떨구다가 80년대에 와서 다시 국제적인 재조명을 받게 된 이 『청소년 문화』는 오늘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인간문화의 일부분이 되었고 21세기의 새 삶, 새 사람, 새 세계를 구성하게 될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 『청소년 문화』가 무엇이며, 그 문화속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삶의 스타일과 가치관은 기성세대와 어떻게 다르고, 교육과 취업은 그들에게 어떠한 것이어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 비행, 범죄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며, 21세기를 지고 나갈 주역인 오늘의 청소년문화가 어떠한 인생관, 국가관, 세계관을 창출해 나가야 하겠느냐 하는

토론을 해 보기 위해 우리는 이 학술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의 짧은 시간의 제한속에서 이 모임이 청소년의 세계와 청소년에 관련된 기관이나 국제기구가 유용하다고 인정할만한 값있는 결론이 나오기를 주최측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세아 태평양지역에서 청소년에 관한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10여개국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계기를 시발로 해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아세아의 이 나라 저 나라가 주최하는 청소년 연구집회가 조직적으로 계속되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지난해 유네스코의 한 모임에서 제기되었던 가칭 “아·태 청소년 연구기관 협의회”를 발족하는 역사가 학술대회 폐막후 곧 있게 되기를 아울러서 바라고 있습니다.

발제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학술회의를 가능토록 우리 연구원의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신 한국정부에 대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빛내 주시려고 왕립하신 김 용균 체육부차관님께 정중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국제문화협회 김 성진회장께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대회에 참석하신 많은 석학과 전문가들을 오실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며 공동주최를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또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멀고 먼 나라들 : 소련의 에스토니아, 구라과 여러나라중 최초 통일의 감격속에 있는 독일, 가까우며 먼듯한 중국 상하이와 일본, 비올빈, 조금은 멀지만 우리 아세아의 남쪽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 서부 아세아, 혹은 중동이라 부르는 아랍토후연방국,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학계의 지도자와 청소년 전문가 여러분께서 대회참석과 공헌도 해주시고 이 나라의 단풍가을도 좀 즐기시고 많은 열매를 가지시고 귀국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학자 여러분과 참석하신 여러 어른들 청소년의 참 친구가 되시는 청소년단체의 대표자 여러분께서 오늘과 내일 이 모임에서 귀한 열매들을 얻으시고 '90년대의 청소년세계를 맑고 밝게 비쳐 줄 수 있는 새 지혜와 용기를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해 전입니다. 미국의 청소년 학생들의 에세이 현상작품에 당선된 데이빗 앰브로스(David Ambrose)의 수정같은 말을 인용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종말을 우리 세대가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개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욕적이며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쉽게 좌절하며 포기해 버릴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앞

에 놓인 우리의 숙명에 대하여 한 없이 큰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문화가 결코 완전하고 완벽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엠브로우스군의 이 해맑은 미래에의 환상이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면 레이건 전 대통령과 우리 모두의 기성사회 구성원들의 비관론, 암담한 미래관이 우리를 멸망의 구렁이로 빠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祝 辭

鄭 東 星

(體育部長官)

오늘 “靑少年文化”라는 主題로 제1회 國際學術會議을 開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 축하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靑少年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의 이 모임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碩學 여러분과 특히 이 모임을 위하여 멀리 美國, 英國, 中國 등 各國에서 오신 학자님들,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 來賓 여러분께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의 社會를 전주어 “高度産業 및 情報化 社會”, “平準化와 多樣化가 並行하는 社會”, “國際化 社會”라고 특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건 高度産業化 社會로 移行하는 과정에서 生活樣式이나 價値觀의 갈등과 혼돈을 겪어 왔으며 특히, 아직 成長段階에 있는 靑少年들은 그 거센 變化의 물결속에서 스스로의 人生을 開拓해 나가는데 더욱 큰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傳統이나 道德의 基準이 무너지고 스스로 이룩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모호해지고 자기의 位置를 가늠하기 힘들게 되어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내지 못한 일부 靑少年들이 자포자기, 無力化, 우범화하게 되어 오늘날 靑少年問題는 이 社會의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課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靑少年들에게는 시대에 알맞는 教育的, 社會的인 指導와 支援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하겠으며, 우리는 그들이 오늘에 적응하고 來日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指導하고 일깨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깊은 時代的 책임을 통감하면서 금년 5월 靑少年憲章을 制定, 宣布하여 靑少年들의 높은 理想과 進取的 氣象을 함양하고 2000년대 先進, 民主, 統一組國을 경영 발전시킬 優秀國民 養成을 목표로 綜合的인 靑少年政策을 樹立施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參席하신 各國의 내빈 여러분! 나라마다 서로 與件이 다르고 독자적인 언어나 풍습, 제도, 이념등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국제적인 靑少年 文

化比較 모임을 통해 差異點과 類似成등을 파악하는 일은 내일의 인류번영을 위하여 매우 가치있는 努力이라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오늘의 靑少年들의 世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모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각국의 靑少年들에게 평화와 자유, 번영과 협력의 새사회 건설의 主役이 되도록 올바른 指標와 方向을 제시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期待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國際的인 심포지움을 計劃하고 推進해 오신 한국청소년연구원 이윤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感謝드리며 오늘의 모임에 좋은 성과를 期待하는 바입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정치적 여건 : 청소년들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

엔리크(Virgilio G. Enriquez)*

I. 서론—청소년의 힘 : 위협이나 자원이나

1. 청소년 확인 : 인구와 개념의 문제

청소년에 대한 성인의 정의를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서구의 후기 산업사회 문화에 있어서 만 18세가 되어 신분이 바뀌어지는 청소년에 대한 입장의 혼란을 가져오는 실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만 18세의 결혼한 병사는 술집에 들어갈 수 없고 물론 술을 마실 수도 없으며 피선거권도 없으나 자식을 낳아 기를 수도 있고 적군을 살해할 수도 있다. 남성은 병무징집의 대상이며 미의회의 법령상 전투목적의 전쟁참가자는 성인으로 되어있다. 미국의 여러주가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합법적인 결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들은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 기능상에 있어서 서구의 청소년에 대한 성인들의 정의는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12세가 되어서 항공기에 탑승한 청소년은 성인요금 전액을 지불하는데 그가 성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소녀가 14세가 되면 가임연령이고 성기능상으로는 성인의 역할이 가능한데 이러한 기능에 대해 범주를 정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위에서 예로든 십대후반의 입대 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 성인의 지위를 얻지 못한 채 역할에 있어서는 성인의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고 있다. 역으로 말해보자면 만 21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완전성인의 자리를 정하게 되는 데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서나 감정적으로 성인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 익히 알고 있다(Seetlage, et. al.1986).

* 필리핀, 필리핀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하와이대학교 인도-태평양 언어학 교수

여러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인구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숫자에 상응하는 합법적 힘의 행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령과 지혜를 같이 생각하는 사회나, 고령자들이 지배하는 정부하에서는 북경의 천안문 광장 무력진압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특수상황하에서는 젊은이들이 위협의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성인의 정의에 반대되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 정의이다. 청소년 문화에 입각한 청소년은 자신의 태어난 가족 또는 부모들에 의하여 대표되는 능력있는 성인이 지배하는 가족과 미래에 태어날 가족 또는 힘없는 청소년에 의하여 지배받게 될 가정과의 사이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2. 우리들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 사회적 자원의 활용

필리핀의 국가적 영웅인 리잘(Jose P. Rizal)박사는 그의 수상작품인 “필리핀의 청소년에게”에서 청소년들을 조국의 소망으로 기뻐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가 청소년들은 현국가의 자원으로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을 불완전한 성인의 모조물로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다. 성인들이 정의해준 그러한 완전성을 갖춘 성인이 될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청소년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에 성인들은 청소년들이 무엇을 얼마나 아는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소원하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최대의 권위는 청소년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지 성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3. 대중문화 : 청소년이 주도?

서구의 대중문화가 지배하는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주연을 하게 된다. 아시아인들이 고령자를 지혜와 관계시켜 존경하는 것처럼, 영국이나 미국의 매스미디어는 청소년들을 영화롭게 해주고 있다. 예를 들라고 한다면 인기 텔레비전 프로인 “The Golden Girls”일 것이다. 마치 시간이 중지된듯이, 1960년대의 청소년 중심사상은 비치보이(Beach Boys)의 계속적인 인기로 요약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40대 이후가 되겠지만 그들은 아직도 비치보이스가 대명사로 통하게된다. 후기산업의 매스미디어 기술사회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TV의 단골손님이 되어 요술상자에 붙어살게 하므로 영화 주인공의 성격, 콤팩트 디스크, 워크맨과 다른 오디오 영상기기, T-셔츠, 그리고 유명가수, নিজ자북이, 뉴키즈 온 더 블럭(New Kids on the Block)등의 악세사리까지를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4. 청소년들의 반항과 성인들의 통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택한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부모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애정중심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성인의 행동규범에 입각한 지시를 받게 된다. 청소년을 지원하거나 통제하는 결심은 가족의 수준 또는 지역사회의 입장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가정부는 사회에서의 청소년들의 활동영역에 대한 기능과 권리·의무에 대한 분명한 기준마련이 있어야 한다.

II. 청소년체험의 사회정치관계

1. 모태와 청소년의 자율성

오늘날 아동들은 아직도 가족에 집착되어 있는 것 같다. 영국에서는 오늘의 아동들은 어제의 아동들보다 민감하게 돌보아 주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다. 영국의 최근 TV조사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들로부터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전통적 가족간의 유대나 가정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모태의 영향력에 대한 정신분석적 사고의 연장이 약화되고 있다고나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내 중심가의 거리는 많은 가출청소년들의 가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빈곤한 국가의 현실이 아니고 세계 제일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율성의 추구, 생활양식의 변화, 십대임신과 결혼 등 가족의 특성자체가 극적으로 변화해 가는 사회환경속에 청소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때때로 가족이나 또는 특별한 경우의 부모가 새로운 종교집단에 자녀를 잃게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또 동시에 전통적 종교의 교리로는 청소년들을 붙잡지 못하고 잃게되는 경우도 생긴다. 일단 청소년들이 카리스마적 신앙체계에 마음을 빼앗기면 종교적 가르침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스스로 신의 대변자라는 이들은 “신의 뜻”을 마치 마술방패처럼 이용하여 소득세도 재산세도 지방조세도, 건강이나 안전규칙도 교통법규도,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가르쳐 명령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의식을 가진자는 신의 권위만 인정하고 실정법에 대해선 무관한 자로 생각한다. 자신은 현실사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종교인이나 종교운동은 전통종교로부터 신흥종교에 이르기까지 권능은 신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에 각자는 신에 대한 순종을 주장한다. 성경말씀중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말과 같다(Streiker, 1984, pp.106-107).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어 전체사회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한 대부분의 선진사회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쉽이 발휘될 수 있는 여백을 남기지 않는다. 카리스마적 상태가 야기된다면 아마 보통사람이 할 수 없는 고도의 매스미디어 활용에 의한 영향력에 기인하게 될 것이고, 대개 카리스마 상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자원에 의한 것이 된다. 이러한 카리스마적 주장은 일상사회구조의 외부주변에서 가능하며 고위층의 정치세력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줄고 있고, 연예계나 특정종교 집단에서는 아직도 자주 볼 수 있다.

2. 청소년 자아개념에 대한 자신들의 정의

1) 보이는 모습은 자신의 표현이다 : 옷, 치장...

기술선진국들은 청소년들의 다음과 같은 현상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런던이나 동경, 시카고 뒷골목의 장발에 형클어진 머리로 타락한 소녀 스타일이나, 풀어 제친 옷자락에 록 음악가수의 초상이 박힌 헐렁한 T-셔츠, 낡고 떨어져 보이게 만든 청바지, 검고 무거운 군화모양의 신에 구리로 장식해서 빛나게 만들어 놓은 신발등이 그것들이다. 유행의 거리인 동경의 긴자에 가더라도 이런 옷차림을 보게 되는데 입던 옷을 옷장에 넣어 두었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에는 꺼내서 갈아 입고 가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

도심지에서 깨끗한 교외로 조금만 나가면 또 다른 집단의 청소년을 볼 수 있는 데, 이들은 주름잡은 옷에 흰색 셔츠의 단추를 다 잠그고, 색조있는 양말에 빛나는 기마복장을 하고 아침의 승마를 즐긴 후 차를 즐기는 모습이다. 청소년들의 모습은 자아확립을 위한 주요한 지표로 작용하게 된다. 그의 용모는 부모나 매스미디어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만 최후의 결정자는 파리나 런던 같은 유행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진열장 속의 소년”이 아니라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의 행동양식이다.

2)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연예인을 말해주면 너의 정체를 말해주마...

좋아하는 음악이나 연예인은 청소년 자신들의 자아개념(identity)을 반영시켜준다. 다시말하면 재즈 혼성그룹인 치코리아(Chicorrea)보다 록 그룹인 하얀뱀(White Snake)을 더 좋아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선택의 근본을 생각해 본다면 하얀뱀은 성인들로부터는 약물복용에 의한 범죄가능 그룹으로 분류하여 판단하지만, 또래들로부터는 “갈채 받고” “조용하며” “선망”의 대상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재즈의 선호는 젊은 전문문들이나 십대 청소년들의 사회화의 예비과정으로 의미있고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당구장 주위나 서성거리고, 오락실에서 시간이나 보내며,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정도는 청소년들이

재미로 해보는 행동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3) 자신을 말하고 자기주장을 버려라: 편견, 소수집단, 정치 그리고 성에 대한 관점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동료들의 정의는 외형으로 보이는 것만을 근거로 설정하지는 않는다. 구어나 육체적 의사전달 습관과 좋아하는 것들 모두가 청소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친구들이 자신을 판단할 때에는 성적매력, 종교적 소속감, 지적인 주장, 정치적 사건 등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게 된다. 여러가지 정보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청소년들은 그 내용에서 가정의 사회적 신분상 차이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위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기능에 의하여 훈련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Youth and Firth, 1967). 때때로 다양한 하위문화에 접하게 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언어양식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다면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청소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청소년들을 관찰하고 이를 근거로 서둘러서 범주화시키기도 하는데, 그러한 범주화는 잘못되거나 근거없는 일반적 분류행위에 지나지 않게 된다. 다시말해서 해진 청바지에 이상한 머리모양을 하고 다닌 청소년도 미국 부촌인 베버리힐(Beverly Hills)에 사는 아이로 자기집 주변의 호화로운 옷가게만 출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일과 여가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청소년들도 수입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성인들과 접촉하게 되는 일자리에서는 정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하와이의 필리핀계 미국인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학교 공부가 끝나면 스포츠와 테리비전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nriquez, 1990).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서는 스포츠가 우선이고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전자상품이 점차적으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정말로 청소년들이 사랑하는 것은 아직은 자동차가 아닌가 싶다. 일본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이 가장 즐겁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동차는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청소년들은 자동차를 매우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기본적으로 교통의 수단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도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이 있다면 내적갈등을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표현해주고 다스려나가는 데 적합하다는 데 있다. 자동차는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뿐아니라, 많은 상징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다시말하자면 청소년이 자신의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우선 부모나 성인들로부터의 독립성이나 저항내지는 탈출은 물론 속박으로부터의 해방과

행동의 자유 그리고 새로운 힘과 실천능력까지도 포함된다(Seetlage, 1968).

4. 학교 내외에서의 청소년의 힘

교육은 전통적으로 가치가 부여되어 왔다. 개인의 타고난 여건에 관계없이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는 교육이 얼마나 큰힘이 되어 목적을 달성하도록 뒷바침해주었는지 잘 알고 있다.

청소년들이 교육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하는 것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 기타 영향력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생청소년들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은 학교중퇴인데, 1960년대초에 라이터 등(Licher, et. al, 1963)은 능력이 있는 청소년들이 왜 중퇴를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여 발표한 일이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청소년의 40%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중퇴하고 있다. 수만명의 학생들이 기준성적에 미달되고 있으며, 자기수준의 교과과정에 지적인 대처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중퇴자나 학업성적미달자는 미국의 청소년 인적자원의 완전활용 측면에서 볼 때 큰 낭비일 수 밖에 없다.

중퇴자들의 처지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여 학교를 나간 청소년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조사연구가 절실하다고 보겠다. 미국 시카고시의 공립 중고등학교의 의뢰를 받아 라이터와 그의 연구진이 중퇴가능성이 있는 10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모두가 지능은 정상이었으나 고등학교 졸업의 가능성은 희박했음을 발표하였다. 비록 중퇴학생들의 개성은 각 개인마다 다를지라도 또 많은 유사성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중에는: (1) 그들의 학교생활이 성공적이거나 즐겁지 못했다는 것과 (2) 중퇴후에도 어떤 뚜렷한 삶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고, (3) 학업상 어려움이 결과적으로 학교를 떠나게 하고, (4) 정서적 장애가 심각했음이 포함되어 있다. 중퇴의 현상에 대한 성인들의 반응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겠지만, “더욱 많이 배우고 빨리 배워야 한다”는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눈길은 못하면 나가라는 식이 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부분적인 이유는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다른 좋은 청소년들의 발전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 본다면 이러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이 자신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없었다는 것이다(Liter, et. al, 1963).

5. 정부와 법

성인들은 청소년들의 공격행동에 대하여 골치아프게만 생각하고 동정의 눈길은 보내지 않고 있다. 성인들은 청소년들에 대하여 더 이상의 어릿광대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인들은 청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자신들의 관점으로 기준을 잡고 있다. 더 나아가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여러나라에서 성인으로 취급되어 법정에 서게되고 벌금이나 금고형을 받게되는데 이는 과거에는 비행으로 취급되었던 것들도 지금은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거기에 대하여 그 행동이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을 맺게 되기만하면 더욱 엄히 다루어지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만하다고 보겠다. 학생들의 데모나 사회운동은 이와 같이 문교부장관 전용차위에 올라가 짓 밟는 것 같은 “비행”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과 같은 정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겠다.

III. 결 론 : 청소년에게 자율성을

청소년이 외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친구들의 영향을 받은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기성세대에게서 배운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지각과 청소년들의 결과적인 이미지는 사회의 주류가 되고 있는 성인들의 통제와 지배에 기인한 “전통적인 지배”의 부분이 되고 있다. 매스미디어 같은 청소년 문화가 성인들의 사회전설을 유지, 증진 시켜주고 있음을 지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청소년들에게 오명을 씌우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시키고 청소년이 자신들의 입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통해 사회의 주류인 기성세대로 하여금 청소년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을 생의 한 단계로 보고 있다.

동시에 성인들입장에서 본다면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청소년 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필요에 대한 개념이나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물론 청소년들을 매스미디어의 희생물로만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제임스(James, 1971)는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인데 대한 확증을 하였다. 만약에 매스미디어가 청소년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만 있다면 사회가 청소년에 대하여 그들의 사회적 성숙성과 관심의 고조 그리고 불신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필자는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을 청소년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연구에 대하여 강조하

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인 조사연구도 무관하겠지만, 그 보다는 현상학적인 연구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정부의 정책측면에 대해서 말한다면 청소년의 욕구에 대한 정부의 민감성 제고이다. 청소년들은 사회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고 무한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건설하는 청소년들의 문화는 시간과 정력을 필요로 하겠지만 청소년연구원의 연구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Enriquez, Virgilio G. (1990). *Hellside in Paradise: The Honolulu Youth Gang*. Honolulu: Center for Philippine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In Press.
- James, Don L. (1971). *Youth, Media, and Advertising*. Studies in Marketing No. 15. (Texas): Bureau of Business Research, Graduate School of Busines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Lichter, Solomon O., Elsie B. Rapien, Frances M. Seibert, (and) Morris A. Sklansky. (1962). *The Drop-Outs: A Treatment Study of Intellectually Capable Students Who Drop-out of High School*.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 Settlage, Calvin F., Warren J. Gadpaille, Mary O'Neill Hawkins, Joseph D. Noshpitz, Vivian Rakoff, (and) Henry Wermer, (1968). *Normal Adolescence: Its Dynamic and Impac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Streiker, Lowell D. (1984). *Mind-Bending: Brainwashing, Cults, and Deprogramming in the '80s*.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 Wilson, Bryan, (1970). *Religious Secret: A sociological Study*.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 Youniss, James and Hans G. Forth, (1967). *The Role of Language and Experience on the Use of Logical Symbols*. *Adolescence: Studies in Development*. Cantwell, Zita M. and Pergrouhi N. Svajian, eds. Illinois, 1974.

청년세대와 그들의 생활세계

김 일 철*

현대사회는 그 역사, 구조, 발전단계에 관계없이 모두 청년과제를 가지고 있다. 사회변화와 급속한데 기인하여 그들의 생활세계는 구조적으로 상이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청년들의 생활세계의 실상을 고찰해 보고 하며 이를 통해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필자는 현대사회의 생활세계를 다음 세가지로 특징지우고 이것들을 기초로 그들의 내면적 생활세계를 들여다 보고자 하였다.

첫째, 단절과 모순

현대사회는 과거사회와 구조적으로 단절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위양식 또한 그들의 선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구체계와 신체계간의 긴장, 세대간의 갈등과 불신이 야기된다. 청년세대는 구세대와의 일치도 부분적으로 도모해야 하는 이중적 기준을 발전시키게 된다(모순).

둘째, 물질적 성공증상

사회가 점차 자본주의화 됨에 따라 성공의 기준은 물질적인 것이 중요시 되어 간다. 사치와 호기심은 그들을 자극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함의 가치를 점점 중요시하게 된다. 최소한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물질적 성취욕구는 강화된다. 정신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는 가치관은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과도한 성취 열망

현대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과도한 성취욕구를 갖도록 만들고 있다. 남보다 우위에 서고 남보다 풍요로워 지고자 한다. 과도한 성취욕구는 그 수단의 미비

*한국,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로 때로는 폭력화, 범죄화 되기도 한다. 성취욕구는 능력, 노력 그리고 수단이 함께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위와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진 생활세계를 연출하고 현대청년들은 이 속에서 생활한다. 이러한 생활세계를 외형적 생활 세계라 한다면 이에 따라 형성되는 내면적 생활세계가 있다.

단절과 모순은 규범의 혼란을 가져오고 물질적 성공열망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곧 목표로 전환되어 가치전환을 경험한다. 이러한 내면적 생활세계는 외형적 생활세계가 가져다주는 조건부 결과이다. 모든 청년이 다 그러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청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외형적 생활세계를 개선하고 또 여기에서 위험스런 내면적 생활세계를 발전시키기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고 특히 가정생활, 학교생활, 대중매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토 론(1)

트레너(Willam Treanor)*

우선, 청소년문화에 관한 이 회의에 나를 초대해준 한국청소년연구원과 이윤구 원장님께 감사드린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연구논문들에 대해 평가하고,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문화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내가 관찰한 것을 말씀드릴까 한다.

현대사회의 사회과학에서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인 청소년문화가 한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청소년문화는 잠시후 사라질 어떤 것은 아니며,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늘의 청소년이 가진 특징 중에서 어떤 것은 여기 모인사람 대부분이 싫어하는 면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의 직원, 또는 청소년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할 과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보고 그 양면에 다리를 놓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청소년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 오늘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단체와 제도가 청소년에게 주는 주요영향은 사실상 상업화 되었다. 정부, 학교, 청소년단체로서는 어쩔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예를 들자면 TV, 비디오, 음악 등은 모두 상업화 되었다.

청소년문화가 점점 국제화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른들이 미국 청바지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제는 미국만의 청바지가 아니고, 그냥 청바지인 것이다. 청소년문화의 여러 국면을 어른들은 그것이 발생된 나라와 연관시키지만 청소년들은 오히려 나이와 연관시킨다. 사실 청소년문화에서 최근에 발달한 양상은 정말로 국제화 되었다. 록 앤롤이란 현대음악은 5-6년전에 아주 유행했는데, 어떤 곡은 실제로 여러나라 젊은이들이 함께 만들었다. 다른나라에 사는 젊은이들이 음악테이프같은 것들을 서로 교환하기도 했는데, 상업적인 통로를 전혀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었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자기집, 차고, 다락, 지하실에서 기타를 연주하지만, 자기들 문화의 발달, 교환, 대화를 위해서 최신기술과 방법을 사용한다. 이들의 행동은 어른들이 만든제도 밖에서 행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중적인 청소년문화의 여러국면을 보아야 한다.

* 미국, 미국청소년센터, 워싱턴

음악, 옷 등은 점점 더 새 기술의 영향을 받는데 어른보다 젊은이들이 더 빨리 이런 변화에 적응한다. 사실 새 기술에 적응하는 일은 어른에게는 힘이드는데, 젊은이들은 새 기술에 적응하는 일에 커다란 기대를 가진다. 비록 좋은 점, 나쁜 점을 고루 가졌지만, 젊은이들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젊은이들과 그들의 문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달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서 어떤 일정한 가치를 본다. 그러나 정부의 관점은 반드시 젊은이들의 관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엔리케즈(V.G. Enriquez)박사는 1년반 전에 중국 북경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했다. 그때 북경에서는 유엔이 주최한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중국청소년 연맹과 기타 단체들이 참가하여 중국청소년 특히 학생단체에 대해 얘기했다. 그러나,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때부터 6개월후에 발생한 천안문사건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

사회안정과 현상유지를 바라는 사람이나 현 정부가 보기에는 젊은이들은 본질적으로 사회의 다른 집단보다는 더 강하게 사회변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의지가 있는 일종의 혁명 계급이다. 예를 하나 들자면, 10년전 니카라과아 혁명때 산디니스타 군대의 평균연령은 15살이었다. 정부들은 젊은이들의 의욕을 긍정적인 통로를 통해서 통제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작년에 여러나라에서, 특히 동유럽국가에서 이런 경우를 보았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두달전에 나는 동독에서 청소년지도자, 청소년관련 관리들, 그리고 독일민주공화당원들을 만났다. 몇달 후에는 동독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거라고는 그 당시 아무도 몰랐다. 그러므로, 대중문화에 나타난 청소년문화와 청소년들은 정부와 사회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 된다.

청소년들의 에너지를 인도하는 중요한 통로는 그들과 관계되는 여러가지 조직에 그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조직과 학교밖 조직은 둘다 청소년을 사회화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과 한국이 해야할 중요한 일은 학교 밖에서 서로 모르는 젊은이들을 조직하는 일이다. 특히 경제적 가난에서 오는 소외감과 농촌에서 도시로 오면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한 젊은이들에게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조직이 할 일이 많다. 만일 어른사회가 청소년문화와 긍정적으로 교류하지 못한다면,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가진 능력을 상당히 낭비하는 셈이 된다. 학교중퇴자와 십대엄마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감옥인구가 굉장히 느는 것 같이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사회에 매우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큰 문제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김박사의 논문에서 지적된 것처럼 지나친 기대가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청소년의 지나친 기대와 정당한 야심은 어른들이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젊은이는 본래 의욕에 찬 인간집단이며 그래서 가끔은 지나치게 의욕적일 때가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어떤 청소년들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지나친 기대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는 청소년의 정당한 야심을 죽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기대가 현실적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지만, 지난 세기의 역사를 보면 젊은이들이 야심을 추구할 때는 지나친 기대라고 생각되었으나 나중에 그 기대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예를 많이 본다. 한 예로 미국에서 첫째가는 로켓 과학자인 가필드 박사를 보자. 어렸을 때 그는 달에 가는 것과 로켓에 관심이 많다는 이유로 늘 조롱당했다. 그때는 일종의 정신나간 청년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미국과학계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젊은이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말아야하고, 청소년문화에 대해서는 너무 비판적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청소년문화의 출현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남자가 귀걸이를 하는 것을 나는 싫어하지만 그것이 서양에서는 하나의 유행이다. 남자가 귀걸이하고 계집애들이 코걸이하는 것도 해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신경써야 할 일은 젊은이들이 생활중심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인간의 권리와 가치에 대한 존경이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단체에 대한 정책은 애국심, 복종, 자존심, 진리같은 사회적 가치를 심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런 미덕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청소년운동인 1930년 히틀러의 청소년운동이 강조하던 것과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젊은이들이 어른의 기대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 전체가 같이 추구할 어떤 가치를 가지는 일이 중요하다. 나는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회의가 유엔의 주최로 열린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그 회의는 청소년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권리를 선언했다. 1세기 후의 사람들은 역사를 뒤돌아 보면서, 이것은 어른이 청소년을 다룰 때 지켜야 할 최저 기준이라고 말할 것이다.

슬프게도 내가 사는 미국의 정부는 이 유엔 선언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끝으로, 미국청소년 본부에서 일하는 동안 청소년분야의 국제적 협조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한마디 한다면,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국제적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젊은이들이란 가치, 관심, 취미, 유행 등에서 가장 쉽게 변하는 인간집단이다. 젊은이들의 이런 측면은 국제화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연구자들 사이에 국제적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미 제안된 것처럼 태평양 국가들의 청소년문제를 공동연구할 기관이 탄생되기를 희망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 기관이 상당히 생산적인 동반자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토 론(2)

김 성 이*

앞에 발표된 두 논문은 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현대사회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 더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엔리케즈(V.G. Enriquez)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청소년은 오락물이 아니라 사회의 자산이다. 젊은이들은 부모나 어른들의 갈등에서 독립하는 수단으로 자동차를 산다. 이런 예들은 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했다. 김일철 박사의 논문도 좋아서 나는 청소년문제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두사람의 논문은 서로 다른 관점에 서 있다. 엔리케즈 교수는 개인적 심리라는 관점에 서 있고, 김박사는 사회적 관점에 서 있다. 이 두 관점은 상호 보완적이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두 논문이 일치한다.

두 논문 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호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청소년의 행동은 사회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사회세력적 갈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세 주장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나의 의견을 첨가하겠다.

우선, 호의적 이해에 관해 얘기하겠다. 위의 두 사람 다 청소년을 호의적으로 이해하자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현실 인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호의적 이해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는 자주 젊은세대와 어른세대 사이의 대화를 강조하지만, 대화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는 시작할 수가 없다. 보통 어른의 입장에서 젊은이들은 의존적이고 말썽꾸러기라고 이름 붙인다. 청소년들을 단속하고 훈육하지만 그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비행청소년들은 대개 자기들의 행동이 최선의 길이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비행청소년 감호소를 찾아가 왜 약물을 사용했느냐고 물었더니, 약물의 사용이 그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대답하면서, 왜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약물 사용을 금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약물사용으로 그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 같았다.

*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어떤 사람은 귀걸이 착용, 쌍소리하기, 기타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의미없는 행동들을 이야기 하는데, 젊은이들은 그것들이 가장 의미있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행동에 대해 자기자신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며, 젊은이들도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 그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현실인식과 청소년들의 의미있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음에, 엔리케즈 박사와 김일철 박사는 둘다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 생각에는 김박사 말처럼 사회환경은 젊은이들의 성격형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성격형성은 단순히 도덕적 규범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가치규범이란 타인이 억지로 만들어 줄 수 없다. 사회적 가치규범의 습득은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 잘 생각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규범들 보다는 어른들의 본보기가 더 중요하고, 한 사회의 어른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 세대를 염려한다면 우리가 좋은 본보기를 만드는데 고심해야 한다.

이제는 경제적 목표보다는 인간적 목표, 그리고 경제적 동물이란 본보기 보다는 인간적인 본보기를 주는데 신경써야 할 때다. 사회환경에 관한 정책은 인간성을 증진시키려는 단체와 제도의 가는 길을 참고로 해야 하겠다. 정부와 관계없는 민간단체가 젊은이들을 훌륭한 어른이 되게 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신용을 잃었기 때문이다. 엔리케즈 교수가 말한 것처럼, 중국의 천안문 사태와 한국의 여러 사건들은 우리에게 좋은 암시를 주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청소년정책을 만들 때 그리고 실천할 때 참여하여 어떤 주장을 펴야 할지 있어야겠다. 내가 말하는 민간단체에는 노인들 집단과 청소년 동료집단들이 포함된다.

하나의 사회는 보통 세 나이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년층, 일하는 중간층, 그리고 청소년 층이다. 노년층은 여가시간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문화를 전수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일하는 중간층은 일하기에 바빠서 이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청소년정책을 만들 때 노년층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청소년 동료집단은 그들에 관한 정책이니까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참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엔리케즈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 동료집단은 다음의 경우처럼 널리 이용되고 있다. 동료집단 치유, 동료집단 보충교육, 동료집단 상담 등은 약물남용의 경우에 쓰이는 방법이다. 동료집단이란 청소년들이 독립성을 추구하는 태도와도 연관된 개념이다.

세번째는, 김박사는 어른들은 청소년들과 사회적 권력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고, 엔리케즈 교수는 청소년은 사회적 자원이라고 주장했다. 엔리케즈 교수는 또 재생산을

담당하는 장래의 가족은 현재의 세력없는 청소년들이 통제하는 상황을 걱정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최선의 권위는 어른이 아니라 젊은이 자신들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우리가 엔리케즈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젊은이들과 사회적 권력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자주 양보를 했고 사회적 권력을 나누어 가졌는가를 반성해야 할 때다. 전체사회의 발전에 관한 정책결정에 젊은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그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는 늘 오늘의 젊은이는 내일의 사회적 지도자라고 말하는데, 그말은 젊은이들이 그걸 원하고 또 당장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젊은이들은 지금 당장 참여하고 싶어하고, 우리는 참여란 중요한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만약에 어른들이 젊은이들이 참여하는걸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들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 사회가 그들을 믿지 못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으로 책임을 느끼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회적 권력을 쥔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비판을 수용하고 그들을 자라고 있는 어른이라고 취급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을 정책 결정과 실천에 참여시키고, 그들을 믿어주고, 또 그들과 권력을 나누어 가지라”고 말하는 것으로 나의 결론을 삼고자 한다. 이것만이 젊은이들이 바른 어른이 되고 사회적 책임을 지게 만드는 길이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청소년

다모츠 센고꾸(千石保)*

일본에서는 ‘현실만족주의’(consummatory)와 ‘개별화’(differentiation), 이 두가지 개념이 젊은이의 가치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되었다. 원래 현실만족주의(consummatory)란 단어는 사회학에서 ‘도구’(instrument)와 반의어로 사용되는 기술적인 용어이다. 도구란 개념은 목적과 반대개념으로 수단을 의미한다. ‘현실만족주의’란 일종의 현재주의로 모든 행동이 어떤것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자체라고 지칭되는 개념이다. 또한, ‘개별화’란 개념이나 개별주의를 강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상징이 된다. 일본 젊은이의 정신(심리상태)을 상징하는 열쇠가 되는 개념이다.

현실만족주의이나 개별화의 예를 보여주는 수없이 많은 현상 가운데서 ‘승진거부’를 예로 들어보자. 젊은이들은 승진하기 위해 해야하는 노력을 싫어한다. 더 높은 지위나 존경받는 직위에 오르기를 원하는 젊은이의 비율은 동시대인의 10%를 상회할뿐이다. 경제적인 상승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더 높고 존경받는 위치로 부상하려는 욕구가 상당히 강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상당수의 젊은이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나 생산에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의 가치는 부인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래고 고된 노력은 무의미하고 젊은 시절을 한 순간이라도 즐기기를 바랄뿐이다.

과거에 일본에서 지배적이었던 가치는 미래에 대한 강한 의식이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기꺼이 희생했다. 당시에는 근면이 중심개념이었다. 일본이 이런 경제적인 성공과 부유함은 근면의 결과이다.

일본에서는 고정직업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다. ‘프리-아르바이트’(free albeiter) 스타일이라 불리는 직종이 있는 것이다. 프리-아르바이트는 영어의 ‘free’와 독어의 ‘아르바이트’(albeiter)의 합성어이다. 프리-아르바이트 형태는 젊은이가 일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파트 타임’(Part time) 형식의 일이다. 많은 젊은이가 프리-아르바이트로 일한다. 사실 일본에는 프리-아르바이트를 돕는 광고를 발행하는

* 일본, 일본청소년연구소소장

회사가 있는데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회사가 되었다. 이미 부유한 사회가 실현된 일본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가 지냈던 인생의 목표나 일의 목표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 소위 목적-시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실만족주의이란 개념은 이런 환경에서 생겼으며, 젊은이들이 목적을 잃어가고 있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제 우리는 젊은이가 새로운 목적을 추구하는 시기에 있다. 현대화의 변용인 목표-합리주의와 도구-합리주의는 존재할 이유를 상실했다. 물론 대부분의 일본 기성세대는 아직도 이런 신념들을 믿으며 열심히 일한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감독과 통제(control)가 당연히 되고 있으며 아직도 기능주의가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실만족주의(consummatory)는 주어진 혹은 선택된 상황에서 매 순간 즐기면서 행위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다라는 개념이다. 이것을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행위 그 자체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현실만족주의의 반의어는 도구, 기구, 수단이다. 이 개념을 배제하고 일시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권유한다.

그러므로 현실만족주의는 수단에 반(反)해서 “그 자체(itsself)” 혹은 “순간 그 자체”로 해석된다. 수단은 산업사회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는 이해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노리(nori)”란 신조어가 있는데, 이것은 디스코텍에서 황홀감에 휩싸이는 것, 혹은 개그나 은어로 생생한 대화를 한 뒤 서로 이해가 잘 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일본에서는 “현실만족주의”란 단어를 “노리”로 번역해 사용해왔다. 일본에서 ‘현실만족주의’가 곧 주요 개념이 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구식의 모범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세대의 구식 모범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구세대의 모범을 받아들임으로써 승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은 승진이 자신들의 관점에 따른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사회가 부유해짐에 따라 물질적인 동기가 약화되었고, 근면과 절약으로 대표되는 수단의 가치는 불충분한 것이 되고 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야 하는지 회의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들은 개인주의적인 가치와 공개적인 선택에 더 큰 가치를 둘것이다. 개인적인 욕구가 다양해지고 욕구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욕구의 종류도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들은 ‘현실만족주의’가 되어서 가치를,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에 두게 되었다.

현 상황은 모범을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옮겨가게 한다. 10년전 조사에서는 일본 젊은이의 과반수가 “사회에 기여”와 “자아훈련”을 위해 일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 중 50%가 약간 넘는 수만이 수입을 위해 일한다고 했다. 그러나 10년후인 1989년 30%를 약간 웃도는 젊은이만이 “사회에 기여”나 “자아 훈련”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한다. 반면 다수가 일을 수입을 위한 필요악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는 과반수가 안되는 수가 수입을 얻기위한 수단이라서 일을 생각하긴 하지만 일을 “사회의 기여”나 “자아 훈련”으로 생각하는 젊은이의 비율은 1984년의 61%에서 1989년의 54%로 떨어졌다(제4회 세계청년태도 조사)

산업사회에서 개인이 노동하는 목적은 사회 또는 기업과 관계가 있다. 이것의 공통 관심은 축적하는 것이었고, 이는 산업사회의 모범이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고, 흥미롭게 하는 경력직업(course jobs)이 있다. 일본에서는 패션 디자이너, 여러 분야의 코디네이터, 편집인, 부띠끄의 판매여사원들이 이런 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정말로 일을 즐긴다.

이것은 승진 거부, 예이지만 ‘완료행동’현상과 특수화 현상을 젊은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친구나 일, 공부, 쾌락, 직업 찾는일, 범죄, 비행 등에서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친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협동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들은 농담을 잘 하거나 개성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극소수의 젊은이가 소위 가슴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 가슴을 터놓는 친구란 개념은 기성세대에게는 매우 친숙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이색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친구가 존재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부담이 될것이다. 생산성증가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할때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잘 알고 도와야 했다.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희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것은 일본인들 사이에 단체에 대한 개념을 형성했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세계가 너무 억압적이고, 전근대적인 세대에게만 어울리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친구가 많다고 말한다. 테니스를 치고, 춤추고, 패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친구들이다. 그들은 각 방면의 다른 친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친구들은 그 행동자체의 즐거움과 개별화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파트너에 불과하다. 이런 친구들은 더 이상 높은 목표와 목적을 함께 성취할 파트너가 아니다. 일본에는 ‘오타꾸(otaku)’ 그룹이라는 유행어가 있다. “당신(You)”을 의미하지만 개인들이 서로 진정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맥락과 그들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된다.

학교에서 누가 인기있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본과 미국 고교생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 학생은 10%이하만 “성적이 뛰어난 사람”과 “운동을 잘 하는 사람”이 가장 인기있다고 대답했고, 60.5%가 “유머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미국학생은 36.1%가 “유머감각이 있는 사람”, 18.8%가 “성적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13.8%가 “운동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30%의 중국학생이 “성적이 뛰어난 사람”, 30%가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해 일본 학생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또,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은 생산을 위한 수단이며, 도구의 표현이다. 많은 젊은이들은 처음부터 현실만족적(consummatory)인 차원에서 일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일하는 자체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관심은 오로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된다.

최근 10년내에 일의 가치는 엄청나게 변했으며, 일을 하는 목적이 사회에의 기여와 자아발전에서 돈을 버는것으로 변화했다.

현실만족과 개별화에 관심이 있는 젊은 세대가 이제 사회에서 소비를 주도한다. 그러므로 이제 생산은 젊은이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기술, 자동차, 시계, 사진기등 다른 산업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제조회사에 관계없이 같은 기능과 질을 가진 물건을 만들게 되었다. 이제 생산품은 물건 원래의 기능에 부수적이고 특별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오퍼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자동차, 다른 것과 큰 차이가 나는 시계등등 중요한 점은 물건이 특수화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향은 브랜드의 상징에서부터 개개인 소비자의 상징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회사는 경쟁력이 있으려면 젊은이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젊은이의 욕구를 기능만 중시하는 기성세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젊은이의 욕구는 젊은이만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신상품의 발전과정과 일반적으로 일 그 자체의 과정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다. ‘현실만족지향’의 영향은 일을 게임인양 즐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도쿄 디즈니랜드의 청소직은 현실만족주의의 전형이다. 수단으로서의 청소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고 인내를 가지고 해야하는 일이다. 도쿄 디즈니랜드에서는 정반대로 청소는 배우나 여배우처럼 춤을 추는 것이다. 청소는 디스코댄스와 유사하며, 보통 청소할때 필요한 인내심과는 상관이 없다.

일은 인내심을 요구하며, 그 자체에 인내의 요소가 있다. 그러나 현실만족주의(Consummatorization)는 실제로 이런 영역에 영향을 주었다. 물론 모든 일이 현실만족적이지는 않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제조업이나 건축, 컴퓨터 작동 회사나 컴퓨터를 다루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이 제조업의 직종에서 일하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회의 주요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흥미롭게도 많은 기술계통 대학졸업자가 재무, 보험, 증권이나 기타서비스 산업 쪽에서 새 직장을 구한다. 이런 서비스업은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기술 요원없이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조업계에서 기술 연구자는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패러다임(paradigms)은 막스베버의 목적-합리론에 근거한다. 젊은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기계로 할 수 있으며, 인간에 의해 되는 일은 현실만족적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일은 즐겁고 흥미로운 일뿐이라고 믿는다. 내 관점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모든 일이 다 재미있는 일이 될 수는 없다. 산업사회에서의 모범은 목적-합리주의에 근거하며, 감독이라는 수단과 생산증가와 판매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통제에 의해서만 실현 가능한 기능-합리론을 요구한다. 거기에는 수단이라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생산이 없다면, 젊은이의 욕구는 만족되지 못할 것이며 개별화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본에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갈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막스 베버가 말했듯이 현대화란 사회의 “합리화 과정”이었다. 그것은 사회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시스템은 과정에서 기능의 수행을 증진시킨다. 이것의 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해 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이 필요했으며, 경영관리에 기초한 조직이 도입되었다. 과도한 합리주의화가 일본을 효과를 위한 기계처럼 만들었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현대화란 관습대신 목적-합리적인 행동에 우선권을 주는 과정이었다. 개개인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개인이 기능을 다하는 곳에서 구조는 발전했으며 개인이 기능에 기여한 양에 따라 경제적으로 보답을 받는다. 전형적으로 일본적인 상위 시스템을 가진 조직은 내적으로 효율에 대해 심각한 경쟁을 갖고 있다.

언어체계를 “기능”이란 관점에서 상호작용의 일반화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현대화는 사회생활에서 모든것을 기능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과정이며 사회구조의 메카니즘을 삶의 모든 영역에 도입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도구-합리화의 영역을 고양시킬 것이며, 또 산업사회의 가치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와 사람이 모두 기능, 혹은 도구-합리화로 획일화된것은 아니다. 낮은 생활수준때문에 “필수품으로부터의 자유”가 성취되지 않았던 단계에서는 모든 삶의 분야에 기능-합리화가 파고드는 것이 마땅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부유한 생활을 즐겼다. 경영을 통제하고 산업사회의 발전에 의해 생활의 합리화의 일치가 있었다. 부유한 사회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실현되고 “필수품으로부터의 자유”가 진행중인 단계에서는 사람들은 억압당했던 것에 대해 주장하기 시작한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현실만족주의화(consummatorization)는 개인적 가치에 따라 다양해지고, 행동 그 자체에서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

사람들은 단지 도구-합리화에 따른 사회 기능을 이루기 위해서만 행동하는 것은 아

니다. 행동에 주관적인 의미를 줌으로써 개인이 합일화된 세계, 삶의 세계를 형성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왔다. 이것은 사회에 축적된다.

요약해서, 우리는 목적-합리화 존재로서가 아닌 세계를 구성하는 능력있는 구성원으로서 행동하는 개인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삶은 목적 달성을 향한 셀프-컨트롤의 작은 영역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재평가하는 것 역시 삶에서 중요한 일부분이다.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는 고급식당을 찾는 미식이 붐, 상품 브랜드 붐, 복고 붐이 있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으며, 그 공통점은 그들이 인생에서 “부자가 된 기분” 혹은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과 같은 충족감을 원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의미가 이질화되거나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처럼 특수화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이질화나 개별화는 각 개인의 동기나 의지, 즉 소위 주관적인 의미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의미에 기초한 세상에서 각 개인은 다른 동기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한다. “동기변화”가 중요하다.

“차별동기”라는 개념은 풍요로운 사회의 도래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것은 “필수품으로 부터의 자유”가 큰 이슈였던 단계에서는 무시되었었다. 하지만 현실만족주의 경향이 풍요를 전제로 함에 따라 동기의 차별이나 특수화가 풍요 그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 내부의 문제로 부상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수단으로서의 인내가 요구된다. 인내없이는 생산이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현실만족주의(consummatory)와 상충한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간의 다양한 관념이나 소비, 여행등에 대한 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일본은 쇠락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고 믿게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현대화의 기초였던 회사로부터 달아나고 있다. 또 회사를 위한 준비기관에 지나지 않는 학교로부터도 도망친다. 등교거부와 고교자퇴는 현대화의 축이었던 감독, 질서, 통제, 기억, 복종으로부터 탈출이다.

차별동기가 현실만족주의(consummatory)현상의 기초이므로 우리는 동기에 대해 더 자세히 파고들어야 한다. 마슬로우(H. Maslow)는 인간욕구 감소의 5단계 이론을 제안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 가장 본질적인 단계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가 출현한다고 한다.

배고픔이나 갈증을 만족시키는 물리적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다음은 안정에의 욕구, 애정에의 욕구, 타인의 존경을 받고자하는 욕구, 그 다음이 자아실현의 욕

구, 혹은 인생에 의미를 지닌 목표달성에의 욕구이다.

인간욕구에 대한 마슬로우의 관점에는 다른 특성이 있다. 즉, 욕구가 충족되면 그 욕구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소하는 욕구에 대한 마슬로우의 관점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매일 경험하는 현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들어 일본과 선진국의 미식가 붐을 살펴보자.

사람들은 갈수록 더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욕구가 충족되어도 감소하지 않는 것 같다. 차별화를 찾아 일본인들은 일본풍의 식당에 몰려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슬로우의 욕구감소이론에서는 문제가 있음을 알게된다. 마슬로우는 이론의 기초를 “결핍”에 둔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족감을 느끼고 그 욕구가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기본욕구가 만족된다해도 그다음 단계의 욕구는 충족되지 않는다.

인간은 이 더 높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마슬로의 욕구가 “결핍동기”에 기초한다고 말할 수 있다. 풍요로운 사회와 “필수품으로 부터의 자유”가 생기면서 우리는 더 이상 “결핍동기”에 의해 동기유발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더 다양한 욕구를 갖게 되었다. 욕구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동기가 되는 요소들은 차별화에서 보여지며 이것은 “차별동기(difference motive)”의 기초가 된다. 요즘 젊은이는 개인화와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는 이것이 과정상 “결핍동기”에서 “차별동기”로 전환되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결핍동기가 우세할 때 사람들의 목표는 욕구의 단계를 높이는 것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단계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이 단일하고 획일하더라도 차이는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대부분 부유해짐에따라 더 높은 욕구의 충족이 더 이상 욕구를 위한 목표로써 기능하지 않는다.

“결핍동기”와 “차별동기”는 결국 소비증상을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청소년의 소비행동뿐 아니라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계행동까지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여러 회사가 이미 소규모 품목을 채택해 다양한 욕구에 호응하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특수한 것은 없으며, 특수한 것은 끝이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젊은이의 패션이 특수한 것에서, 특수한 것을 기대하느라 유행을 따르는 것을 본다. 궁극적으로 특수한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유행”으로 밖에 특수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런 이유로 “유행”이라는 단어가 생겼으며, 새로운것을 의미하는 이말이 인기있는 용어가 됐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젊은이를 분석하는데 사용될 만한 다른 개념은 상대주의이다. 우리는 어느정도의 풍요를 이루었으므로, 우리 사회는 목적없는 사회가 되었다. 우리는 정신적 지주

인 노력과 인내가 상실된 상황속에 있다. 노력은 일본의 정신적 지주였으며, 완벽하고 보편화된 가치로 간주되어왔다. 한 분석가는 오래전 일본에 보급된 환경은 개인주의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전 근대화된 환경이었다고 말한다. 그말이 사실이라해도 일본인이 오랫동안 존재한다고 믿어온 정신적 지주를 상실했다는 사실은 국민들간의 가치개념에 있어서 극도의 혼란을 야기시켰음에 틀림없다.

어떤 것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 의해서든지 시행되기를 요구하는 가치개념의 붕괴로 인해, 젊은이는 개인이 원하는대로 무엇이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발견했다. 기성세대는 젊은이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젊은이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자기에게 충실한” “자신에게 성실한”이 청소년의 중심언어(key word)가 되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자신에게 충실한”이란 의미를 영어로 옮기기는 곤란하다. 그것은 일종의 개인주의이며 “가능한 한 많이 개인적인 것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이다.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것은 상대성의 요구이며 문화상대주의의 줄기에서 개인상대주의로 묘사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전될 수 있다. 어떤 해설가에 의해 분석된 바에 의하면 일본인이 획득한 개인주의적 가치는 전근대 사회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로 급격히 부상한데서 연유한다고 한다. 일본에서 현대 사회의 패러다임(paradigm)에서의 개인주의가 상실되어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에서 상대주의는 현실만족주의(consummatorization)와 짝지어져서 일본 청소년으로 하여금 개별화를 더 지향하게 해왔다.

상대주의와 현실만족주의는 이전에 언급한 바와같이 “오타꾸”그룹과 같은 친구의 새로운 관계형태를 낳았다. 그들은 특별한 영역에 관심있는 사람들과는 끝없이 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이 소집단을 떠나면 그들은 말이 없어지고 그들의 다른 생활에는 무관심하다. “오타꾸”그룹에 속한 이런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과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1989년 일본에서 주목할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한 젊은이가 어린이 외설물을 광적으로 좋아하게 되어서 유괴를 해 어린소녀 몇 명을 차례차례 살해했다. 그는 이 소녀들같이 되기 위해 공개적으로 소녀들의 인육을 먹었다. 놀라운 것은 그의 방에서 바닥에서 천정까지 쌓아놓은 어린이 외설물 비디오테이프가 5000개나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라면 이 사건을 예외적인 범죄로 다룰 수가 없다. 일본 청소년은 이제 이 청년과 유사한 정신과 가치, 즉 상대성을 지니게 되었다.

미국의 비행청소년 처리 문제

슈왈쯔(Ira. M. Schwart)*

서 론

미국의 비행청소년 처리제도는 바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변화중에 있는 제도에 대한 점검과 미래의 영향력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소년법원

소년법원의 역사적인 시작은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있었던 소년보호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의 사회개혁가들은 청소년들이 형사법원에서 성인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같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졌고 범죄유형이 동일하더라도 소년은 같이 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사회개혁가들은 소년의 처리는 형벌주의보다 그들의 비행을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Schwartz, 1989).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소년들을 위한 특별법원 설립을 유도해 냈다. 이 새로운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가정하여 설립되었다:

1. 소년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소년들의 행위에 대한 원인을 알아내어서 알맞은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2. 판결은 그 소년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내려져야 한다. 판사는 자신이 그 소년의 보호자 입장에서 행동하고 판결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뒤에 파렌스패트리(Parens Patriae)모델로 지칭되게 되었다.
3. 사회과학과 행동과학은 문제의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지식과 통찰력을 제공해야 한다.

* 미국, 미시간대학교 청소년 정책연구소장

4. 소년법원은 성인의 형사법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의 중압에서 벗어나야 한다. 피의자를 죄수 취급하는 소송절차는 사회복귀 과정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소송절차는 아동이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냉대받지 않고 또한 문제해결에 적합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파렌스 패트리 모델은 실질적으로 반세기 이상을 별다른 저항없이 존속되어 왔다. 그러나 1967년, 미국 대법원은 갈트(Gault)의 판결에 의하여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이 사건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소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자에 맞서 심문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와 소송절차상의 기록을 보존할 것을 선포하였다(Gault, 1967). 1970년의 Winship의 판결에서는, 법원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유죄판결은 성인의 형사사건에서와 동일한 기준 즉, “의심의 여지가 없음”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Winship, 1970).

이러한 판결들은 파렌스 패트리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의미했으며 소년 법원과 성인 형사법원이 절차상 그리고 실질상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Feld, 1990).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비행에 대하여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형벌에 대하여 많은 강조점을 주기 위한 주 청소년 재판 규정의 수정은 파렌스 패트리 모델이 희석되어지는 또 하나의 실례가 된다.

비록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법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고 특정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청소년 재판에서 법원의 판결로 수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예컨대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이 비행과 우범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경우 실질적으로 변호인이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Feld, 1989). 많은 청소년들은 변호인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양도해 주도록 권유받고 있으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청소년 본인들은 그러한 결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Grisso, 1980; Feld, 1984, 1989).

소년법원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행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는 별도의 청소년 법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청소년 법원이 Gault 판결과 같은 입장에 설 때의 문제점으로 일부인사들은 청소년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그 비행이 성인 형사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소년 구금 동향

1960년대와 70년대초는 “baby boom” 시기였다. 이 기간동안 미국의 아동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아동인구의 증가는 그에 상응하는 청소년 범죄율의 증가를 가져왔다.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 1980년대의 아동 인구감소는 청소년 범죄 특히 강력 범의 감소를 가져왔다.

1977년에서 87년사이 모든 청소년 범죄(즉, 강력범, 재산범, 우범)의 구속 비율은 십만명당 6,940명에서 6,477명으로 감소되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표 1>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강력범의 구속율은 꾸준한 반면 심한 재산범은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사람들의 연구결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Elliott와 그의 연구진이 실시한 국가의 자체비행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Elliott, D.S.; Ageton, 그리고 Huizinga, D.).

최근의 인구통계 연구보고에 나타난 것을 보면 미국에서의 아동인구는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빈곤층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동인구 증가가 현저하다. 이러한 경향은 그 아동들이 성장해서 십대 중반이 되는 시기에는 청소년 비행이 증가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소년 법원의 동향

공적인 법원의 처리절차로부터의 청소년의 분리는 1970년대와 80년대의 주요 청소년 재판정책의 목표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추구한 정책의 효과는 거의 전무하였음을 다음의 연구결과로 알 수 있다. 즉 1975년에서 1981년사이 소년법원에 넘겨진 청소년의 수와 비율은 비교적 일정하였다(Krisberg와 3인, 1986). 또한 동일 기간 중 소년

<표 1> 미국 청소년 폭력·재산범 체포비율(1977~1987)

	1977		1983		1987	
	숫자	비율	숫자	비율	숫자	비율
폭력범	81,368	260	74,682	258	72,829	264
재산범	745,534	2,384	579,581	2,000	585,662	2,120
합 계	826,902	2,644	654,263	2,257	658,491	2,383

자료 : Steketee, Willis, and Schwartz, 1989, *Juvenile Justice Trends 1977-1987*, p.15.

법원에 공식 송치된 비행과 우범의 경우도 비교적 일정하였다(Dalma의 2인, 1981 ; Snyder의 2인, 1985 ; Synder의 5인, 1988).

청소년 수감 동향

청소년 수감

청소년 구치소는 법원에 출두하기 위해 대기중인 청소년들을 구속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물리적인 안전시설이다. 이 시설은 강력범으로 고소중인 청소년과 보석금에 의해 석방하거나 지역사회 중심의 감독형태로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년들을 구속하도록 되어 있다.

1987년도 구치소 입소비율은 1977과 사실상 동일하였다(Steketee의 2인, 1989). 비율은 안정적이었지만 1977년과 1984년 사이에 약 15%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그 수준에서 증가되었다.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구치소는 강력범이나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청소년 또는 수감하지 않으면 탈주의 염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는 경범자들로 대만원을 이루고 있다. <표 2>는 1987년 2월 구치소에 수감된 숫자(자료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근 데이터)와 강력범으로 수감중인 청소년 숫자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60%는 경범이나 우범정도의 2호 처분해당자이다.

직업훈련소

직업훈련소는 법원에서 선고후에 입소하게 되는 공적인 청소년 교정보호시설이다. 몇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관은 여러 주에서 운용되고 있는 집단 보호시

<표 2>

청소년 감호소 범죄별 매일통계(1977.2.2)

	숫자	%
폭 력 범	1,807	12
재 산 범	4,368	29
제 2 종 범 죄	7,889	53
지 위 저 항 범	833	6
합 계	14,897	100

자료 : Steketee, Willis, and Schwartz, *Juvenile Justice Trends 1977-1987*, p.41.

〈표 3〉

청소년훈련소 입소비율(1977~1987)

1977		1982		1987	
숫자	비율	숫자	비율	숫자	비율
66,098	227	56,568	205	61,399	236

자료 : Steketee, Willis, and Schwartz, *Juvenile Justice Trends 1977-1987*, p.23.

〈표 4〉

청소년 훈련소 범죄별 매일통계(1987.2.2)

	숫자	%
폭 력 범	5,204	20
재 산 범	8,609	33
제 2 종 범 죄	11,395	44
지 위 저 항 범	560	2

자료 : Steketee, Willis, and Schwartz, *Juvenile Justice Trends 1977-1987*, p.42.

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이 시설의 입소비율은 1977년에서 87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다.

구치소와 마찬가지로 직업훈련소에 수감되어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이거나 경범자들이다. 실제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시설에 수감중인 청소년들의 55% 이하가 강력범이거나 재산범이다.

토 론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의 소년재판제도 개혁을 위한 수차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미약했다. 즉 미 대법원은 젊은이들이 성인들과 같은 법적진행과 절차를 거치도록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파렌스 패트리 모델을 온존시켜서 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비행사건 처리를 소년법원에만 맡기지 말고 성인 형사법원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소년들이 재판에서의 합법적인 절차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 나타난 청소년수감 실태에 대한 국가자료는 매우 실망스럽다. 1974년에 의회는 청소년 재판과 비행예방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우범의 탈시설화, 청소년

수인의 성인으로부터의 분리수감, 그리고 비강력범, 초범에 대해서는 주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U.S. Congress, 1973). 미 의회, 청소년재판 개혁론자들, 그리고 아동인권옹호론자들은 청소년 수감에 있어서 숫자적으로나 비율로 많은 감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내의 아동인구증가와 빈곤층 아동(특히 소수민족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청소년 수감 비율은 증가하리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그 중 다행스런 현상은 청소년 구금실태가 국가적 자료를 넘어서서 각 주의 추세와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즉 현존하는 자료에 의하면 많은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소자 직업훈련원생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않고도 직업훈련원생의 숫자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예를들면 1977년에서 1987년사이 23개 주에서 재소자 직업훈련 입소율이 줄어들었는데, 약간 줄어든 주는 알칸사스, 콘네티컷, 하와이, 캔자스, 뉴멕시코, 노스 다코타와 위스콘신주 였으며 20%이상 감소된 주도 상당수 있었다. 캘리포니아는 십만명당의 비율이 1977년의 446명에서 1987년에는 291명으로 감소되었다. 그외 델라웨어는 553명에서 368명으로, 플로리다는 368명에서 60명으로, 캔터키는 137명에서 90명으로, 루지아나는 222명에서 121명으로, 미조리는 194명에서 103명으로, 오크라호마는 240명에서 89명으로, 펜실바니아는 92명에서 60명으로 감소되었다(Stekette외 2인, 1989). 정책입안자들과 청소년 교정당국간에 재소자 직업훈련소 학생수를 하향조정하고 있는 주로는 메릴랜드, 알칸사스, 버지니아, 오레곤, 테네시 등이 있다.

범죄와 비행에 관한 국가평의회(NCCD)는 재소자 직업학교를 폐쇄한 매사추세츠와 유타주에 대한 교정보호제도를 평가한 일이 있다. 이 주들은 비행자와 상습범법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몇개의 소규모 체제를 개발하였으며 주의 보호를 받고 있는 기타 비행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적용하고 있었다.

매사추세츠주의 사례에 기초하여 평의회의 연구진들은 탈시설화 제도가 청소년 범죄의 물결을 잡아 주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 청소년 서비스부에서 돌보고 있는 청소년들은 전에 비해 많은 범죄감소를 보여 주었으며(Krisberg외 2인, p. 42) 더 나아가 그뒤 2년간도 첫째와 마찬가지로 감소현상을 보였다.

이와 비슷하게 유타주 제도의 평가에 의하면 강력범, 상습범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사회중심 보호의 타당성은 지역사회의 호응을 얻지 못했으며(Austin외 3인, 1990) 단기수감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근거있는 제안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평가와 아울러,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지역중심의 서비스에 폭넓은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 최초의 여론 조사결과, 직업훈련학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주의 숫자가 앞으로 증가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청소년 수감이 남용되고 있는데도 이는 무시된채 주요문제로서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 플로리다주 보건 및 복지서비스부와 Annie E. Casey 재단이 합동으로 실시한 실험계획은 플로리다주 남쪽의 브로워드 카운티에서 청소년 수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실험연구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Schwartz의 2인, 1990), 이 결과를 바탕으로 Annine E. Casey 재단은 국가적으로 수감문제에 대한 재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소년법원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논쟁들을 통해 90년대에는 개혁을 향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최소한 주 입법부는 재판에서 변호인이 청소년에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조치를 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보다는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지만 몇몇 주입법부는 사법권에서 소년법원을 철폐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요 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의 소년재판제도는 변화의 와중에 있다. 이 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절실한데도 변화에 대한 심한 저항때문에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의 제도는 한마디로 소년법원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이송되고 있고 판결에 있어서 시설 의존도가 너무 과도하며, 청소년들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내에서 선출직 공직자, 소년재판관계 전문가들, 학자들 그리고 아동인권보호 기관의 깊은 관심영역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금세기가 끝나기 전에 연방정부와 주 정부차원에서의 큰 변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Austin, J., Joe, K., Krisberg, B., & Steele, P. A. (1990, March). The impact of juvenile court sanctions: A court that works. *NCCD Focus*, 1-7.
- Dahma, L., Snyder, H. N., Sullivan, D. (1981, February). *Juvenile court statistics: 1976-1978*.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 Elliott, D. S., Ageton, S. S., & Huizinga, D. (Undated). *The social correlates of delinquent behavior: 1976-1980*. Boulder, CO: Behavioral Research Institute.
- Feld, B. (1984). Criminalizing juvenile justice: Rules of procedure for juvenile court. *Minnesota Law review*, **69**, 141-276.
- Feld, B. (1989). *The right to counsel in juvenile court: Fulfilling Gault's promise*. Ann Arbor, MI: Center for the Study of Youth Policy.
- Feld, B. (1990). The punitive juvenile court and the quality of procedural justice: Disjunctions between rhetoric and reality. *Crim & Delinquency*, **36**(4), 443-466.
- In re Gault*. (1967). 387 U.S. 1.
- Grisso, T. (1980). Juveniles capacities to waive Miranda rights: An empirical analysis. *California Law Review* **68**(6), 1134-66.
- Krisberg, B. (1990, March). *Juvenile justice: A critical examination*. San Francisco, CA: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 Krisberg, B., Austin, J., & steele, P.A. (1989, November). *Unlocking juvenile corrections: Evaluationg the Massachusetts department of youth services*. San Francisco, CA: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 Krisberg, B., Schwartz, I. M., Litsky, P., & Austin, J. (1986, January). The watershed of juvenile justice reform. *Crime & Delinquency*, **32**(1), 5-38.
- Schwartz, I.M. (1989). (In)justice for juveniles: Rethink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Schwartz, I.M., Abbey, J.A., & Barton, W. H. (1990). 1990 *Michigan juvenile justice crime survey*. Ann Arbor, MI: Center for the Study of Youth Policy.
- Snyder, H. N., Hutzler, J. L., & Finnegan, T. A. (1985, June). *Delinquency in the United States 1982*.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 Snyder, H.N., Finnegan, T. A., Nimick, E. H., Sickmund, M. H., Sullivan, D. P., & Tierney, N. J. (1988). *Juvenile court statistics 1985*.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 Steketee, M.W., Willis, D. A., & Schwartz, I. M. (1989). *Juvenile justice trends 1977-1987*. Ann Arbor, MI: Center for the Study of Youth Policy.
-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to Investigate Juvenile Delinquency (1973). *Th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S.3148 and s.821. Washington, D.C.: 92rd Congress, 2nd session; 93rd Congress, 1st session.
- In re Winship*, (1970). 397 U.S. 358

熱望과 挫折, 그리고 反抗 : 變動社會속의 韓國青年文化의 特徵과 課題

차 경수*

I. 한국 전통사회의 청년문화

산업사회가 오기전에는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한국의 청년들도 그들의 독특한 행동양식을 발달시키지 않은 채 청년기를 보냈다. 중국과 한국 등 극동지방의 국가에서는 성인들은 물론 청소년들도 주로 유교적인 가치체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았다.

유교적인 가치체계는 말할 것도 없이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기 보다는 충·효·도덕성·연장자에 대한 존경 등과 같은 정신적인 것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한국의 “삼강오륜”은 서양의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현실세계에서 행동의 지침과 같은 것이었다. 사회심리학자 클라크혼(F. Kluckhohn)의 모형을 빌리면 유교적 가치관은 개인주의적 이기보다 종적이며, 미래지향적이거나 현실중심적이기보다 과거지향적이다. 또 업적지향적이기보다 존재지향적이며,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자연극복적이기보다 자연에 대한 순응이나 조화를 더 중요시 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문화나 가치의 전통에는 인간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인본주의적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사상은 한국 역사를 통하여 널리 이어져 왔다. 한국의 전통문화가 효나 도덕성 등 정신적 가치를 중시한 것은 결국 인간을 높이 평가한 데에서 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한국에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한국의 문화적 전통이나 가치체계도 상당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오늘의

* 한국,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청소년들은 지난날의 청소년과는 크게 다르다. 청소년들의 새로운 행동양식에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들은 때로는 경악하기도 하고, 분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청년문화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한 변동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II. 청년문화의 새로운 경향

한국 청소년들의 의식이나 행동양식에 관한 연구는 여러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비교적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 세가지를 분석하여 한국의 청년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일본 총무청이 1989년에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중국, 프랑스, 싱가포르, 스웨덴, 미국, 영국, 서독 등 11개국가에서 각각 약 천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4회 세계청년 의식조사보고서의 결과와 비교하면서 한국 청소년들의 의식이나 가치체계를 명확히 해 보고자 한다.

세계청년 의식조사에서는 가족, 학교, 직업, 친구, 자유시간, 지역사회, 사회와 국가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이 조사의 자료는 한국에서 실시된 국내의 자료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 한국의 청년문화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며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발전지향성과 좌절감

1984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조사한 “한국청소년의 의식구조”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독립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직업과 일상생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짧은 시간에 큰 업적을 이룩하기 위해 초조해 하지만,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1960년 이후의 한국 산업화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청소년들은 매우 강한 “발전 지향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발전지향성이 적절하게 유지되는한 한국은 앞으로 당분간 60년대 이후의 성장추세를 그대로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편 한국의 청소년들은 심각한 심리적 갈등, 좌절감, 불신, 소외의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 청소년들은 한국 청소년들보다 삶에 대해서 덜 적극적이지만 더 만족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덜 느낀다. 한국 청소년들의 좌절감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더 느낀다. 한국 청소년들의 좌절감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성취하려고 하거나 실제적인

능력보다 성취의 수준이 더 높은데에서 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갈등은 1970년 대 이후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결과를 일본 총무청이 펴낸 1989년의 세계청년의식조사에서도 알 수 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들은 근대적이며, 성취지향적이다. 11개국의 조사중에서 개인적인 성공의 결정요인이 노력과 능력이라고 믿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동시에 가정(가장 높다), 학교(둘째번으로 높다), 직업(세째번으로 높다), 사회(가장 높다)등에 대한 불만감이 다른 11개국과 비교할 때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비판적인 사회의식

1987년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펴낸 “전후 세대의 가치관과 이념”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들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대학생들은 매우 자유지향적이고, 반권위적이며, 도덕, 민중, 통일, 반외세,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들은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권위와 규범과 관습을 거부하고 있다.

여학생들은 특히 고도경제성장의 부작용, 정부규제의 경제운용, 산업공해, 재벌의 독과점, 퇴폐향락산업, 불평등, 부정, 빈부격차등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이러한 비판의식은 “세계청년의식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한국 청소년들은 11개국 중에서 빈부격차, 부정, 개인의 능력 무시 등의 불만을 토로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또 사회에 대한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투표”보다 필요하다면 불법적인 수단이라도 호소 “여러가지 합법적인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한국 청소년의 비율이 11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는 것 역시 주목할 일이다.

3. 가정과 학교에서의 고민

한국의 10대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세대차와 학업성적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갈등과 고민을 겪고 있다. 중앙일보사가 발행하는 1988년의 “하이틴”이 만여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기 자신의 낮은 능력과 부모들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 사이의 격차가 가장 괴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부모와 교사들이 요청하는 공부속에서 설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한국 10대들이다. 그들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그러한 갈등, 즉 부모와의 세대차에서 오는 갈등과 학교에서의 그러한 갈등, 즉 부모와의 세대차에서 오는 갈등과 학업성적에 대한 고민이 가출이나 자살을 생각케 하는 2대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즐거운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기

성세대들은 감히 반성해야할 일이다.

우리는 또한 청소년들을 학문, 역사상의 위대한 사상, 과학과 예술 등의 고도문화와 접촉시키는 데에 성공적이지 못해 왔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그들의 여가시간을 TV 보기, 친구와의 잡담, 흥미위주의 대중잡지 보기 등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철학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이러한 고민은 일본의 세계청년의식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문제에 대한 고민은 11개국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 자녀의 교육과 가사의 결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아버지가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은 11개국 중에서 가장 적다. 이러한 자료로부터 우리는 가정의 구조와 청소년의 의식 사이에 심각한 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청소년들의 의식이 상당히 근대지향적이지만 가족구조는(현재 변화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옛날의 가부장적인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III. 전망과 정책적 과제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직업, 사회문제 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식과 가치관을 국내외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 청소년들은 일본의 비교 연구에 의하면 11개국 중에서 가정생활, 학교, 사회문제 등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는 특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현대사회의 청소년,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일반의 경직된 환경에서 오는 긴장 때문에 심각한 심리적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의 청소년들이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가정, 학교, 거리에서 그들이 인간적인 사랑을 맛보게 해야 하며,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젊은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주의깊게 그리고 관용스럽게 들을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높은 성취동기를 가지고 사회발전에 참여하게 하는 한편, 사회의 현실을 정직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사회정책을 시도함으로써 그들이 소외감과 불만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사회구조와 청소년들의 의식 사이에 있는 커다란 갭을 감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기성세대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누려왔던 특성을 젊은 세대에게 상당부분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우리는 가정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이외에 일하는 경험을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하고, 일을 너무 적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의 혁신을 위하여 가정과 학교는 일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학교와 산업계가 서로 협동하여 산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요청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그러한 다양한 활동에 의해서 책임감을 높이고, 지도력을 배양하며, 다가오는 21세기를 위하여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방향에 따라서 청소년정책에서 추진되어야 할 구체적 과제를 몇 가지 시사하고자 한다. 특히 1987년에서 1991년까지의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은 “청소년”부분을 독립시켜 프로그램은 그 기본원리로서 (1)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2) 성인이 모범을 보이고 (3) 청소년교육에서는 자율성을 존중하며 (4) 청소년정책은 한국의 역사적 전통과 조화되어야 할 것 등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가정에서는 (1) 대화기회의 확대 (2)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3) 미성년 가장 가정에 대한 지원 (4) 가족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1) 과외활동을 통한 인간교육 (2) 개인학습 증진 (3) 상담교사의 활성화 (4) 교사-학생의 인간관계 강화 (5) 학교의 조경, 휴식공간, 예능실 등 교육환경 개선의 과제가 시급하다. 사회환경에서는 (1) 학교 앞 유해환경의 제거 (2) 대중매체의 교육기능 강화 (3) 토지의 용도 구역제 엄격 실시 등의 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단체를 위해서는 (1) 재정적 보조 (2) 스포츠 문화센터건립 (3) 고급문화프로그램 개발 (4) 청소년 수련시설 확대 (5)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활동 강화 (6) 미진학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7) 비행청소년을 지도하기 위한 교정 프로그램 개발등의 과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화와 더불어 각 국가는 경제성정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청소년문제 등에 대해서는 말로만 관심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시설을 확대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제 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청소년부분(1987-91), 1987.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특집, 사회과학과 정책, 9권 1호, 1987.
- 중앙일보사, 하이틴, 1989년 4월호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청소년의 의식구조, 1984.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 10회 한일청소년 지도자회의 세미나 보고서, 21세기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한일협력 방안, 1988.
- Cultural and Social Center for the Asian and Pacific Region,
Proceedings of the Fifth Asian-Pacific Conference on Juvenile
Delinquency, December 6-12, 1987. Taipei, Republic of China.

토론(1) : 변모하는 중국의 대중매체와 또래 집단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손충웅(孫忠雄)*

I. 서론

지난 오랜 세월동안 중국의 사회과학자들은 청소년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부족하여 오늘날 중국 청소년의 성적 성숙, 성의식, 성지식 그리고 이분야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한 지식은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1988년 상해과학원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청소년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후로 이러한 조건들이 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생활환경, 성적 성숙도, 그리고 성의식과 같은 발달조건과 청소년에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 5개지역 3,000명 남녀 10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무선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조사결과의 발표로 인하여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우리사회가 큰 관심과 주의를 갖게 되었다. 본 논문은 급변하고 있는 중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신뢰되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현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 대중매체와 또래집단의 영향력을 알아보고 중국청소년의 발달이론을 정립하여 청소년에 대한 새롭고 중요한 교육양식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세우고자 한다.

- 변모하는 중국의 대중매체 -

지난 10여년 동안 중국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과 개혁으로 중국의 대중매체에서도 역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청소년의 생활환경, 성적 성숙 그리고 성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중매체가 방대한 양, 새로운 수단 그리고 높은 빈도로 청소년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의심할 것없이 무방비 상태

* 중국, 상해사회과학원

의 환경에 놓이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현재 중국에서 대중매체의 증가는 놀랄만한 것이다. 1976년 통계에 따르면 당시에는 중국에 단지 182개의 신문, 정기간행물과 잡지가 있었다. 그러나 1985년에는 10년간에 20배에 달하는 3,866개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85년에 중국 대중매체의 총 발행부수는 30조에 달한다. 크게 신장된 대중매체가 중국의 각 가정에 전달됨으로써 중국청소년들이 더 쉽게 정보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입증되었다. 중국 중학생들의 가정 대부분이 신문, 정기간행물 그리고 잡지를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중생 : 74.88%, 여중생 : 79.44%). 남자중학생의 경우 27.57%는 두종류의 신문, 정기간행물/잡지를 구독하고 3종류를 구독하는 가정은 19.94%, 4종류는 9.58%, 그리고 다섯종류이상을 구독하는 가정은 15.54%였다. 여자중학생의 경우에는 두종류의 신문, 정기간행물/잡지를 구독하는 가정은 25.83%, 3종류를 구독하는 가정은 20.07%, 4종류는 10.17%, 그리고 다섯종류이상을 구독하는 가정은 14.85%로 각각 나타났다. 대부분의 10대들은 매일 일정 시간동안 신문, 혹은 정기간행물 그리고 잡지를 보며 남학생의 69.14%와 여학생의 64.33%가 약 30분 정도 신문, 정기간행물, 잡지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의 23.6% 여학생의 29.72%는 한 시간정도 신문 정기간행물, 잡지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중매체의 수단은 전보, 라디오, 텔레비전, 녹음기, 비디오, 통신위성, 기타 등등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는 T.V(수상기)와 녹음기가 점점 더 많은 도시의 가정에 보급되고 있으며 비디오 역시 그 보급이 증가되고 있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학생들의 가정이 개인소유의 라디오, T.V(수상기), 녹음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T.V를 보며 남학생의 45.8%와 여학생의 49.29%는 한번에 2시간 정도 보고 남학생의 30.95%와 여학생의 31.32%는 한번에 1시간 정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보와 방송 분야에 있어서 기술의 현대화로 정보전달의 속도가 매우 빨라짐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동시에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여러지역간의 문화적 차이가 줄어들었다. 설문조사결과를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영화, T.V 프로그램의 종류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즉, 해안가에 사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영화 혹은 T.V 프로그램이 내륙에 사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과 대개 비슷하다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들의 하위문화가 획일화되어 가는 것은 현대화된 전달매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대중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대중매체가 급속하게 발전해가고 있는 중국에서 부모나 선생님께서로부터 받는 정보는 이미 청소년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들은 다양한 현대의 전달매체에서 가장 흥미롭고 절박하게 요구되며 가장 최신의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사회적 위치와 친구관계, 더 나아가 정치적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는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이다(Erikson, 1968; Vander Zanden, 1989). 또한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과 성적 발달에 관한 지식, 이성을 대하는 방법과 예절에 관한 지식을 배워야하는 시기가 바로 이 단계이다(Yao Peikuan, Sun Zhongxiong et al, 1990). 그렇기 때문에 현대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발달에 더욱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앞으로 다룰 주요한 두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청소년들의 조숙한 성숙의 문제이다. 대중매체로 인해 청소년들은 성적 감각에 눈뜨게 된다. 설문에 응답한 중학생의 50~70%가 성은 누구나 갖는 보통의 것으로 생각하며 60~75%의 학생은 영화의 외설적 장면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전통적인 관점에 반하는 것이다. 영화와 책에서의 외설적 장면과 묘사 역시 중학생들의 성심리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이성에 대한 최초의 동경, 성에 대한 관심, 성충동, 성숙, 성에 관해 꿈을 꾸는 현상이 6세 또는 8세에서 18세 혹은 19세에 나타나며 평균 14세내지 15세에 나타난다(Yao Peikuan, Sun Zhongxiong). 또한 남녀간에 신체적 성숙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나 심리적 성숙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나마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그 원인을 돌릴 수 있다.

둘째, 대중매체로 인하여 부모-자식 형제 혹은 사제간 형태와 같은 전통적인 정보전달방식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또래집단 형태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며 결국 새로운 또래집단 문화의 종류를 증가시켰다.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모든 종류의 성에 관한 지식습득의 측면에서 볼때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와 선생님께서로부터 지식을 얻는 것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 중학생의 41.97%와 여자 중학생의 44.50%가 부모로부터 성에 관한 지식을 거의 얻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남자 중학생의 23.17%와 여자 중학생의 24.18%는 선생님께서로부터 성에 관한 지식을 거의 얻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대중매체와 또래집단이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 중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교육과정, 부모 그리고 선생님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서 대중매체와 친구의 영향력이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

〈표 1〉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요 인	남 학 생		여 학 생	
	응답자(명)	%	응답자(명)	%
부 모	36	2.94	81	6.34
선 생 님	68	5.56	50	3.91
친 구	138	11.28	128	10.02
형 제 / 자 매	6	0.49	16	1.25
의 학 서 적	359	29.35	295	23.08
신 문 / 정 기 간 행 물	267	21.83	271	21.21
영 화 / TV	85	6.95	118	9.23
방 송	42	3.43	83	6.49
문 학 서 적	172	14.06	154	12.05
학 교 교 과 과 정	33	2.70	48	3.76
기 타	18	1.39	34	2.66
합 계	1,223		1,278	

해 가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에 중국사회의 개혁운동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선생님과 부모의 영향력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도덕규범과 여러 지식들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근간이 되었다. 현재의 변화는 청소년들의 또래집단과 그 문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어떻게 하면 청소년 또래집단의 영향과 효과가 청소년의 발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 변모하는 중국의 또래집단 —

발달적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기(adolescents and youth)에는 애착의 욕구(특히 또래집단에 대한 애착)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종종 젊은 개개인과 큰 사회를 매개시켜주는 것이 바로 또래집단이며, 중국처럼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청소년 집단의 이러한 성격은 더욱 현저해지고 있다.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집단은 자아정체감(ego-identity)의 중요한 근원이 된다. 특히 자아 혹은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그 영향력은 큰 것이다. 어

〈표 2〉

중학생이 가족과 친구들에 대하여 동성의
친한 친구라고 응답한 백분율

항 목		성 별	
		남 (%)	여 (%)
동성의 친한 친구이다	부 모	8.11	9.57
	자 매	1.75	8.21
	형 제	3.60	0.46
	학교친구	16.79	20.76
	동 료	23.34	29.51
	기 타	0.28	0.37
동 성 의 친 한 친구가 아 니 다		46.13	31.14

떤 사회에서나 청소년의 다양한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갈등과 협동하는 과정에서 집단의 역할과 연령집단의 역동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한다(Braungart and Braungart, 1989).

현재 중국 청소년들은 또래친구를 사귀고자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젊은 동료를 친한 친구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자 중학생의 40%와 여자 중학생의 50%가 자신의 젊은 동료를 동성의 친한 친구로 보고 있다(〈표 2〉 참조).

〈표 2〉를 보면 청소년들에게 있어 동성의 친한 친구가 50%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남학생 : 53.87%, 여학생 : 68.86%). 또한, 이성을 친한 친구라고 응답한 10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남학생의 22.18%와 여학생의 18.35%가 이미 친한 이성친구가 있다고 보고했으며 가장 어린 남학생은 8세, 가장 나이 많은 남학생은 19세로 평균 14.33세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가장 어린 학생이 8세, 가장 나이 많은 학생이 18세로 평균 14.90세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조숙한 성적 성숙과 성의식의 개방화 경향 때문에 어떤 10대들은 여자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53명의 남학생 응답자 중 7.88%가 여자친구이었으며 가장 어린 학생이 10세,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이 19세로 평균연령은 15·16세였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1,070명의 응답자 중 자기보고에 근거하면 5.70%가 남자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어린 나이가 15세,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은 19세로 평균

〈표 3〉

이성과 육체적 접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백분율(중학생)

행 동	성 별	
	남 (%)	여 (%)
손 잡 기	67.43	71.37
포 응	9.54	12.03
키 스	10.53	9.54
애 무	8.22	3.73
성 관 계	3.29	2.07
기 타	0.99	1.24
응답학생수(명)	304	241

연령이 15·30세로 나타났다. 어떤 남녀학생들은 미팅 포옹, 키스, 애무 성관계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그러나 남학생의 91.66%와 여학생의 95.46%는 청소년들이 이성간에 “공적이고 집단적으로(publicly and collectively) 교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단지 남학생의 3.86%와 여학생의 2.83%만이 이성간에 교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48%의 남학생과 1.71%의 여학생은 교제가 “사적이고 고립적으로(private and lonely)”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중국 청소년 또래집단은 이성간에 집단적으로 사귀고자하며 동성의 친한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래집단과 남녀학생교제에서 공공적인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국가와 역사적 시기에 따라 그 결정요인은 각기 다르다. 과거의 중국에 대해서는 경험적 자료(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독단적으로 “도덕적, 지적, 신체적으로 모든면에서 발달하는 것은” 주요 결정요인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생각은 현재의 상황에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이성의 친구와 사귀는 동기에 관한 질문에 대한 남학생들의 응답 순위는 다음과 같다. : ① 귀엽고 사랑스러움, ② 상호 이해심, ③ 친절함과 진실성, ④ 능력과 도움이 됨. ; 여학생의 응답순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상호 이해심, ② 능력과 도움이 됨, ③ 사회적 기술습득을 위해, ④ 안전함과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이다. 확연하게 남학생은 여학생의 외모에 더 가치를 두

고 있는 반면에 여학생은 남학생의 내적 성향에 더 관심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Yao Peikun, Sun Zhongxiong et al, 1990).

— 또래집단과 청소년 발달의 특성 —

현재 중국 청소년들은 서로 친구를 사귀고자하는 강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동료와 또래집단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반면 부모 교사 등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주로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결과로 보여진다. 에릭슨(Erikson)은 큰 사회적 변혁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에게 적절한 역할 모형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청소년들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의 역할모형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신의 또래집단에서 새로운 역할모형을 찾고자 한다. 결국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또래집단내에서 역할모형을 얻는다는 것은 사회적 맥락내에서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함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사회의 개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기성세대의 역할모형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동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청소년의 발달적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기는 한 개인의 발달상에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극적으로 변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발달하면서 청소년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새로운 기대를 가지게 되며 더 나아가 자존심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은 동료로부터 성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갖게 된다. 만약 청소년이 이 같은 지식을 획득한 어떤 경로도 갖지 못한다면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리발달에 손상을 입게 되거나 정상적인 발달이 아닌 일탈된 방향으로 발달될 수 있다.

본 영역의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볼 때 청소년과 부모간에 초기에 형성되었던 양육의 감정이 점점 소원해져감을 알 수 있다. 감정이 소원해져가는 것은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점점 독립되어감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떨어진 이후에는 감정을 새로이 의지할 곳을 찾기 위해 자신의 정서적 에너지를 또래집단에 투여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성별 집안배경 뿐만 아니라 이전에 가정에서 형성된 독립심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기간에 청소년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른 사람 특히 또래집단의 이해와 지원을 강하게 원한다. 청소년들은 서로 비슷한 또래이며 동료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정서적 평정과 안정감을 갖게 된다. 결국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를 배울수 있는 것은

이러한 평등 때문이다.

청소년의 또 다른 특성은 무엇인가를 탐색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어떤 행동규범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혹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어떤 성격이 타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가 혹은 거부되는 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은 사회적 여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와 동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발견해야 하고 자신의 발달과 부합하는 역할모형을 발견해야 한다. 발견을 하는 이 시기는 때때로 풍성하고 때때로 복잡하고 당혹스럽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래집단내에서 해결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 사이에 우정과 또래집단의 영향이 더욱 중요해진다.

호록스(J.E Horrocks)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우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① 마음의 평정을 찾게 한다, ②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 ③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경험을 하게 한다, ④ 넓은 마음이 되게 한다, ⑤ 사회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갖게 한다, ⑥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⑦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⑧ 정직한 삶을 살게 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청소년의 발달적 측면에서 같은 나이의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와 동료집단의 영향에 대해 매우 중요시해야 한다. 또한 기계문명의 이용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고 그들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II. 결 론

1980년 중국 청소년에 관한 범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사를 기초로 하여 현대 매스미디어와 또래집단의 영향이 그들 성장과 발달에 주요한 외부적 요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회개혁은 두 타입의 대리인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성격을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현대 매스미디어는 확일적이고 동시적인 청소년 문화의 형성을 촉진시키고 또래집단을 형성하는것을 더 촉진시킨다. 그렇지만 기계문명과 새로운 문화의 영향은 복잡해졌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연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대 매스미디어는 청소년들 사이의 친구관계 또래집단, 청소년 문화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우리에게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Branngart, Richard G. and margaret M. Braungart. 1989.
Soviet and American Youth In the 1980s.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Seminar on "Youth and Value Orientation: Structures, Determinants, and
Processes", Weimar, Deutsche.
- Erikson, Erik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Wander Zanden, Jamer W. 1989. Human Development New York: Knopf.
- Yao Peikuan and Sun Zhongxiong et al. 1990. Book on Reports of Adolescent
Education. Shanghai: Xuelin Publishing House. Zhu Peili. 1985. Psychology of
Youth. Shanghai: People Publishing House.

토론(2) : 아랍 에미레이트의 젊은 여성들—현실과 야망

아바스(Shafika E. Abbas)*

청소년들은 60년대 후반 학생시위 이후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그러므로 정책 입안자나 정책부문에서는 청소년의 복지상태에 대해 주요한 관심이 기울어졌다.

이처럼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한편으로 중요한 청소년 집단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수년간 회의나 심포지움, 워크숍 등을 통해 청소년, 그들의 욕구나 문제 등에 대해 연구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오늘 심포지움에서의 주제집단인 청소년을 UN에서 규정한바에 따르면 15~24세의 연령 범주에 속한다.

이 시기는 아무도 그들의 필요나 감정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생각 즉, 구세대와의 세대차이로 인해 계속적으로 투쟁을 하는 단계이다.

이 집단의 핵심적인 중요성을 H.H.Sheikh Zayed Bin Sultan Al Nahayan은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모든 나라의 기둥이다. 또한 현재와 미래의 중심이다” 따라서 이 집단 내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제들에 직면해서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많은 나라들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약간의 나라에서는 욕구충족 수단에 대해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일 뿐이다.

아랍 에미레이트(UAE)는 위에서 말한 두번째 국가 즉, 계속적으로 추진중인 나라의 범주에 들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관심사는 남자 청소년 집단에만 기울어져 있고 여자 청소년 집단은 많은 분야에서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아랍 에미레이트(UAE)에서의 여자 청소년 집단 연구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아랍 에미레이트, 아랍 에미레이트대학교

아랍 에미레이트(UAE)의 사회구조

1971년 12월 2일 아랍 에미레이트 연맹 결성 즉, 사회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이후로 많은 개발계획들이 제시되었고 또한 실제로 수행되어 왔다. 그런 계획의 실행에 높은 예산비율이 책정되어 왔다. 예를 들자면 1986년 전예산에서 교육예산도 12%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그리고 75년부터 80년 사이에 등록된 학생들의 숫자는 아랍 에미레이트가 청소년들에 기울이는 관심사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표 2> 참조).

<표 1> 아랍 에미레이트의 교육예산 : 1986¹⁾ (1000Dh.)

예산총액	교육부	%
13,373,553	1,632,704	12

(1) 아랍 에미레이트 기획부 통계국 : 통계연보 요약(12판), 1987(pp.281-283)

<표 2> 성별, 학교별(공/사립) 학생수 증가 : 1975-1989^{2),3)}

학 교 별	년 도	1975	1980	1985	1989
고 등 학 교 (2)	남	1,602	3,948	9,628	12,662
	여	1,042	3,508	9,241	14,989
	합	2,644	7,456	18,869	27,651
전 문 학 교 (2)	남	1,341	1,611	1,712	2,186
	여	—	—	—	—
	합	1,341	1,611	1,712	2,186
대 학 교 (3)	남	—	1,397	3,291	4,190
	여	—	1,029	4,998	9,643
	합	—	2,606	8,289	13,833
합 계	남	2,943	6,956	14,631	19,038
	여	1,042	4,536	13,739	24,632
	합	3,985	11,492	28,370	43,670

(2) 아랍 에미레이트 기획부 : 경제와 사회의 발전, 1975-1985(p.214)

(3) 아바스, 사파카 : 아랍 에미레이트의 고등교육제도, 1990.6월(p.13)

한편으로 석유 호황에 힘입은 아랍 에미레이트의 경제적 부흥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들이 유입되었다. 즉, 아랍 에미레이트 전체인구에서 30%만이 아랍 에미레이트인들이고 나머지는 세계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란 사실은 흥미있는 주목거리이다. 아랍 에미레이트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영향, 특히 청소년들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중요하다.

도덕부문에서 특히 그 영향이 명백하다. 즉 유입된 외국인들에 의해 수행되는 가치와 자국내에서의 지배적인 가치들 사이의 충돌이 이루어졌다. 간단히 말해서 젊은이들은 조상들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들과 새롭고 자유로운 가치들의 유입사이에서 방황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여성운동은 아직도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고 여성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인식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아랍 에미레이트 내에서 교육의 영향과 문화적 가치들의 계속적인 변화와 결부되어 사회내에서 좀더 효율적인 여성의 역할을 바라게 되었고 또한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에 의해 추구되는 이런 시도들을 바라보는 혼합적인 시각들이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나타났는데 이런 태도들은 간단하게 보수적 관점, 자유적 관점, 중용적 관점으로 분류된다.

I. 보수적 관점

전통주의자들(보수주의자)은 그들의 가치관단이나 태도를 15-16세기에 변성했던 아랍의 사회문화적 가치나 이슬람 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보수적 관점은 여성의 입장에서 기술시대의 자연적 변화들에 대처하려는 어떤 시도도 방해하거나 구속한다. 달리 말하면 가치기준이 수세기전에 지배적이었던 가치들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오늘날 여성들의 역할에 어떤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워보이고 한편으로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문화를 진보에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오히려 남용이 옳겠지 만)하고 있기 때문에 아랍 에미레이트의 나이든 세대들에겐 동감을 획득하고 있다. 다음 보기는 이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보수주의자들도 남녀의 분리를 허용하면서 여성들의 영역(domains)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교육분야(여성학교에서 가르침)에서 여성들의 기여가 고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따라서 보수적인 관점은(모든분야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는 관점에서)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한 근대화 작업이 성공적

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즉, 이 보수적 견해는 여성들의 목표나 추구사항에 저해요소가 되어 왔다.

II. 자유주의적 관점

보수적 관점과는 반대로 자유주의자들은 서구사회와 새로운 자유경향에 깊이 영향받고 있다. 게다가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전통적, 사회적 관점들을 거부하고 공격하면서 오래된 가치와 뒤떨어진 이상들에 대항하는 혁명을 요구한다. 사실은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소수집단이지만 그런 극단적인 태도는 서구문화와 전통문화의 문화적 차이점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자유주의자들이 소수를 대표한다 할지라도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걸 목표로 할 때에는 연구조사에서 자유주의적 관점이 무시될 수 없다.

III. 중용적 관점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변화를 발전과 변화, 그리고 근대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자유주의에 의해 특징지워질 수 있다.

중용주의자들은 소위 세대차는 특정사회에서 존재하는 가치들에 대해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채택하는 것으로서는 없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오히려 중용주의자들은 차이점에 있어서의 이해, 협상, 타협을 옹호한다.

예를 들면 그들은 아랍 에미레이트 사회가 현재단계에서 석유개발 이전시기로 되돌아갈 수도 없으며 또한 아랍 에미레이트 사회가 완전히 자유적인 서구적 사회로 변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오히려 아랍 에미레이트 사회는 비록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발전과 근대화의 과정을 서서히 추구해 나가기 위해 발전과 변화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중요한 관점은 위에서 언급되었던 두 가지 관점들로부터 약간의 보류사항과 함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아랍 에미레이트 대부분의 동감을 획득하고 있다.

아랍 에미레이트(UAE)의 청소년들

아랍 에미레이트 사회는 젊은이의 사회라고 호칭하는 것이 옳을 정도로 청소년 그룹에 속하는 연령비율이 높다(<표 3> 참조).

전체인구 증가율은 늘어나는 반면에 아랍 에미레이트 토착 국민들의 숫자는 계속적

<표 3>

나이별, 성별 인구(1975-1990)^{1),2)}

나이	성	1975			1980			1985*			1990*		
		청소년	%	전체인구	청소년	%	전체인구	청소년	%	전체인구	청소년	%	전체인구
15-24	남	83,498	15	386,427	123,102	12	719,712	65,244	4	—	83,014		—
	여	30,412	5.5	386,427	60,557	6	322,387	54,658	3.5		76,382		—
	합	113,910	20.5	558,000	183,619	18	1,042,099	119,902	7.5	1,622,464	159,396		—

(1) 아랍 에미레이트 기획부 통계국 ; 통계연보 요약(11판), 1986. (pp.21-24)

(2) 아바스, 사피카 ; 아랍 에미레이트의 고등교육제도, 1990.6월(p.1)

* 1985과 1990 = 추측계산, 최근의 자세한 인구조사는 1980년도임.

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75년에 아랍 에미레이트 토착국민의 비율은 63.3%이었던데 반해 1980년에는 그 비율이 27.9%로 떨어진다.

이런 통계자료가 도출된 이유는 바로 아랍 에미레이트에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아랍 국과 외국의 인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대부분은 25세 이상의 젊은 독신자들이다.

아랍 에미레이트 여성들의 근대교육에의 접근은 1954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여타 페르시아만의 아랍국가들 즉, 쿠웨이트, 바레인 보다 뒤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어진 짧은 기간동안에 배우고자 하는 동기는 대단히 높았으며 그 이후로 아랍 에미레이트 여성들은 여러가지 사회적 장벽들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특별히 1971년 이후로는 교육은 아랍 에미레이트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고 또한 그들은 교육을 통해 남성들보다 앞서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지적능력에 있어서 대동소이함을 입증해왔다.

젊은 여성과 삶의 형태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여성들은 한편으로는 사회가 자기들로부터 기대하는 것과 또한 편으로는 그들의 소망, 필요, 갈망들 사이에 놓여있는 딜레마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소위 '자아상실(lost-identity)'이라 불리우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가장 왕성한 개발도상국가로서 아랍 에미레이트는 국가적인 청소년정책의 형성이라는 중요한 과업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문제들과 주제들에 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구들이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책임을 지고 있다. 청소년들을 위해 현존하는 국가적 계획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① 공식 교육
- ② 성인교육과 문맹자 프로그램
- ③ 다양한 스포츠와 예술적 활동들이 추구되는 청소년을 위한 여름 클럽
- ④ 대학이나 기술대학과 같은 좀더 상위 교육기관들
- ⑤ 1980년에 설립된, 청소년과 스포츠를 위한 최고위원회는 전국 곳곳에 다양한 활동과 청소년클럽을 제공하고 있다. 스포츠활동은 주로 남성들을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스포츠활동을 강조하는 반면에 더 큰 부문들에서의 심리적, 감정적, 지적, 종교적, 그리고 정신적 중요성들이 필요한 것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 ⑥ '정보문화부'는 TV나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인 다양한 오락수단들을 제공한다.
- ⑦ 여성연합체들은 주로 직업훈련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즉 타이핑, 컴퓨터, 문화재의 재생, 외국어 등을 제공하고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건강돌보기 계획도 제공한다.
- ⑧ '건강부'는 학생들의 교육에 맞춰 단계적으로 건강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기여하고 있다.
- ⑨ '사회문제부'는 여성들을 위해 비공식적 교육형태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외국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타이프, 수공예, 가정경제, 청소년장애자들의 다양한 모습들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직업교육

청소년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은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여성기관들이 제공하는 교육은 유감스럽게도 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진 않는데 이유는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H씨의 연구에서 조사자들은 UAE에서 청소년 여자들이 고통받는 문제를 밝혀주고 있다. 문제들은 세가지 범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I. 사회적 문제점

1. 청소년 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오락시설의 부족
2. 미혼여성의 높은 비율
3. 국내여성과 결혼하기를 꺼려하는 국내남성들
4. 사회가 여성보다 남성을 더 선호한다는 감정

II. 심리적 문제점들

1. 참을 수 없고 고통스러운 여가시간
2. 사소한 문제들로 교란받는 감정들
3.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III. 문화적 문제점들

1. 사회적 영역에서 여성참여의 부족
2. 직업여성에 대한 가족들의 정통적 견해
3. 자기자신들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자기억제
4. 부부중에 한사람 또는 양측다 문맹인 비율이 높음

이 질문에 나타난 140명(15세에서 24세 사이에)의 청소년 여성들에 관한 조사에서 그들의 인생스타일과 야망들의 현실화에 근거해 3가지 유형으로 젊은이들이 분류된다.

1. 자유구가 그룹(Freedom Alloted Group)6%
2. 부모통제 그룹(Parental Controled Group)36%
3. 조건부 자유구가 그룹(Conditioned Freedom Alloted Group)58%

집단 1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자유가 남편, 의복, 직업, 고교에서의 지위, 개인적인 자유 그리고 가족의 신뢰 등에서의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이 집단은 사회내에서 6%정도의 소수집단이고 따라서 전형적인 아랍 에미레이트 사람은 아니다.

한편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내에서 그들의 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진실한 대답을 피했으며 어떤 문제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등 방어적 자세를 취했다.

집단 2

36% 정도의 비율을 점하는 이 집단은 엄격한 가족지배하에 놓여있다. 예를들면 이 집단에 속한 여자들은 자기남편의 선택에 있어서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은 전통적 회교양식에 따라 옷을 입을 것이 요구된다

또한 그들은 여성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등과 같이 여성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직업선택에 자유롭지 못하다. 관심의 부족으로 교육적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그들의 가정에 한정되어 있는 자기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집안에만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교육받은 여성들이 사회적 역할이나 개인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박탈된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부모의 그늘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가족이나 사회적 가치들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이나 욕구들을 표현하는데 소극적이다.

집단 3

가장 많은 58% 정도를 점하는 이 집단은 집단 1과 집단 2의 중간정도에 속한다. 여성들이 직업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는 있으나 그들 부모들의 감독이나 동의하에서만 이루어지는 제한된 선택이다.

그들은 결혼 문제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선택권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선택은 단지 그들의 부모들이 자기딸에게 의미가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난 후에야 이루어진다.

젊은 여성들은 의복의 선택에서 어느정도 자유가 허용된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가족의 철저한 통제하에 놓여있다. 따라서 집단 2보다 그들의 위치가 낮긴 하지만 즉 어느정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개인적 자유는 제한받고 있다.

아랍 에미레이트에서의 젊은 여성들의 야망

아랍 에미레이트에서의 여러청소년들은 이 세계의 어떤 젊은이들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아랍 에미레이트 사회구성의 독특함 때문에 즉 다양한 민족들이 아랍 에미레이트에 거주하는 환경속에서 사는 아랍 에미레이트의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다양한 문화들과 접촉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동서양 기술의 계속적인 발달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외국문화들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꿈과 야망들로 인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이에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젊은 여자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은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나열된다.

- 1) 대학학위 취득
- 2) 바람직하고 적절한 지위에서 일하는 것
- 3) 결혼
- 4) 페르시아만과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우려
- 5) 사회내에서 적극적이고 중요한 여성이 되는것
- 6) 사회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여성들이 자기의 권리를 표현하기 위한

자유를 지니는 것

- 7)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망
- 8) 세계여행과 관광
- 9)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행동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가 허용되는 것
- 10) 남녀간의 더욱 더 많은 이해
- 11)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대학학위를 취득하는 것과 연관을 맺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가정에서의 따분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은 탈출수단으로서의 구직기회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또 한가지 중요 관심사는 적당한 남편을 찾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우선순위 첫번째가 된다(비록 남성비율이 여성보다 많기는 하지만 그들은 결혼지참금을 지니고 가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포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아랍 에미레이트 남성들은 자국여성들과 결혼하는 것보다 다른 아랍지역이나 외국여성들과 결혼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 이는 많은 경우에 자기들의 능력을 초과하는 높은 결혼지참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여성들이 특히 젊은이들은 그들에게 첫번째 구혼이 주어졌을 때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결혼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이다.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이혼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것은 많은 경우 이해의 부족이나 충동성에 근거한 조혼 때문이다.

페르시아만이 당면하고 있는 최근의 점증하는 정치적위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며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평화와 안정속에 살고자 노력한다.

여자 청소년들은 사회가 여자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견해에 대단히 관심이 많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내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바라며 또한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꿈꾼다. 또한 사회가 자기들의 능력을 믿을만한 시민으로 인정하기를 바라며 자기들의 감정이나 필요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기 바란다. 또 한가지 야망은 세계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바램이다.

실은 다른사람들보다 용기가 더 있는 많은 수의 젊은이들은 뜻밖의 사항을 요구하는 바, 즉 가족이나 다른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원한다.

아랍 에미레이트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행해지는 아랍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양성(兩性)간의 이해의 기초가 성립되기 바라며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또한 그들의 삶속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이나 가정생활에서 어떤 해결책들을 찾기 바란다.

결 론

아랍 에미레이트 여자 청소년들의 생활형태나 지적수준이 고려되는 한에 있어서 아랍 에미레이트 여자 청소년의 생활형태에 확실히 역설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삶속에서 어떤 소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야망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야망들이 사회내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나이에 속한 젊은이들의 역설은 자기들의 생활양식과 그들의 지적능력과의 관련 사이에서 확실해지는 바, 그들의 지성은 서구적인 외국의 문화들의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서구적 관점은 그들의 토착문화와 충돌을 일으킨다. 따라서 아랍 에미레이트에서의 빠르게 이루어지는 문화적 변화와 서서히 이루어지는 사회적 변화 사이에 문화적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여자 청소년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문화적 간격이 존재한다.

참 고 문 헌

- Abbas, Shafika, 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National Machineries for Youth in the UAE.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n Bangkok, Thailand. Sponsored by the UN CSDHA, Vienna-Austria 1989.
- Abbas Shafika. E., The System of Higher Education in the UAE. June-1990.
- Council for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in the Gulf States. Youth-Symposium on Related Problems in the Arab Gulf Society. Vol. 3. Baghdad, Nov. 23-27. 1985.
- Hassan, Ali, H., et al. Youth in the United Arab Emirates "Case Study Female Youth", UAE University : 1988.
- Ministry of Planning. Annual Statistical Abstract : Central Statistical Dept. 11th Edition : UAE-1987.
- _____. Ministry of Planning.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the UAE : 1975-1985. UAE-1987.
- _____. Ministry of Planning. Annual Statistical Abstract Central Statistical Dept ; 12th Edition : UAE-1987.

교육과 청소년의 직업기회

고메즈(Raja. G. Gomez)*

서론

금번 심포지움의 목적이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속의 청소년 문화를 탐색하는 것이며 이것은 기성세대의 가치나 원리에 청소년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통해 그 지침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의 과정, 구직(Job seeking) 그리고 고용(employment) 등은 “청소년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미래상은 장래 직업적 지위를 포함한 여러 기대들에 좌우되며, 청소년들은 교육기회 등을 통해 그들의 기대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나는 지난 5년간에 걸쳐서 연방청소년기관(Commonwealth Youth Programme; CYP)에 의해 몇몇 연구 결과가 금번 심포지움 목적에 도움을 주리라 믿으며 여러 문화와 지역에 걸쳐서 일반적인 기준들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의 견해는 주로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들의 경험과 그 국가의 청소년들이 미래를 보는 방식에 주로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직업 기회와 선호(Job Opportunities and Preferences)

청소년 실업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그 정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근거해서 CYP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직업선호에 관한 연구들은 장기적인 청소년 직업문제와 사회발전에 중요할 것이며 청소년 개인적 만족과 사회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표들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연구의 몇가지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 영국, Commonwealth Program

우선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약학, 법, 회계, 공학, 교육분야들이다. 여성은 교사직종을, 남성은 공학부문을 각각 더 선호하였다. 농업의 중요성을 많은 정부가 강조하는데 반해 청소년들은 농업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극히 적었다.

특정직업을 선호하는 이유로서 좋은 보수, 사회에 필요한 기술사용의 기회, 발전 가능성, 지위의 안정성 등을 들고 있는데 그중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직업을 택한다는 이유가 많았다.

구직의 어려움에 관한 의견조사에서는 어린 청소년일수록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는 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직업적 특성들이 청소년들의 경력에 도움을 주는지에 관해 특수한 능력 활용 기회,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 자신의 수입을 벌 수 있다는 점, 사물이 아닌 사람과 일할 수 있다는 점등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반면 창의성의 기회, 지도력 훈련의 기회, 감독으로부터의 자유, 지위, 명예의 수준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청소년들이 농업을 중요한 분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이 분야의 직업선택은 매우 낮은 특징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이 국가발전에 필요한 직업에 관한 흥미가 부족하다고 비관적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반면, 발전을 위한 기회, 사회에 있어서의 농부의 위치,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한 청소년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기회 : 일치와 불일치(Educational Opportunities : Match and Mismatch)

일반적으로 교육이 성공을 위한 열쇠라고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교육은 실제 직업과는 별로 관련성 여부를 찾을 수 없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만 공헌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술 발달이 이러한 불일치를 더욱 가중시킨다.

UNESCO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지식혁명, 생물공학혁명, 첨단산업상품의 생산에 있어서의 혁명의 3가지 혁명을 맞이한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발전이나 번영은 점점 더 지식이나 기술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식산업의 발달을 추구하게 되지만 인구, 문맹, 환경오염, 마약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하게되며 교육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UNESCO 보고서는 앞으로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관해 논하고 있는데 그 몇가지 예를 들면 일치(confomity)를 위한 교육에서 창조(creativity)를 위한 교육으로의 변화, 경쟁대신 협동을 촉진하

는 교육, 지역적 관심에서 세계적 관심으로의 변화, 개인이익 중심에서 공공이익 중심으로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의 직업선호하고도 많이 일치함을 알 수 있는데 예를들어 학습의 공적 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의 이익을 강조하고 봉사하고자하는 청소년들의 욕구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UNESCO/APEID회의에서 파악된 내용들은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직업기대에 교육이 불일치하는 교육시스템의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몇년전 영연방 전문가 집단(Commonwealth Expert Group)에서 행한 청소년 실업문제에 관한 검토들은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기대와 직업기회와의 몇 가지 불일치들을 보여준다. 즉 학교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배운 기술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유형과의 불일치, 청소년들의 기대와 그의 실현의 불일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의 문제점과 청소년의 기대와 직업기회와의 불일치 현상들은 청소년들을 좌절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결론적으로 나는 “청소년 자격부여(Youth Entitlement)”의 형태로서 청소년들에게 우선성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자격부여를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역할, 지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인식해야하며 그들이 성인 직업사회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갖추었음을 확신해야 한다.

또한 자격부여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선택을 하고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무난히 옮겨갈 수 있도록 일련의 지원과 제도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에는 교육, 직업상담, 노동시장정보, 직업경험기회, 기술과 관련된 기본 훈련, 상위단계 교육과 기술의 접촉, 모든 기술과 직업을 포괄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유효한 자격증의 효력확보, 실업의 악영향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사항들은 공공정책으로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청소년의 자격 부여(Youth Entitlement)”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특별한 지위를 인식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Commonwealth Youth Programme: After Training, What?—Youth and Self-Employment in Botswana and Zambia. Wim Hoppers ed. Colin Ball (London, 1985).
- Commonwealth Youth Programme Africa Centre: Youth Concern in Zambia. L Mwasu, K Osei-Hwedie and P Mufuna (Lusaka, 1990).
- Commonwealth Youth Programme Africa Centre: Youth Employment Preferences in Sierra Leone. J Lappia and P Kaidaneh (Lusaka, 1989).
- Commonwealth Youth Programme Asia Centre: Beyond IYY—Studies of the Views of Youth (in Asian countries) on Developing Youth Programmes and Policies (Chandigarh, 1986-1989).
- Commonwealth Youth Programme Caribbean Centre: Report on a Survey of Unemployment and Occupation Preferences among Youth in the Caribbean (Georgetown, 1987).
- Commonwealth Secretariat: Education, Training and Work—Some Commonwealth Responses to Youth Unemployment (London, 1988).
- Commonwealth Secretariat: Jobs for Young People—Report of a Commonwealth Expert Group on Youth Unemployment (London, 1987).
- Dore, Ronald: The Diploma Disease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0).
- ILO: Statistical Reviews (annual).
- OECD/CERI: Toward and “Enterprising” Culture: A Challenge for education and Training. Colin Ball and others (Paris, 1989).
- UNESCO: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and Round Table on Qualities Required of Education Today to meet Foreseeable Demands in the Twenty-First Century (Beijing, November/December 1989).
- UNESCO/APEID; Report of the Regional Meeting on Innovative Education for Promoting the Enterprise Competencies of Children and Youth (Bangkok, December 1989).

청소년의 敎育과 職業成就

이 미 나*

I. 序

한국사람들이 敎育에 유례없이 높은 가치를 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입시의 노예처럼 입시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바친다. 그들은 자신들을 내몰면서 過進兒가 되려 몸부림친다. 그리하여 그들의 일생의 절정기인 젊은시절이 멎들어 간다. 부모들은 --때로는 전가족이-- 공부의 중요성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난한 부모들에게서도 예외가 아니다.

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敎育을 더 많이 받으려는 열망이 그렇게 중요한지 질문해 본 조사결과에(이미나, 1990)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敎育이 직업적·경제적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신화를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느 집단의 소속을 갖든, 노동시장의 어디에 배치되든간에, 학력이 높으면 직업적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신화를 철저히 신봉했던 것이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 온 진학율은 바로 敎育에 대한 이같은 신화와 직업적 성공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은 정부의 공식적 정책노력에서도 드러난다. 정책결정자들은 혜택받지 못한 불우청소년들에게 '삶의 질'과 '삶의 기회'를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敎育기회를 향상시켜주거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의 주된 관심은 우리 청소년들이 받은 敎育이 그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갔을 때(임금이라는) 직업성취를 위해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충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믿음이 사실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슈는 다음의 질문을 통해 구체화된다.

1. 학력의 차이는 임금의 차이를 낳는가?

* 한국, 강원대학교

2.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에서 교육이 초봉결정에 공헌하는 정도가 같은가?
노동시장의 입직(入職) 이후에는 어떠한가?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학력을 임금결정과정에서 동일한 정도로 資本化시키는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이다.

3. 임금결정 메커니즘에 노동시장의 구조(즉 내부 대 외부시장에서의 노동자의 위치)가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는 이중노동시장론의 틀 속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받는 교육과 그들의 직업성취” 사이에 갖고 있는 한국인들의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이다.

II. 이중 노동시장 이론

1. 내부 대 외부 노동시장으로의 분단

이중 노동시장론자들은 임금이 내부·외부시장별로 각기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외부시장에서는 임금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구조에 의해서 정해진다. 반면 내부시장에서는 노동자가 어떤 직책에 배치되는가 하는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임금수준이 결정된다(Sorensen, 1983).

왜 이렇게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세가지 입장에서 달리 설명되고 있다. 기술적 설명을 하는 이들은 양 시장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이 달라서 시장분단이 생겨났다고 한다. 기업가가 그 회사에서만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려고 할 때는, 그 지식이나 기술이 다른 회사에서는 쓰이지 않으므로 기업가 자신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일단 현직훈련을 받은 회사에 머물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유인책을 쓴다. 따라서 내부시장의 고용주가 고용인에 대해 갖는 수요탄력성이 외부시장에 서보다 낮다(Doeringer와 Piore, 1971; Elbaum, 1984). 반면에 외부시장의 고용주는 일반적인 기술(general skill)을 필요로 한다. 고용인들은 전이 가능한 일반적 기술에는 투자를 하려고 한다. 고용주는 기술훈련에 투자할 필요는 없고, 고용인이 갖고 있는 기술에만 지불을 하면 된다. 따라서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은 외부 노동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부시장의 고용주는 회사특유의 기술습득에 투자할 훈련경비를 잃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내부시장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시장은 서로 다른 임금결정 메커니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급진적 이중시장론자들은 내부시장이 계급투쟁의 결과 생긴 제도적 산물이라고 생각한

다. 즉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포섭·회사목표에 동참하고 보수적인 행위양식을 길러주며 노동자들의 작업량과 질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고 내부시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위의 두가지 접근방식은 단일요인으로 내부 노동시장의 생성을 설명하는 데 반하여, 제도학파는 절충적으로 여러가지 이유를 종합하였다. 그들은 기술의 특수성(skill specificity), 관습적인 규칙, 노조의 계약, 정치적인 권력, 자원을 착취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 효과적인 경제적 전략을 고안하고자 하는 창의적 아이디어 등 때문에 노동시장이 분단된다고 주장했다(Doeringer와 Piore, 1971; Doeringer, 1983; Osterman, 1984). 이러한 힘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직위배치와 임금결정 등에 관련된 관습이나 규칙이 형성된다고 믿는다.

알트하우저와 칼러버그(R.P. Althausen & A.L. Kalleberg, 1981)는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적 기준으로 (1) 승진사다리가 존재하고, (2) 높은 직위에 외부인을 영입시키지 않으며, (3)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늘어남에 따라 이 승진사다리를 따라 승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중시장론자들이 내부시장의 생성기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교육과 회사경력의 임금에 대한 효과가 외부시장보다 내부시장에서 더 크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내부시장의 승진사다리가 외부시장보다 길고, 내부직원 가운데에서 상위직책을 충원하기 때문에, 회사경력에 대한 임금회수율이 내부시장 노동자에게 더 클 것이라는 것은 납득이 쉽게 가는 주장이다.

그러나 내부 시장론자들은 왜 내부시장에서의 교육효과가 외부시장보다 더 큰지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부분에서 그들의 교육효과에 대한 주장이 적절한지 탐구해 볼 것이다.

2) 교육효과에 대한 이중시장론의 문제점

한국의 노동시장이 내부·외부시장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교육효과가 양 노동시장에서 언제나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효과는 외부시장에서보다 내부시장에서 꼭 더 높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교육효과도 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영향을 받으므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정도이다. 많은 제도적·관리상의, 혹은 기술적인 요인이 교육효과크기에 영향을 주며, 외부시장에서 교육이 공헌한 정도에 따라 교육이 임금에 주는 효과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제도학파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승진요건이므로, 교육이 내부시장에서 임금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Doeringer와 Piore, 1971). 그러나 제도학파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교육효과 역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들의 맥락 속에

서는 규칙이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교섭력의 구조가 바뀌거나, 문화적으로 하법적인 승진기준이 교육이 아니거나, 혹은 정치적인 맥락이 달라지면 규칙도 또한 바뀐다.

비록 내부시장의 고용주가 교육을 기준으로 삼아서 고학력자를 승진사다리가 긴 높은 직책에 배치한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내부시장의 교육효과가 외부시장에 비해 더 높다는 뜻은 아니다. 가상해서 내부시장의 대학출신 노동자는 경영주가 될 수 있는 높은 직책(Ci)에 배치되며, 내부시장의 고졸노동자는 그보다 짧은 승진사다리를 갖고 있는 중간수준의 직책(Hi)에 배치되었다고 하자. 반면 외부시장의 대졸자가 높은 직책(Ce)에 배치되었고, 고졸자는 중간수준의 직책(He)에 배치되었다고 하자. 이들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와 학력외에 모든 배경변인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입직구에서(고졸학력에 비해) 대학교육의 log형태의 임금에 주는 영향이란 것은 내(외)부시장에서는 Ci(Ce) 자리에 주어지는 임금에 대한 Hi(he)의 임금의 비율로 표시되게 된다. 내부시장의 고용주가 학력이 높은 노동자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입직구에서 내부시장의 대학교육 효과가 외부시장의 그것보다 반드시 높으리란 보장은 없다. 내부시장의 고용주들은 대졸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체제를 쓸 때, 교육효과를 높여주는 방법 외에도 외부시장보다 대졸자의 월급자체가 높다거나 승진사다리와 같은 제도적 유인장치를 쓴다거나, 상위직을 외부노동자 중에서 충원하지 않고 내부노동자 가운데서만 뽑는 --즉 회사경력에 대한 임금 회수율을 올려준다-- 등의 다른 방식을 쓸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Ci와 Hi의 초봉비율(내부시장의 교육효과)이 Ce와 He의 초봉비율(외부시장의 교육효과)보다 항상 크다는 내부시장론자의 주장에 의문을 표하는 바이다.

사원들의 회사경력이 늘어나면서, 고졸자와 대졸자의 위계서열의 차이는 외부시장보다 내부시장에서 더 증대한다. 이는 내부에서 상위직의 빈자리를 충원하며 승진사다리를 갖고 있는 내부시장의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내부시장에서 위계서열 차이가 더 크다고 해서 고졸임금에 대한 대졸임금의 비율도 반드시 증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임금이 각 단계당 일정한 비율로 혹은 그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임금의 비율(즉 “로그임금”상의 차이)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임금이 각 단계별로 절대액은 커져도 증가비율(%)은 작아진다. 이 경우는 고졸과 대졸의 직급격차가 커져도 “로그임금”상의 차이가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입직후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교육효과가 반드시 외부 노동시장보다 더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회사의 호봉체제와 승진체제를 알고 있어야 한다.

요약해서 말하면, 교육효과는 경제학적 이론이나 조직론에 기초한 이론적인 사변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의 임금과 관련된 고용규칙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이러한 고용규칙은 우리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 문화·정치적 상황, 사회집단 간의 세력다툼, 우리 사회와 깊이 관련된 회사내의 온갖 사회적 관계 등에 의해 결정된다.

III. 연구방법

1. 데이터와 표본추출

이 연구에서는 노동부에서 1979년에 제작한 “직종별 임금조사” 테이프를 사용하여, 총 338,267명의 표본에서부터 상용근로자 2,273명을 무작위추출·분석하였다. 이 표본숫자는 일종의 오류나 이종의 오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크기이다.

시간제(part time)근로자는 임금결정 메커니즘 연구에 내용적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만약 근무시간을 통제하고 회귀모델로 교육효과를 나타낸다면,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교육효과는 과정되어 나타난다. 이들이 상근직을 얻게 된다면,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는 더 크게 되나, 위의 방식으로서는 그것들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 연구는 임금률보다는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에 관심이 있으므로, 작업시간을 통제하고 얻은 시간제 근로자의 교육효과를 표현하는 회귀계수는 연구결론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제 근로자의 학력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작다는 것을 전시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해보자. 이 경우에는 --이 연구의 목표 가운데 하나인-- 인간자본론자의 신고전경제학파적 과정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제시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신고전경제학에서는 임금은 임금률과 노동시간 수의 함수이다. 근로시간 수를 통제 않고서는 인간자본론자들의 “노동시장은 동질적(homogeneous)이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시간제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2. 모델에 선정된 변인과 그 변환

임금결정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모델에 쓰여진 변인은 종속변인(상근 근로자의 한달분 월급), 개개인의 자원(resource)변인(학력과 회사경력)과 구조적 변인(ILM vs. ELM², 성, 결혼여부)의 3가지 종류이다. 각각의 예언변인에 대한 종속변인의 일원적 회귀방정식을 세워서 회귀방정식의 가정을 충족하는가 조사하였고, 위만한 부분은 고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임금과 회사경력을 로그형태로 전환하게 되었다.

흔히 그렇듯, 임금이 대단히 편포되어 있었다. 그 결과, X와 Y의 직선성(linearity), 오차 분포의 동변량성, 정상분포 가정을 위반하였다. 이를 고치기 위해 임금을 몇개의 형태로 전환시켜 본 결과 “log”를 선택하였다. 로그 형태로 임금을 표현했을 때는, 화폐의 효용은 수입의 비율적 형태와 함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반영시켜 준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도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 외에, 각 변인의 분포상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각 독립변인에 대한 로그 임금의 일원적 회귀방정식을 검토하였다. 그 가운데 회사경력에 대한 로그 임금의 회귀방정식에서의 오차변량이 동변량성 가정을 위반하며, X와 Y의 직선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회사경력을 로그 형태로 전환하여 모델에 사용하였다. 로그 형태에서는 “0”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arting을 해 주었다.

IV. 자료분석과 그 결과

1. 한국 노동시장의 기술적 묘사

이중 노동시장론자들이 예상하듯이, 내부시장 노동자의 임금이 외부시장 노동자보다 평균적으로 34.4% 더 높았다($t_{df}=2.271=10,308$, $p=.001$). 이러한 임금격차는 회사경력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였다(<그림 1> 참조).

내부노동시장론자에 따르면 내부시장의 직업안정도가 외부시장에 비해 더 크므로, 회사경력도 더 길 것이라고 한다. <표 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남녀를 불문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내부시장 노동자의 경우 외부시장에 비해서 회사경력이 남자가 15.37%, 여자가 25.86% 더 길다. t검증을 하니깐 두 시장의 회사경력 차이는 남녀 모두 유의미하였다(남자의 경우 $t_{df}=1,438$, $p=.01$, 여자의 경우 $t_{df}=831=-3.8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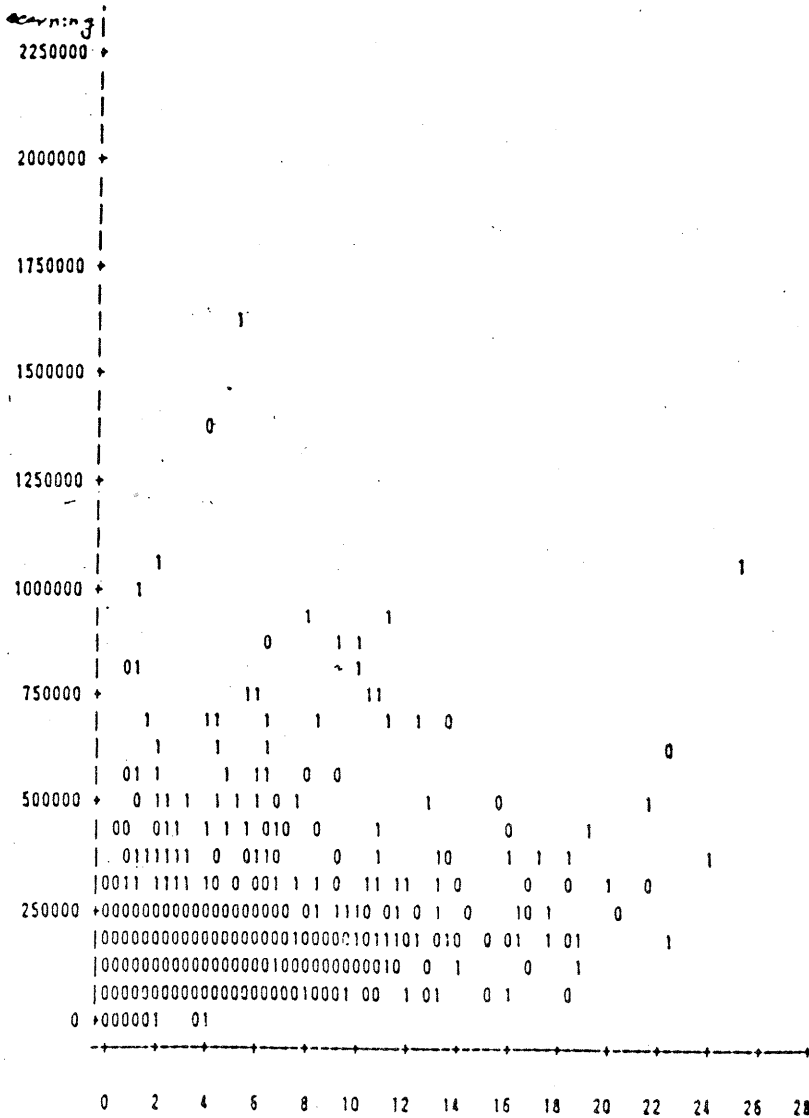
<표 2>에 따르면 교육과 내부 노동시장에 배치된 확률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엿보인다. 교육수준이 증대함에 따라, 내부 노동시장에 배치된 확률이 더 커진다. 국졸자의 경우 40.3%, 중졸자의 경우 50.5%, 고졸자의 경우 54.7%, 전문대졸자는 57.4%, 그리고 대졸자의 경우는 70.7%가 내부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교육수준이 올라 갈수록 내부시장에서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증대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2. 내·외부 시장별로 임금모델 추정

내·외부시장의 임금결정 메커니즘을 비교하기 위해서 각각의 시장부문에 대한 임금

[그림 1] 경제부문과 수입에 관한 스캐터그램(회사 근무연한 통제)

(0; 외부시장 1; 내부시장)



〈표 1〉 근무연한 분포

i) 원척도

노동자	백분위점수					평균	표준편차
	1	25	50	75	99		
전체	.1	.8	1.8	3.8	25	2.9	3.3
성별							
남	.1	.8	2.1	4.8	18.0	3.5	3.8
여	.1	.6	1.3	2.8	8.1	1.9	1.9
경제부문별							
내부시장	.1	.9	2.0	4.2	17.3	3.2	3.4
외부시장	.1	.6	1.4	3.5	15.8	2.6	3.1
성과 경제부문							
남 내부	.1	1.0	2.2	5.1	18.3	3.6	3.8
남 외부	.1	.7	2.9	4.7	17.7	3.3	3.7
여 내부	.1	.8	1.7	3.1	11.2	2.2	2.2
여 외부	.1	.6	1.2	2.3	6.9	1.7	1.6

ii) 로그척도

노동자	백분위점수					평균	표준편차
	1	25	50	75	99		
전체	-1.32	-.33	.68	1.38	2.81	.64	1.00
성별							
남	-1.32	-.03	.82	1.60	2.90	.79	1.04
여	-1.32	-.27	.38	1.07	2.12	.39	.87
경제부문별							
내부시장	-1.32	.06	.77	1.47	2.86	.75	.98
외부시장	-1.32	-.26	.45	1.30	2.77	.53	1.01
성과 경제부문							
남 내부	-1.32	.15	.86	1.66	2.91	.86	1.01
남 외부	-1.32	-.14	.75	1.58	2.88	.71	1.08
여 내부	-1.32	-.03	.62	1.18	2.42	.52	.87
여 외부	-1.32	-.27	.31	.90	1.95	.29	.85

〈표 2〉 내부시장에서 배치된 학률

근로자 특성	남	여	합
교 육			
국졸	150 (49.7%)	99 (52.5%)	249 (40.3%)
중졸	225 (52.5%)	163 (48.1%)	388 (50.5%)
고졸	261 (56.1%)	77 (50.3%)	338 (54.7%)
전문대졸	23 (65.7%)	4 (33.3%)	27 (57.4%)
대졸	149 (71.3%)	8 (61.5%)	157 (70.7%)

모델을 회귀방정식으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각 모델은 종속 변인으로서의 로그임금, 독립변인으로서 교육·회사경력·성 그리고 결혼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밖에 결혼여부와 성과의 상호작용 변인, 고졸더미와 성과의 상호작용 변인을 넣어서, 한국노동시장의 중요한 단면을 그리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 입직구 이후에 교육효과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도 물었었다. 그러나 그것을 뜻하는 교육더미와 회사경력 사이의 상호작용 변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비록 이들 변인중의 어느것도 $X=.01$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그것이 뜻하는 내용적 중요성때문에라도 이 상호작용 변인을 넣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문대졸 더미변인과 전문대졸 * 경력변인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일어나는 듯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두 회귀모델에 대한 가정을 앞에서 언급한 방식(3절4번 참조)에 의거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문제가 될만큼 심각하게 가정을 위반한 것은 없었다.

이제 〈표 3〉을 중심으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임금은 노동시장 부문에 상관없이 교육정도나 회사경력과 정적상관이 있다. 다만 중졸자와 국졸자 사이에는 양시장 모두 유의미 한 임금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내부노동시장에서 전문대 졸업자는 국졸자보다 내부시장에서는 123.0%, 외부시장에서는 133.5% 더 많이 벌고 있다. 대졸자는 국졸자보다 내부시장에서는 206.5%까지, 외부시장에서는 190.9% 더 많이 받는다. 국졸자의 경우는 성과 고졸학력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내부시장에서는 남자의 경우 고졸자가 국졸자보다 31.3% 더

〈표 3〉 내부와 외부시장의 근로자 수입함수

종속변수=ln(earnings)

변수	비표준계수 표준오차	
	내부 시장	외부 시장
intercept	10.714 (.035)	10.707 (.025)
중졸	.032 (.033)	.037 (.029)
고졸	.497*** ¹ (.056)	.485*** (.050)
전문대졸	.802*** (.082)	.848*** (.089)
대졸	1.120*** (.043)	1.068*** (.054)
ln(exp) ²	.173*** (.013)	.133*** (.013)
성	.480*** (.037)	.390*** (.035)
결혼	.139* (.078)	.080 (.051)
결혼×성	.115 (.084)	.196** (.062)
고졸×성	-.225*** (.061)	-.164*** (.059)
R ²	69.49	64.08
adj R ₂	69.25	63.79
MSE	.162	.162
N	1159	1114

¹ *p<.10, **p<.05, ***p<.01

² ln(exp) = ln(firm experience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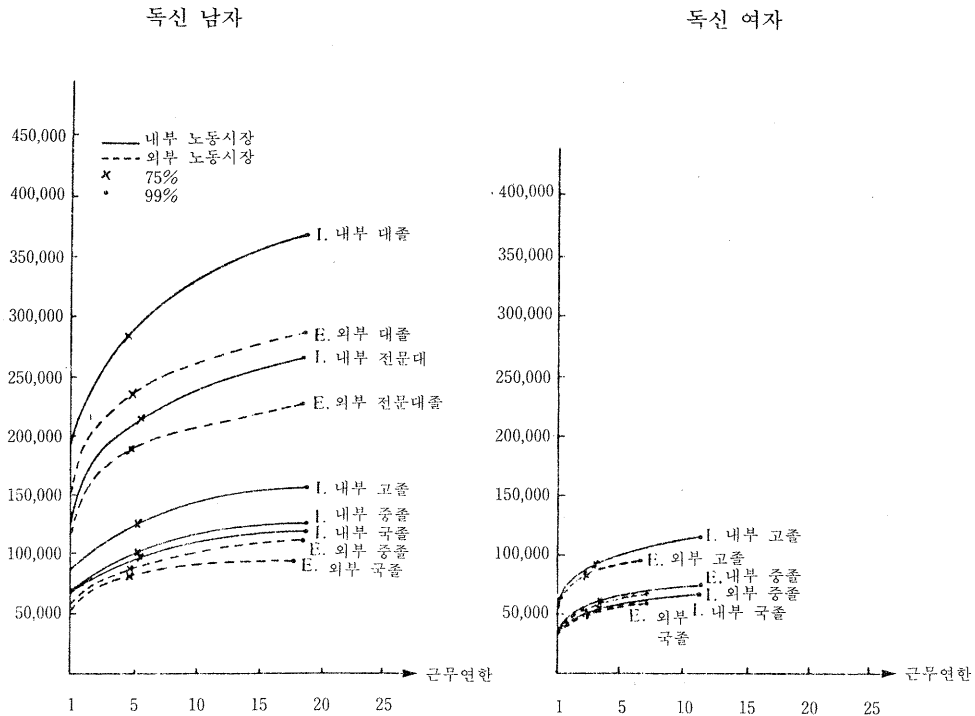
많이 받고 있는 반면에, 여자는 64.4% 더 많이 받고있었다. 외부시장에서는 고졸남자가 국졸자보다 37.9% 더 높이 받았으며, 국졸여자는 62.4% 더 많이 받고 있었다.

〈표 3〉에서 보듯이, 내부시장 노동자의 회사경력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외부시장 노동자보다 더 높았다. 모든 조건이 같다면, 전자의 회사경력이 10% 증대될 때 월급이 1.73% 증대되는 데 반하여, 외부시장 노동자는 1.33% 증대된다. 따라서 회사경력이 늘어날수록 양쪽의 임금격차는 커가는 듯하다.

Y절편을 비교해 보니까, 여자들의 초봉에는 양 시장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남자들의 초봉도 외부시장에서 보다 내부시장에서 10.2% 더 높았다. 〈그림 2〉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밖에도 외부시장에서는 남녀 모두 결혼이 임금증대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내부시장에서는 남자만이 그러하다.

이 연구의 일차적 관심은 두 노동시장의 임금결정 메커니즘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노동시장별로 만들어진 회귀방정식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계수들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다음 절에서 전체 표

[그림 2] 남녀별, 외부와 내부노동시장별, 회사 근무연한별 수입표



* Earnings profiles for female associates and bachelors are not drawn. This is because regression coefficients in Table 4-2 are not reliable because of two few cases for female associates (12) and bachelors (13).

본집단에 대한 통합된 회귀모델로 두 부문간의 임금결정 메커니즘이 정말로 다른지 알아보겠다.

3. 임금결정 메커니즘이 시장별로 정말 차이가 나는가?

이제까지 우리는 내부시장 노동자와 외부시장 노동자를 각각의 임금결정 방정식을 비교하였다. 여기서는 이 두 노동시장의 임금결정 메커니즘이 정말로 다른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전체 표집에 대한 통합 방정식 1개를 세웠다. 통합모델속의 각

〈표 4〉 외부대 내부시장의 종합모델

종속변인 = ln(earnings)						
column	coeff	s.e.	t	p	st coeff	tolerance
intercept	10.703	.023	463.52	.0001*** ¹	0	
중졸	.035	.021	1.60	.1098	.029	.640
고졸	.491	.037	13.11	.0001***	.312	.245
전문대졸	.822	.060	13.71	.0001***	.167	.933
대졸	1.107	.032	33.93	.0001***	.470	.724
ln(exp) ²	.134	.012	10.85	.0001***	.192	.443
성	.406	.030	13.35	.0001***	.280	.315
결혼	.099	.043	2.31	.0212**	.071	.146
결혼×성	.164	.049	3.36	.0008***	.116	.115
ILM ³	.014	.029	.49	.6273	.010	.327
ILM*ln(exp)	.039	.017	2.32	.0206**	.045	.374
고졸×성	-.196	.042	-4.65	.0001***	-.113	.235
ILM×성	.057	.035	1.60	.1000*	.039	.236

분산분석표

source	df	ss	ms	F	p
모델	12	763.501	63.625	411.850	.0001
오차	2260	349.139	.154		
합계	2272	1112.64			

R² = 68.59

adjusted R² = 68.43

¹ *p<.10, **p<.05, ***p<.01

² ln(exp) = ln(firm experience + 1/6)

³ ILM (internal market = 1)

변인과 노동시장 부문간의 상호작용 변인은 두 노동시장 각각의 방정식에 나타난 회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낳는지를 검증해 줄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를 위해 채택된 모델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글 결과를 제시하기 이전에, 왜 <표 4>의 모델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는가에 대해 밝히기로 한다.

1) 분석전략 : 통합된 임금모델의 구성

이론적 흥미나 실제적 관심을 끄는 변인을 포함하거나 혹은 방법론상의 고려를 한 변인을 포함한 다섯 개의 후보모델이 세워졌다(<표 5> 참조). 이 다섯 개의 모델 가운데서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결정 메카니즘을 보다 간단·명료하게 묘사하는 모델을 선정하기

<표 5> 외부시장과 내부시장에 관한 종합회귀모델

종속변인 = $\ln(\text{earnings})$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값)

변인	모 델				
	1	2	3	4	5
intercep	10.681 (.021)	10.704 (.024)	10.690 (.022)	10.703 (.023)	10.715 (.026)
중졸	.031 (.022)	.006 (.031)	.032 (.022)	.034* (.022)	.010 (.032)
고졸	.483*** (.037)	.473*** (.039)	.487*** (.037)	.491*** (.037)	.478*** (.039)
전문대졸	.814*** (.060)	.830*** (.060)	.825*** (.060)	.822*** (.060)	.828*** (.060)
대졸	1.112*** (.033)	1.119*** (.034)	1.109*** (.033)	1.107*** (.033)	1.113*** (.043)
$\ln(\text{exp})$	.153*** (.009)	.131*** (.012)	.131*** (.012)	.134*** (.012)	.134*** (.013)
성	.429*** (.026)	.404*** (.035)	.432*** (.026)	.406*** (.030)	.383*** (.038)
결혼	.106*** (.043)	.093** (.044)	.103** (.043)	.099** (.043)	.091** (.044)
결혼×성	.161*** (.049)	.173*** (.050)	.163*** (.049)	.164*** (.049)	.174*** (.050)
ILM	.076*** (.017)	.048** (.020)	.047** (.020)	.014 (.029)	.017 (.029)

(〈표 5〉 계속)

변인	모 델				
	1	2	3	4	5
ILM×ln(exp)		.043*** (.017)	.044*** (.017)	.039*** (.017)	.039*** (.017)
중졸×성		.049** (.042)			.045 (.042)
고졸×성	.076** (.042)	-.166*** (.048)	-.193*** (.042)	-.196*** (.042)	-.172*** (.048)
대졸×ln(exp)					.004 (.026)
ILM×성				.057* (.035)	.054* (.036)
R ²	68.49	68.60	68.59	68.62	68.64
adj R ²	68.35	68.44	68.43	68.45	68.44
MSE	.155	.154	.154	.154	.155

*p<.10, **p<.05, ***p<.01

ln(exp) = ln(firm experience + 1/6)

ILM = internal vs. external market sector (internal market = 1)

위해 탐색작업을 펼쳤다. 조정결정 계수(adjusted R²)에 따르면, 다섯가지 모델은 큰 차이없이 한국의 노동시장을 잘 묘사하고 있는 듯하다. 이 가운데 〈모델 4〉는 〈표 3〉의 내·외부시장별로 분리된 방정식들의 절편이 거의 동일함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노동시장 부문(ILM)이 통계적으로 p=.10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으므로, 입직구에서 다른 조건이 같은 국졸 여자의 경우 두 시장에서 초봉수준이 거의 같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표 3〉과 〈그림 2〉참조). 그외에도 〈모델 4〉는 외부시장보다 내부시장에서 회사경력에 대한 회수율이 더 높아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내부시장론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모델 4〉가 회귀분석의 가정을 만족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모델 4〉는 정상분포 동변량성의 가정을 만족하고 있었다. 인내도(tolerance)테스트에 따르면, 이 모델의 다중공선성 위험을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듯 하다. 따라서 〈모델 4〉를 최종모델로 사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모델 4〉는 〈표 3〉의 시장별로 분리된 두 회귀모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검증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2) 결 과

내부·외부 노동시장 사이에 교육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入職水準에서건 그 이후에서건 차이가 없었다.

기술론적 설명을 하는 내부시장론자들은 내부시장 고용주가 경력서열과 능력을 기준으로 써서 승진순위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들 고용주들은 경력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은 고용인에게 승진의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 생산성보다는 잠재적 능력지표를 승진기준으로 쓰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노동자끼리 경쟁의식을 갖고 승진기회를 노리기 보다는, 서로 같이 일하는 이에게 일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 주는 현장훈련의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중시장론자들은 내부시장에서의 교육효과와 회사경력 효과가 외부시장에서보다 더 크리라고 기대된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기술론적 설명은 이 연구의 발견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의 내부시장 기업가들도 노동자의 임금증대나 승진결정 기준으로 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앞에서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내부시장의 교육효과가 반드시 외부시장보다 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위의 발견은 이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교육효과의 차이가 양 시장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두 시장에서 교육과 임금의 관계가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다. 내부시장에서의 교육은 현장훈련 기회를 늘려주는 선발구실을 하므로, 교육이 승진사다리가 길고 임금이 높은 직책을 얻는 데 공헌한다. 이 때 교육이 어느 정도의 선발기능을 갖고 있을까는 기술적인 특성뿐 아니라 한국 특유의 경제·역사적조건과 연관된 제도적 맥락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반면 외부시장에서는 교육이 생산기술의 직접적인 지표이며, 생산성을 증대시켜주는 만큼 임금이 증대된다.

한국과 같이 후발산업사회에서의 학교는 생산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화시켜 전수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학교는 우리의 외부시장에서 생산증대에 중대한 공헌을 한다. 따라서 학교는 우리의 외부시장에서 생산증대에 중대한 공헌을 하며, 그래서 외부시장 노동자의 임금을 증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겠다. 그에 덧붙여, 한국의 내·외부시장에서 교육효과가 임직구 이후에도 비슷한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내부시장 형태를 취하는 대기업들이 저임금정책을 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이 희귀하고 국토가 협소하여 인구밀도가 조밀하며, 현대적 서구기술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하여 Lewis 모델을 경제성장의 전략으로 택했다. 바꿔말하면 풍부한 노동력을 경제성장의 주된 도구로 해서 노동집약적 수출지향 정책을 세웠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고용기회 창출에 적극 공헌했다. 정부는 주도적인 대기업을 위주로 수출정책을 추진하

면서 자본축적을 도왔다. 또한 수출상품의 국제적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본축적을 돕기 위해, 정부는 지나친 임금인상 억제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와같은 분위기 속에서 기업은 저임금 정책을 쓰게 되었고, 호봉체계에도 그것이 반영되었던 듯하다.

우리나라의 내부시장의(주로 대기업) 호봉체계는 직업위계나 호봉의 차이에서 임금 중대 정도상으로 보면 절대치로는 같거나 크다. 그러나 백분율 비율로는 오히려 줄어들어 있는 듯하다. 종속변인이 <로그> 형태의 임금 일때는, 이러한 호봉체계 안에서는 입직구 이후의 임금에 미치는 교육효과가 내부시장에서 크다는 예측을 자동적으로 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내부시장적 성질을 주로 갖고 있는 대기업과 외부시장적 성질을 갖는 소기업간에 교육효과가 입직구 이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회사경력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해서 <표 4>에 나타난 결과는 이중노동시장론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회사경력에 대한 회수율은 $=.01$ 수준에서 외부시장보다 내부 시장이 더 높았다. 즉 내부시장에 들어간 노동자와 외부시장에 들어간 노동자간의 임금격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져간다는 것이다.

그 밖에 이 연구에서는 특이한 형태의 성차별을 발견하였다. 단지 남자 노동자의 초봉만이 내부시장에서(외부시장보다) 더 높았으며, 여자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4>와 <그림 2> 참조). 내부 시장에서의 남자는 외부시장에서보다 10.2% 더 많이 받고 있었다.

내부시장과 외부시장에서 여자의 초봉이 같다는 발견은 한국노동시장의 제도적 맥락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1>에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여자노동자는 남자 노동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단기간 근무한다. 게다가 여자는 회사관습상 결혼후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내부시장 기업가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회사특유의 기술(firm-specific training)을 가르치는 현장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주고자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장훈련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내부시장의 기업가는 승진사다리가 긴 높은 지위의 일을 남자에게만 맡기려 들 것이다. 따라서 남자만이 내부시장 노동자의 초봉이 외부시장 노동자보다 더 높을 것이다. 회사경력 효과와 성의 영향이 내부시장과 외부시장 사이에 다른 것이 발견됨으로써 한국노동자들은 그들이 노동시장에 배치된 위치에 의해 임금이 달라진다는 우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V. 요약과 결론 : 정책도구로서의 교육

비록 내부시장과 외부시장에서의 임금결정 절차상 교육이 의미하는 바가 다를지라도, 교육은 회사 입직구에서건 혹은 그 후에건 양 시장 노동자에게 유사한 그리고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임금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청소년의 직업성취도를 염두에 둘 때에는 노동시장도 함께 관심을 쏘아야 함을 알게 되었다. 구조론자의 주장처럼, 한국시장은 내·외부 노동시장별로 분단되어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들의 노동시장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의 직업성취에 영향미치는 주요인은 단순히 교육에서의 성취도뿐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제도까지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청소년들은 학업성취도를 올려야 될 뿐 아니라, 내부 노동시장에도 배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성장이 일어나면서 직업구조가 확장될 시기에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충원구조를 확장시키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단지 남자노동자들의 초봉만이 내부시장에서 더 높았다. 언급했던 바와 같이 아마도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를 일찍 그만 두기 때문에, 고용주는 여자를 선호하지 않으며, 승진사다리가 더 긴 높은 직위의 일은 남자에게 맡기려 들게 되기 때문이다. 정책수립가들은 여성들이 결혼후 회사를 그만 두는 관행철폐에 더욱욱 신경을 쓰고 승진기회가 막혀있는 일자리(dead-end-job)에 배치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설사 여자가 내부시장에 들어가는 기회가 공평해지더라도, 거기에 배치되어 얻는 임금상의 혜택을 덜 누리게 된다.

노동시장 분단에 대한 이 연구의 결과로 인해 필자의 “교육과 청소년의 직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가설은 확인되었다.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히 해주는 노력만으로 정책수행자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청소년들이 학교문을 나섰을 때 직업의 기회를 균등히 해 주는 데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참 고 문 헌

- Althausen, R.P. & A.L. Kallerberg, "Firms, Occupation, and the Structure of Labor Market", in I. Berg (ed),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Labor Markets*, (N.Y.: Academic Press, N.Y., 1981), pp. 119-149.
- Atkinson, A.B., *The Economics of Inequ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Baron, J.N. & W.T. Bielby, "Bringing the Firms Back In: Stratific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5, Oct. 1980, pp. 737-765.
- Berger, Suzanne & M.J. Piore, *Dualism and Discontinuity in Industrial Socie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Brusko, Stephan, Francis, "Education, Job Complexity and Income in Segmented Labor Marke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1984).
- Cain, Glen G., "The Challenges of Segmented Labor Market Theories to Orthodox Theory: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IV, No. 4, Dec. 1976.
- Carnoy, Martin et. al., *Education, Work, and Employment*, Vol. I, (Paris: UNESCO, 1980).
- _____, *Education, Training and Access to the Labor Market*, Vol. II, (Paris: UNESCO, 1980).
- Chen, Cheng-lung Lon, *Wage Determination in Japanese Firms; A Segmented Labor Market Approach*,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1980).
- Dickens, William T. & Kevin Lang, "A Test of Dual Labor Market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5, 1985, pp. 792-805.
- Doeringer, P.B., "Segmenting Forces in Labor Markets: Towards a Theory of Work Groups and Employment Systems", Mimeo, 1983.
- _____, "Internal Labor Markets and Paternalism in Rural Areas", in P. Osterman (ed.), *Internal Labor Markets*, (Cambridge: MIT Press, 1984), pp. 271-290.
- _____, "Internal Labor Markets and Non-Competing Groups", Mimeo Presented at AEA meeting, 1985.
- Economic Planning Board, "Annual Report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1979," (Seoul, Korea: Economic Planning Board, 1979).
- Elbaum, Bernard, "The Making and Shaping of Job and Pay Structures in the Iron and Steel Industry," in P. Osterman (ed.), *Internal Labor Markets*, (Cambridge: MIT Press, 1984), pp. 71-108.
- Finlay, W., "One Occupation, Two Labor Marke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9, 1984, pp. 306-315.

- Freeman, R., *The Overeducated America*, (N.Y.: Academic Press, 1976).
- Freiman, M. Philip, "Empirical Tests of Dual Labor Market Theory and Hedonic Measures of Occupational Attainmen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76)
- Hodson, R.D. & R.L. Kaufmann, "Economic Dualism: A Critical Review",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7, 1982, pp. 727-739.
- Kalleberg, A.L. & A.B. Sorensen, "The Sociology of Labor Marke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5: pp. 351-379, 1979.
- Kalleberg, A.L., M. Wallace & R.P. Althausen, "Economic Segmentation, Worker Power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7, 1982, pp. 651-683.
- Korean Ministry of Labor, *Report on Labor Market Mobilization*, (Seoul, Korea: Korean Ministry of Labor, 1979).
- _____, *Report on Occupational Wage Survey*, (Seoul, Korea: Korean Ministry of Labor).
- Koo, Haegen et. al., "Class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5, 1980, pp. 610-626.
- Lee, Ky-Euk & Jin-Kyo Seo, *Analysis of Industrial Concentration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Seoul, Korea: Korean Development Institute, 1981).
- Lee, Mi-Na, *Dynamics of Competition for College Entrance Exam in the Perspective of the Labor Market Segmentation Theory*, *Sociology of Education*, Vol. 1, 990.
- Manning, Chris, *Dualism in Labor Market and Labor Market Segmentation in Indonesian Manufacturing*, Unpublished Manuscripts, 1985.
- Osterman, Paul, "An Empirical Study of Labor Market Segmentation",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July, 1975, Vol. 28, pp. 508-523.
- _____,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Internal Labor Markets", in P. Osterman (ed.), *Internal Labor Markets*, (Cambridge: MIT Press, 1984).
- Park, Se-Il, *Determinants of Industrial Labor Earnings in Korea: an Estimation of Earnings Function in a Dualistic Labor Market*, KDI Monograph No. 8104, 1981.
- Park, Se-Il & Hwon-Ku Park, *Wage Structures in Korea*, (Seoul, Korea: Korean Development Institute, 1984).
- Reich, Michael, D.M. Gordon and R.C. Edwards, "A Theory of Labor Market Segment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3, No. 2, 1973, pp. 359-365.
- Sørensen, A.B., "Growth in Occupational Achievement: Social Mobility or Investment in Human Capital", in K. Land Spillerman, *Social Indicator Models*, 1973, pp. 335-360.
- _____, "An Outline of a Theory of the Matching of Persons to Jobs", in I. Berg (ed.),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Labor Markets*, (N.Y.: Academic Press, 1981).

_____,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Sociological Research on the Labor Market", *Work and Occupations*, Vol. 10, 1983, pp. 261-287.

_____, "Theory and Methodology in Stratification Research", Mimeo, 1986.

Spilerman, Seymour, "Careers, Labor Market Structure, and Socio-economic Achieve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3, 1978, pp. 551-593.

Thurow, Lester C., *Generating Inequality*, (N.Y.: Basic Books, 1975).

Tolbert, C., P.M. Horan and E.M. Beck, "the Structure of Economic Segmentation: A Dual Economic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5, 1980, pp. 1095-1116.

토 론(1)

김 영 화*

고메즈(R.G. Gomez)박사는 청소년의 직업선택도, 기술개발에 따른 교육체계에서의 강조점 변화,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상태, 청소년들의 열망과 직업기회 사이의 불일치들을 얘기했다. 그리고 그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와 제도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직업기회에 관한 정보를 얻고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순조롭게 나갈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메즈박사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직업기회에 관해 중요한 주제를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고메즈박사도 최근의 유네스코회의에서 요약된것을 언급했지만, 나는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상태에 관해 간단한 코멘트를 하겠다. 그는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현재상태를 설명했는데 자영업(self employed)을 하는 사람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거의 노력을 하지 않는것을 비판했고, 특정직업에 대한 특정한 성격보다는 오히려 학교에서의 직업경험 계획의 일반적인 성격을 비판했다. 그러나 나는 청소년들의 자영업을 위한 준비는 거의 필요치 않음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경험과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에서는 실제로 극히 일부의 청소년들만이 자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 혹은 기술훈련을 위한 사설기관에서는 고용인으로서 요구되는 기술훈련을 위한 기회의 확장에 끊임없이 그들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미 직업경험이 있고 그들의 사업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도움을 준다.

나의 두번째 논제는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업경험 프로그램은 일반적 성격이라야 한다. 기술에 관한 일반적인 학습능력이 학교에서 길러지면 특수 직업에 요구되는 특수한 기술은 회사에서 배워야 한다. 즉, 역할분담은 학교와 회사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특수직업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장려하는 대신

* 한국, 한국교육개발원

에 정부는 회사가 그들 자신의 직업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이미나교수가 발표한 두번째 논문은 다음의 세가지 연구질문에 답하려고 했다: 개개인의 학교교육이 수입달성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수입에 관한 교육의 효과가 초임과 그후에 회사안과 밖의 노동시장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결정구조가 노동시장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아닌지?

이 교수는 교육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이익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이 교수는 한국인 회사에서 초임과 그 후에 또 내적, 외적인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유사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발견했다. 또 회사경력은 외부보다는 내부시장에서 더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이 교수는 청소년의 직업성취도는 단순히 교육정도 뿐 아니라 외부와 내부라는 노동시장구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내적노동시장의 충원구조를 확장하기 위한 정책에 관여해야 한다고 이교수는 결론을 내렸다.

이 교수는 또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내부시장에 들어갈 때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지적하고는 이러한 성차별을 제거하는 정책이 있어야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이 교수의 연구는 노동시장 혹은 경제분할의 이론정립에 중요한 공헌을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심포지움의 주제가 청소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때, 나는 이 교수의 연구가 그 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일반노동자들의 노동시장 대신에 청소년들의 노동시장의 두드러진 특징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것이 훨씬더 유용한 일일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교수 논문의 결론 부분까지는 청소년과 관련된 결과의 어떤 설명이나 토론을 찾아 볼수가 없었다. 만약에 이러한 나의 이해가 정확하다면, 이교수는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청소년이라고 가정하고서 교육은 수입달성에 중요하다고 지적한것처럼 보인다. 이교수의 연구 논문은 노동자를 그들의 직업경험이 전혀없을 때 일을 시작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경우의 노동자들이 필연적으로 청소년들인것은 아니고, 직장을 바꾸는 성인일 수도 있다. 사실 이 교수의 발견은 한국청소년 교육과 노동시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그녀의 보고서는 샘플의 나이분포도 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또한 직업경험은 외부시장에서보다 내부시장에서 더욱 보상을 받고 노동시장에서 가지는 청소년의 위치가 그들의 수입도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내부시장 직업기회는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내부시장의 직업기회가 확장된다면 누가 먼저 그 기회를 잡게될 것인가? 만일 모든 직업들이 내부시장에 있지 않다면, 사실 그것이 불가능하다, 오직 인구의 특정부분만이 내부시장을 가질 수 있다. 청소년들은 생산직

의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내부시장 외부 시장에서 고용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잘 증명되어진 일이다. 내부시장이나 주요자리에 앉을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젊은 청소년층들이 불안정하고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그들을 고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은 대개 미혼이기 때문에 가족부양이란 의무가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젊은 사람들이 일을 수행하는 동안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때 그것들을 극복하기 보다는 쉽게 일을 포기한다고 고용주들이 생각하게 만든다. 특히 한국에서 의무적인 군복무가 청소년의 고용을 방해하고 있고 그래서 고용주들은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젊은이들의 고용을 피하고 있다. 게다가 고용주들은 청소년들을 성인들보다 동기나 신용이나 성숙도나 규율면에서 약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또한 값 비싸고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일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서 청소년의 노동시장은 높은 불안정성을 특징지워진 다.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내부시장에서 직업기회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고용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학입시교육 중심인 고교를 졸업해도 직업교육이 하나도 되지않아 직업을 찾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는 그들이 직업을 얻는다해도 그들은 외부시장에서 고용되기 때문에 쉽게 해고된다. 직업고등학교의 졸업자들은 기능공 혹은 기술자로서 생산직에 고용되거나 높은 봉급이나 직업안정성을 가지는 사무직에 고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직업고등학교의 졸업생들조차 생산직 불경기 동안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불경기 동안에는 새로운 노동자를 모집하지 않는것이 이미 직장에 있는 노동자를 해직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새로운 졸업생들은 직업을 찾는데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문제점이 있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직업정보를 얻거나 일자리를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직업을 찾지못한 채 학교를 떠날경우 주로 사적인 인맥에 의존해야 한다.

여기서는 낮은 사회적 배경을 가진이들에게 불이익이 있다.

나는 교육과 청소년 고용에 관한 몇가지 개선방법을 제안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싶다.

첫째, 직업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고용에 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사람들은 다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 단지 그들이 학교성적이나 경제적 사정때문에 대학에 가지못한 경우에만, 그들은 기꺼이 대학에 가려는 열망을 포기하고 직업을 찾기위해 노력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특히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일종의 실패로서 자각되는 경우가 있다. 1989년에 한국에서는 일반고등학교 졸업생의 반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 이들은 어떠한 직업적 준비도 없이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가능한한 빨리 고용에 관한 관심을 상승시킴으로써 우리는 대학입학을 위한 준비로 소비된 정열을 직업을 위한 준비로 전환할 수 있다.

둘째, 직업교육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우리는 청소년의 고용가능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우리는 일반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개선시켜야하고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업고등학교의 직업훈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회사와 협조해야 한다.

회사와 협조해서 학교는 자주 바뀌는 직업에 적응하도록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직업훈련기관이 평생교육을 생각하여 세워져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학교밖 직업훈련은 주로 노동부에 의해 행해진다.

정부는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을 함께 하기위해 회사에 권유하여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세째로, 우리는 정보를 취급하는 사무소를 확장해야 한다. 학교에는 특히 일반 중·고등학교에는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부서가 거의 없다.

비록, 여러지역에 노동부가 주관하는 국립 혹은 공립고용안내기관이 있긴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기관의 존재조차 깨닫지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한다. 우리는 고용에 대한 정보사무소를 확장시켜야 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기관들을 알려줘야 한다.

네째로, 교육체계는 평생교육을 생각하여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비공식적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학가기를 포기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난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그래서 가난해진다는 순환은 깨져야 한다.

이 모든 제안은 청소년들의 고용을 권유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기회의 획득이다. 오직 직업이 있을때만 고용에 대한 관심의 증진과 고용 가능성 향상과 직업정보의 준비가 유용해진다. 회사는 호경기에서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기간에는 이러한 청소년들로부터 즉시 등을 돌릴 것이다. 회사의 꾸준한 고용정책이 확보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대학

교육이 수입이나 승진의 측면에서 더 높은 이익을 주는 한, 일찍 취업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비록 많은 청소년들이 직업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들은 일을 찾는것 자체를 좋아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학에 가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다. 임금격차를 줄이고, 교육적 자격증에 의해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을 줄이는 것이 영원한 과제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고용의 과제를 개인적인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가 하는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모호한 일이다. 즉, 개개인이 그 직업이 있는 곳을 찾는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을 찾는것은 개인이 통제하기가 힘든 상황을 다루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이 그의 노동의 소유주일뿐 아니라 사회의 시민이기 때문에 국가는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직업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 고용은 개인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임을 깨달아야만 한다.

토론(2)

이 원 덕*

먼저 고메즈(R.G. Gomez)박사는 Commonwealth Youth Programme(CYP)과 같은 정책에 오랜동안 참여한 경험에서 우리나라 유익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mismatch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informed choice를 하게하고 학교교육으로부터 직업으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적합한 정책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고메즈 박사의 경험적 서술과 몇가지 주장은 한국의 현상학과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국은 A. Lewis가 말하는 경제의 전환점(turning point)를 이미 지나서 인력부족의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대부분의 동남아국가들은 아직 전환점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점을 통과하기 전에는 도시근대부문에 생존임금수준에서 노동공급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전환점을 통과하게 되면 생존임금수준이상의 임금상승 없이는 노동력 공급증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환점 통과이전과 이후의 상황에서 필요한 노동시장정책이 상이하게 됩니다.

둘째, 청소년노동시장과 관련하여 본다면, 한국은 出産率(fertility rate)의 저하로 현재 가임여성당 평균 2자녀 이하이지만 동남아 각국은 아직 출산률이 이보다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출산률의 차이는 청소년의 교육 및 취업기회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메즈 박사의 발표내용 가운데 “enterprise passport of learning”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이미나교수의 논문은 이론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논문이며, 정책적 함축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교수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occupational wag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실증적 발견을 하였습니다.

* 한국,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첫째, 임금결정에서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은 입사시의 초임금결정 뿐 아니라 입사 후의 임금 profile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가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별 근로자의 임금은 그의 human capital endowment 뿐아니라, 그가 노동시장의 어느 부문(internal 또는 external labor market)에 위치하고 있는냐에 따라 다르다. 특히 근속의 임금 효과는 노동시장 부문에 따라 크게 다르다.

셋째, 남녀차별이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부노동시장의 프리미엄이 여성에게는 없다.

이 교수는 이러한 중요한 세가지 실증적 발견에 기초하여,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뿐 아니라 균등한 취업기회의 제공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축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인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교수의 논문이 지닌 한계를 한가지 지적한다면, 이교수는 1979년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현시점에서 실증분석 결과와 정책적 함축이 타당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근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87년 이후 우리나라의 임금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력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고졸자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하였을때 대졸자의 평균임금이 1976~85년 사이에는 230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87년 이후 그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어 1988년에 200수준, 그리고 1989년에 180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남녀간 임금격차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남자평균임금을 100으로 하였을때 여자평균임금이 1980년 이전에는 45수준이었으나 1988년 50, 그리고 1989년 54로 높아졌습니다. 이와함께 학력간, 남녀간 임금격차가 최근 빠르게 줄어드는 경향과는 반대로 최근 기업규모간, 노동조합 유무간 임금격차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하였을때, 종업원 10~29인의 영세기업 평균임금은 1986년에 90이었으나 1989년에는 74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상과 같은 최근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한다면, 실증분석의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본토론회의 주제인 「청소년의 교육과 취업기회」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적절한 교육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건전한 청소년문화 발전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교육을 받고 보람과 긍지를 지니며 미래의 성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건전한 청소년 문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적절한 교육과 취업기회는 국가경제 전체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냐하면 청소년의 교육과 취업은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관련되고 특히 청소년시절의 교육과 취업에서의 mismatch는 조정과정이 길기 때문에 mismatch의 비용이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에는 청소년의 교육 및 취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mismatch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막대한 대입재수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존재와 전반적인 인력 부족의 공존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경제활동인구 배치의 부적합에서 비롯된 구직난과 구인난의 공존입니다.

이와같은 mismatch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첫째, 우리나라 기업조직이 관료적·계층적 조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primary job이 대단히 적습니다. 따라서 primary job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남자·대졸자에 제한하기 때문에 남녀간 임금격차, 학력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막대한 수의 대입재수생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사회의 발전에 따라 도시화가 진전되고 교육의 인문화가 심화된데다 소득 5천불시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람이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직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교육과 취업에서의 mismatch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mismatch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첫째, primary job을 보다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직무·직급체계의 재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각 직무의 금전적·비금전적 충족도를 제고시켜야 합니다.

둘째로는 초·중·고교에서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공업고등학교를 확충하여 교육의 인문화를 줄여나가고 어릴 때부터 직업의식과 장인의식을 지닌 사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셋째로는 job matching의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구직자와 구인자를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연결시켜주는 공공직업안정서비스를 확충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토론자들의 논평에 대한 응답

이 미 나*

— 김영화 박사의 논평 —

질문 1) 노동시장에서의 청소년 자료를 취급하지 않으므로써, 주제에서 이탈된 논문을 쓴 것이 아닌가?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이것은 청소년연구원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며, 매력있는 연구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는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아뭏든 청소년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자료가 만들어진다면, 나도 김박사가 제안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나 김박사께서 하신 질문은 내 연구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청소년 근로자가 받은 교육과 그들의 직업성취와의 관계를 탐구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받은 교육이, 그들이 장래에 취업했을 때 모두에게 같은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아니면 구조적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연구는 '청소년의 학력과 그것이 직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구이지, 김박사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 근로자의 직업 성취'연구는 아닌 것이다. 결국 이조사에서 유독 청소년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자료에만 집중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덧붙여서 이 연구에서 쓰여진 노동부 데이터의 표본이 다양한 연령층의 근로자들인데, 그것이 어째서 청소년들의 직업성취도 분석에 쓰여졌는지를 설명하고 싶다. 노동부 데이터는 이 연구에서 종단적 데이터인 것처럼 사용되었다(즉 유사-종단적 설계로 다루어졌다). 이 데이터가 횡단적 성질을 띠었으나, 연구자는 그것을 종단적 관심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학력과 경력이 서로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교한 후, 그 결과에 기초하여 동일 노동자가 학력이나 경력이 증대될 때 임금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추정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노동자를 마치 동일 인물인 것처럼 취급하고, 그들의 학력·경력이 변화해 나가는 것처럼 비교했다는 말이다. 그렇게 함으

* 한국, 강원대학교

로써 연구자는 “청소년의 학력이 증대되고, 노동시장에서 경력이 늘어감에 따라, 임금이 어떻게 늘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탐구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연구결과에서도 청소년 근로자의 직업성취에 관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부 데이터에는 청소년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질문 2) 노동자들의 연령분포를 검토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가?

내 견해로는 연구자들이 근로자들의 연령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그들의 일반경력을 알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반 경력을 “연령-6-학교다닌 횟수=일반 경력”이라는 공식을 써서 추출한다.

이 연구는 노동자들의 일반 경력보다는 회사 경력에 관심이 있다. 그것은 연구에서 채택된 내부노동시장 이론에서는 전자보다 회사 경력이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근로자들의 회사 경력 분포는 보았으나, 연령 분포를 살펴보지 않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된다.

질문 3) 청소년들은 내부 노동시장에 들어가기에 힘든데, 이 연구에서 내부 노동시장 이론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번째 질문의 응답에서 밝힌 것처럼 본 연구의 주제는 청소년 근로자들의 고용기회가 아니고, 청소년의 교육과 그것이 노동시장에서 직업성취에 미치게 될 영향력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는 청소년이 장래에 들어가게 될 모든 노동시장-즉 외부시장과 내부시장-을 다 다루어야 된다고 본다.

게다가, 본 연구 속에서도 김박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김박사께서 사용하신 맥락을 보면, ‘청소년’이란 학교를 빨리 떠나서(즉 학력이 낮으며) 노동시장에 일찍 들어간 청소년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記述的 발견 결과 진술 부분에서도 “학력이 낮으면, 내부노동시장에 들어갈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것은 김박사께서 주장하신 “청소년(저학력)근로자는 내부시장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진술과 일관된 것이다.

— 이원덕 박사의 논평 —

질문 1)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사정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10년전의 데이터를 사용한 발견결과를 오늘날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이 연구에서 쓰여진 데이터(1979년 노동부 데이터)가 최근 것이 아님은 인정한다.

그러나 내부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회사경력’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를 쓰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부득이 1979년 데이터를 쓰게 되었다. 보다 최근의 데이터는 유감스럽게도 일반경력에 대한 정보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황이 급변할지라도 그 주된 추세가 10년 사이에 역으로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내 생각은 최근 10년간의 임금성취도 양상을 분석한 결과 재확인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회사경력을 내포하고 있는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원덕 박사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성(性)과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의 축소’라는 것도 중국에는 이 연구 결과의 결론부분을 재확인 시켜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남녀별, 학력별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은 실상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축소 때문일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줄어둘게 만든) 블루 칼라의 노동조합 운동은 구조적 변수로서, 이 연구 결과의 핵심 주장-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도 학력 못지 않게 임금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을 강화해 주는 변수라 하겠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회적 태도

—비판적 평가—

오도넬(Clifford R. O'Donnell)*

역사적으로 심리학에 있어서의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성격에 관한 연구, 발달에 관한 연구, 인지나 정서, 지각에 관한 연구,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시설들에 관한 근본적 연구는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적 현상에 대한 연구는 이 외적 현상이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며, 또한 개인은 어떻게 외적현상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에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치료와 예방프로그램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발전되었다.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로 취급하여 치료하게 되었고, 범죄나 비행에 가담하게 되는 사람들은 성격상의 결함자로 취급되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제재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벌이 가해졌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인격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왔다.

본 발표자의 전제는 비행에 대한 예방과 치료프로그램의 성공도가 결여됨으로 인하여 개인을 분석단위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기본가정에 대한 재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초점은 각 개인의 모든 행동은 주위환경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 환경의 특징이 그들 행동의 발달과 수행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분석단위를 개인에게 환경으로 전환하게 되면 비행에 대한 이해와 예방, 그리고 치료에 일진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본 발표에 있어서 본인은 먼저 개인별 모델에 근거한 프로그램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것을 고찰해보고, 주위환경의 특성에 대하여 토의를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비행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근거로 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환경이 예방과 치료에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로 결론을 내리고 싶다.

* 미국, 하와이대학교

개인별 모델 프로그램

한 접근방법은 단순히 비행 청소년 재판제도화에서 비행에 가담한 개인으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도록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해지고 있는 체포행위, 유죄판결, 형집행의 절차는 각 개인이 이러한 비행을 더 이상 범하지 않으리라는 가정하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행에 가담했던 청소년들을 비행연구한 결과를 보면 구금되고 유죄를 받았던 청소년들—그러한 범법사실로 인해서 체포되거나 되었던 청소년들이 비행사실이 탄로나지 않는 청소년들 보다 더 비행을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e.g., Ageton & Elliott, 1974; Farrington, 1977; Gold & Williams, 1969).

다른 한 가정은 범법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에 따른 형을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 또한 연구결과를 보면 미래의 범죄예방 효과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Lewis, 1983; Locke, Johnson, Kirigin-Kamp, Atwater, & Gerard, 1986). 한 연구결과는 보호관찰을 실시한 청소년 집단과 보호관찰관과의 접촉을 가져보지 못한 두개의 청소년집단을 비교 연구한 결과이다(McEachern, Taylor, Newman, & Ashford, 1968). 두 집단중 보호 관찰관과 접촉을 하지 않았던 집단이 범법회수도 적고 범죄의 질도 약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현상은 보호관찰관과 접촉을 하지 않았던 집단의 연구전 기록은 더욱 나쁜 상태였다는 것이다.

다른 한 접근방법은 비행의 위험이 많은 청소년을 도와줌으로써 미래의 비행을 감소하려는 것이다. 이와같은 프로그램은 미국 뉴저지주의 라웨이 주 형무소에서 수행되었으며 정면에서 위협하는 영화를 보여주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형무소를 방문하게 되고, 형무소 생활의 문제점들을 보게 되며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기분이 언짢아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그들이 정면에서 위협을 느끼게 되어 범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의 평가는 더 많은 참가자들이 범법으로 구속되었다(Finckenauer, 1979)는 것이다.

하와이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정면에서 위협하는 프로그램’대신 ‘정면에서 기다려준다’는 프로그램으로 이름하였다. 프로그램 성격은 무섭게 하는 것 보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오래된 오아후 감옥을 방문하여 몇몇의 죄수들이 감옥생활과 관계되는 생활과 체험담을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었다. 위협보다는 심리적인 공감대를 근거로 강한 감정적 체험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에서의 결과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더 많이 비행에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Buckner & Chesney-Lind, 1983).

청소년들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면 여러형태의 도움을 레크레이션이나 사회적 활동, 학문성취활동, 건강점검, 양부모 맺어주기, 고용을 통하여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0년간 지속된 잘 알려진 Cambridge-Somerville 연구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Berleman, Seaberg, & Steinburn, 1972; Mccord, 1978). 몇 개의 연구결과는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까지 보도되고 있다. 실례로 집단지도 프로젝트(Klein, 1971)의 활동에서 운동시합, 춤, 그리고 개별적인 학습지를 전체 800명중 4명의 청소년 갱단에게 실시하였는데 연령별 범죄율을 분석해보면 다른 갱단의 요원들보다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이와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구에서도 성공율이 저조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기이하게도 일부 연구 보고서를 보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비행이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 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친구조직 프로그램'의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무단결석, 폭행, 성적 저조 등의 특별한 문제점을 가진 소년들에게 친구라 불리우는 성인들을 지정해주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남의 시간을 갖게하여 흥미있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의 행동은 무작위 통제 집단의 청소년보다 향상이 되었다(Fo & O'Donnell, 1974).

그러나 3년 후의 재범율 연구에서 보면 범법에 의한 구속이 없었던 청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에 범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의 구속이 줄어들었다(O'Donnell, Lydgate, & fo, 1979). 최근에는 비행기록이 없는 일부 참가 청소년들이 최근 비행에 가담중인 청소년들과 친구관계를 유지시켜 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많은 기회가 친구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비행 청소년들이 다른 비행청소년들과 친구관계를 맺음으로 비행이 예방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일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청소년들이 서로와 사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접촉은 수감중인 청소년들간이나, 법정에서 선 청소년 또는 보호관찰중인 청소년 그리고 면회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간에서도 있으며,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접촉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상호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게 됨을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연락망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절감시킬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O'Donnell, Manos, & Chesney-Lind, Characteristics of a Setting).

주위환경의 특성

이러한 발견들은 청소년 비행과 사회관계망의 중요성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프로그램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는 특별한 관계망의 성립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망에 대한 관찰 뿐 아니라 관계망 형성을 도와주는 실질적인 환경이 비행의 학습은 물론 범행을 지속시켜주는 기회제공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례를 보면 이웃에 살고 있는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상호접촉이 쉽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학교나 이웃에서의 여러가지 행사에서 접촉의 빈도가 높게 되며 비슷한 관심을 갖고 같은 활동에 참여하게 되므로 우정관계로 발전 되게된다.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상호 영향력을 끼치게되며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어떤 집단이건 각자의 재주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므로 그러한 모범적인 행동의 관찰 기회는 물론 도움과 보상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호참여의 형태는 때에 따라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집단사이에서 상호의존관계를 창출해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상호주관성으로 표현되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된다. 상호주관성은 일련의 집단이 사고하고 체험하는 방향이 비슷함을 의미한다. 가치와 목표가 서로 비슷하게 되어 상호주관성을 보이는 정도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협조도 가능하게 된다. 상호주관성은 참여의 동기가 된다. 지속성, 생산성, 집단의 조화는 상호주관성에 따라 다양하다. 모든 활동의 배경에는 종합적인 활동, 상호참여, 상호주관성의 특성들이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서술을 통하여 주위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비행의 관점이 개인중심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어 보다 깊은 이해는 물론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겠다(참조, O'Donnell & Tharp, 1990).

주위환경을 근거로 보는 청소년 비행

청소년의 비행에 있어서는 가족과 친구들의 환경이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아동의 성장발달과 친구교제등의 사회적 행동은 가족의 영향을 받게 된다. 부모의 사회적 행동양식은 아동들의 사회적 적응과 연합되어 있다(MacDonald & Parke, 1984).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아동들은 인기가 좋고(MacDonald & Parke, 1984), 거절당하거

나 무시당하지 않고(Dodge, 1983), 문제행동을 중지할 수 있었다(Mulvey & Aber, 1988).

반면에 배우자나 아이들을 확대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을 직접 엿볼 수 있었다. 물론(1987)은 문제 가정이 어떤 활동이 아동들로 하여금 위압적인 행동을 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해 기술해 주고 있다. 부부간 불화나 아동학대는 아동기의 공격성과 연결되어 있다(Belsky & Vondra, 1987; Gove & Crutchfield, 1982). 더 나아가 아동에 대한 무관심은 지도감독의 소홀에 의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관심부족은 친구들과 더욱 가깝게 되고 보다 비행과 가까이 접촉하게 된다(Condry & Siman, 1974; Dornbusch, Carlsmith, Bushwall, Ritter, Leiderman, Hastorf, & Gross, 1985; Jessor & Jessor, 1977; Rutter & Giller, 1984). 효과적이지 못한 지도감독은 청소년 비행과 관계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Wilson, 1980), 아무래도 성인들의 지도감독이 있는 환경에서의 청소년 비행은 최소치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H. Schwendinger & J. Schwendinger, 1982).

이러한 가족환경의 특성은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가정에서 사회적 적응능력을 연마한 청소년은 사회성이 좋은 또래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가는 능력을 보여주는 반면에 학대나 무관심 또는 성인의 지도감독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끼리는 서로 좋아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관계형성 이후에는 끼리끼리 같은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 배우고 서로 의존하며 그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체험하는 대로 상호 주관성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들이 배우는 행동이나 참여하는 활동 그리고 함께하는 체험들은 사회적인 청소년들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인 청소년들은 그들의 공격성이나 사회적응의 문제 때문에 함께하기를 참여하는 기회가 적을수록 소외되고 비행에 가까워지며 사실상 일반 친구들과는 상호주관성의 결여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활동환경은 배우는 행동, 접촉하는 사람들, 상호주관성 발달 및 인지나 가치관 형성의 과정에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활동 환경하에서 서로 알게되며 같은 집단의 일부가 되어 가는 것이다(O'Donnell & Tharp, 1990).

이러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이 비행에 가담하게 된다면 친구 상호 관계망의 영향력이 확인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기 비행은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크며(Emmler, Reicher, & Ross, 1987; Erickson & Jensen, 1977) 반 사회적 친구들과의 접촉은 청소년 비행 일차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Dishion & Loeber, 1985; Elliott &

Voss, 1974; Fagan & Wexler, 1987; Hanson, Henggeler, Haefele, & Rodick, 1984; Knight & West, 1975). 그리고 비행 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그 효과 또한 감소시킨다(O'Donnell, et al. 1987). 특히 문제가정의 청소년이나 지도감독이 소홀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그 효과 또한 감소시킨다(O'Donnell, et al. 1987). 특히 문제가정의 청소년이나 지도감독이 소홀한 청소년일수록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재대함도 언급해 두어야 하겠다(Elliott, Huizinga, & Ageton, 1985; Poole & Regoli, 1979).

예방과 치료의 관계

청소년 비행에 대하여 환경을 근거로 하는 관점은 예방과 치료와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대개의 사회문제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과 친구의 문제도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첫번째의 관계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다른 관심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아동학대와 방임을 위한 프로그램은 청소년 예방 프로그램도 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성 개발프로그램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학령전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성과가 장기적이 되는 주 이유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Consortium for Longitudinal Studies, 1983). 실례로 Perry유치원 프로젝트에서는 3-4살 짜리들을 다른 통제집단과 19살에 이르기까지 장기 연구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의 학교성적의 향상은 물론 사회복리혜택이나, 십대임신, 범죄, 비행에 가담하는율이 감소했음을 보여주었다(Berrueta-Clement, Schweinhart, Barnett, Epstein, & Weikart, 1984, 1987; Schweinhart, 1987). 이러한 사실들은 이 여러모양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조와 청소년 비행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규모보다 더욱 광역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다.

두번째의 관계로 사회관계망의 개발을 증대시켜 비행에 가담하기 쉬운 청소년들을 일반 청소년들과의 사회적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비행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Feldman, Caplinger, & Wodarski(1983)는 반사회적 청소년들을 일반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비행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친구관계 프로그램의 결과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조심스럽게 계획되어야 하고 철저한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친구관계 프로그램에서 보면 비행청소년의 비행율은 감소되었으나, 일반 청소년의 비행가담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O'Donnell, et al., 1979). 성공의 열쇠는 비행율에 있으므로 활동은 일반 청소년들에 의하여 지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예

방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학교에서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매일 활동에 참여하도록 배려하여 비행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과 긍정적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협동학습의 기술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잘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Sharan, 1990). 이러한 학습전략은 위험성이 있는 결함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주안점을 맞추는 것보다 사회적 활동의 이점을 활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세번째의 관계는 비행 치료프로그램은 비행 청소년들만의 접촉을 피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대개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비행 청소년들간의 접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O'Donnel, et al., 1987). 청소년 갱집단 프로그램인 Ladino Hills 계획(Klein, 1971)에서는 갱집단간의 감촉을 감소시켜주는 좋은 설계로 계획되었다. 청소년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증가시켜주고 순찰을 강화하여 지시감독을 철저히 하므로 거리에 나와 배회하는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갱집단의 위협적인 행동과 범법횟수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갱집단의 수와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프로그램들 또한 청소년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개인을 상대로 접촉하여 비행을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후절차는 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후 또는 형량을 마치고 귀가한 후 실시되어야 한다. 연구결과를 보면 보호시설에서 귀가한 후 다른 비행청소년들과 접촉을 가진 비행 청소년들은 다시 범죄에 쉽게 가담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e.g., Coates, 1981).

본 발표자의 주제는 우리들이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개인중심의 관점에서 환경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의 환경은 가족과 친구, 직업에까지 사회성발달은 물론 인간관계형성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발전과 관계를 비행이나 또는 사회적 행동을 지원해주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공동 노력은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주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참 고 문 헌

- Ageton, S.S., & Elliott, D.S. (1974). The effects of legal processing on delinquent orientations. *Social Problems*, 22, 87-100.
- Belsky, J., & Vondra, J. (1987). Child maltreatment: Prevalence, consequences, causes and intervention. In D. Crowell, I. Evans, & C.R. O'Donnell (Eds.). *Childhood aggression and violence; Sources of influence, prevention, and control* (pp. 159-206). New York: Plenum Press.
- Berleman, W.C., Seaberg, J.R., & Steinburn, T.W. (1972). The delinquency prevention experiment of the Seattle Atlantic Street Center: A final evaluation. *Social Service Review*, 46, 323-346.
- Berrueta-Clement, J.R., Schweinhart, L.J., Barnett, W.S., Epstein, A.S., & Weikart, D.P. (1984). *Changed lives: The effects of the Perry Preschool Program on youths through age 19*, Ypsilanti, MI: High/Scope Press.
- Berrueta-Clement, J.R., Schweinhart, L.J., Barnett, W.S., Epstein, A.S., & Epstein, A.S., & Weikart, D.P. (1987). The effects of early educational intervention on crime and delinquency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n J.D. Burchard & S.N. Burchard (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Vol. 10 Prevention of delinquent behavior* (pp. 220-240). Newbury Park, CA: Sage.
- Buckner, J.C., & Chesney-Lind, M. (1983). Dramatic cures for juvenile crime: An evaluation of a prisoner-run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0, 227-247.
- Coats, R.B. (1981). Community-based services of juvenile delinquents: Concept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Journal of Social Issues*, 37, 87-101.
- Condry, J., & Siman, M.L. (1974). Characteristics of peer- and adult-oriente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543-554.
- Consortium for Longitudinal Studies. (Ed.). (1983). *As the twig is bent: Lasting effects of preschool program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Dishion, T.J., & Loeber, R. (1985). Adolescent marijuana and alcohol use: The role of parents and peer revisited.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11, 11-25.
- Dodge, K.A. (198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s*, 54, 1386-1399.
- Dornbusch, S.M., Carlsmith, J.M., Bushwall, S.J., Ritter, P.L., Leiderman, H., Hastorf, A.H., & Gross, R.T. (1985). Single parents, extended households, and the control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326-341.
- Elliott, D.S., & Voss, H.L. (1974). *Delinquency and dropout*.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Elliott, D.S., Huizinga, D., & Ageton, S. (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Beverly Hills: Sage.
- Emler, N., Reicher, S., & Ross, A., (1987). The social context of delinquent conduc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8**, 99-109.
- Erickson, M.L., & Jensen, G.F. (1977). Delinquency is still group behavior! Toward revitalizing the group premise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68**, 262-273.
- Fagan, J., & Wexler, S. (1987). Family origins of violent delinquents. *Criminology*, **25**, 643-669.
- Farrington, D.P. (1977). The effects of public labelling.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17**, 112-125.
- Feldman, R.A., Caplinger, T.E., & Wodarski, J.S. (1983). *The St. Louis Conundrum: The effective treatment of antisocial youth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Finckenauer, J.O. (1979). Scared crooked. *Psychology Today*, **13**, 6-11.
- Fo, W.S.O., & O'Donnell, C.R. (1974). The buddy system: Relationship and contingency conditions in a community intervention program for youth with nonprofessionals as behavior change ag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63-169.
- Gold, M., & Williams, J.R. (1969). National study of the aftermath of apprehension. *Prospectus*, **3**, 3-12.
- Gove, W.R., & Crutchfield, R.D. (1982). The family and juvenile delinquency. *Sociological Quarterly*, **23**, 301-319.
- Hanson, C.L., Henggeler, S.W., Haefele, W.F., & Rodick, J.D. (1984). Demographic, individual, and family relationship correlates of serious and repeated crime among adolescents and their sibling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528-538.
- Jessor, R., & Jessor, S.L. (1977).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New York: Academic Press.
- Klein, M.W. (1971). *Street gangs and street worker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Knight, B.J., and West, D.J. (1975). Temporary and continuing delinquenc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15**, 43-50.
- Lewis, R.V. (1983). Scared Straight—California style: Evaluation of the San Quentin Squires Program.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0**, 209-226.
- Locke, T.P., Johnson, G.M., Kirigin-Kamp, K., Atwater, J.D., & Gerard, M. (1986). An evaluation of a juvenile education program in a state penitentiary. *Evaluation Review*, **19**, 281-298.
- MacDonald, K., & Parke, R.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 1277.

- McCord, J. (1978). A thirty-year follow-up of treatment effects. *American Psychologist*, **33**, 284-289.
- McEachern, A.W., Taylor, E.M., Newman, J.R., & Ashford, A.E. (1968). The juvenile probation system: Stimulation for research and decision making.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1**, 1-45.
- Morton, T. (1987). Childhood aggression in the context of family interaction. In D.H. Crowell, I.M. Evans, & C.R. O'Donnell (Eds.), *Childhood aggression and violence: Sources of influence, prevention, and control* (pp. 117-158). New York: Plenum Press.
- Mulvey, E.P., & Aber, M.S. (1988). "Growing out" of delinquency: Development and desistance. In R. Jenkins & W. Brown (Eds.), *The abandonment of delinquent behavior: Promoting the turn-around*. (pp. 99-116). New York: Praeger.
- O'Donnell, C.R., Lydgate, T., & Fo, W.S.O. (1979). The buddy system: Review and follow-up. *Child and Family Behavior Therapy*, **1**, 161-169.
- O'Donnell, C.R., & Tharp, R.G. (1990). Community intervention guided by theoretical developments. In A.S. Bellack, M. Hersen, and A.E. Kazdin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behavior modification and therapy*, 2nd Edition (pp. 251-255). New York: Plenum Press.
- O'Donnell, C.R., Manos, M.J., & Chesney-Lind, M. (1987). Diversion and neighborhood delinquency programs in open settings: A social network interpretation. In E.K. Morris & C.J. Braukmann (Eds.), *Behavioral approaches to crime and delinquency* (pp. 251-269). New York: Plenum Press.
- Poole, E.D., & Regoli, R.M. (1979). Parental support, delinquent friends, and delinquency: A test of interaction effect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0**, 188-193.
- Rutter, M., & Giller, H. (1984). *Juvenile delinquency: Trends and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Press.
- Schweinhart, L.J. (1987). Can preschool programs help prevent delinquency? In J.Q. Wilson & G.C. Loury (Eds.), *From children to citizens: Vol. III, Families, schools and delinquency prevention* (pp. 135-153). New York: Springer-Verlag.
- Schwendinger, H., & Schwendinger, J. (1982). The paradigmatic crisis in delinquency theory. *Crime and Social Justice*, **17**, 70-78.
- Sharon, S. (Ed.) (1990). *Cooperative learning: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Praeger.
- Weikart, D.P. (1987). The effects of early educational intervention on crime and delinquency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n J.D. Burchard & S.N. Burchard (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Vol. 10, Prevention of delinquent behavior* (pp. 220-240). Newbury Park, CA: Sage.
- Wilson, H. (1980). Parental supervision: A neglected aspect of delinquenc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0**, 203-235.

한국의 중류계층 비행

심 영 희*

이 연구는 한국의 중류계층비행을 산업화의 맥락에서 탐색적으로 연구해보려는 것이다. 중류계층비행의 연구는 여러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첫째, 중류계층의 성장 및 증가와 함께, 중류계층 청소년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그 구성비에 있어서도 한국의 전체 청소년의 절반이상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화 도시화의 급속한 전개와 함께 중류계층비행이 증가하고 보다 폭력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다. 셋째, 한국의 비행연구는 오랫동안 중류계층 비행을 무시해왔고 이리하여 중류계층비행에 대한 연구가 몇 안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류계층비행에 대한 연구가 적은 이유는 비행연구의 대부분이 공식통계에 의존해 왔는데 공식통계에서는 중류계층비행이 과소대표되기 때문이다. 넷째, '숨은' 비행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중류계층비행이, 비록 심각도와 비행통제에 있어서는 그 양상이 다르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하류계층비행의 정도와 마찬가지로 많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심영희, 1981, 1987).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관련된 다양한 공식, 비공식 비행통계와 중류계층비행에 대한 질적 자료를 포함한다. 양적 자료는 중류계층비행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요인으로서 사회문화적 변동과 소년비행의 현황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질적인 자료는 미시적 관점에서 중류계층비행으로 이끌어가는 직접적 환경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질적 자료는 1984년 5월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64개의 사례중 중류계층에 해당되는 18사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방법은 비행전기의 내용분석이다.¹⁾

1. 산업화와 중류계층비행의 등장

196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의 추구하고 성공으로 인해 일차, 이차, 삼차산업의 구조가 1965년 각각 58.5%, 10.4%, 및 31.2%에서 1987년에 21.9%, 28.1%, 및 50.0%로 변동했다(표 1-1).

* 한국,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표 1-1〉

산업별 노동력 참가 구성비(%)(1963~1984)

연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965	58.5	10.4	31.2
1970	50.4	14.3	35.3
1975	45.7	19.1	35.2
1980	34.0	22.5	43.5
1985	24.9	24.4	50.6
1987	21.9	28.1	50.0

자료: 경제기획원, 1988 한국의 사회지표, p.92.

〈표 1-2〉

도시화 추세(1960~1980)

연 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도시화율(%)	28.0	33.5	41.2	48.3	57.3	65.4

자료: 경제기획원, 1988, 한국의 사회지표, pp.62~63.

이러한 산업화에 힘입어, 도시화율도 또한 급격하게 변했다. 〈표 1-2〉에서 보듯이 도시화율은 1960년에 28.0%에서 1985년에 65.4%로 변동하여 도시-농촌 부문의 구성을 완전히 역전시켰다. 이러한 산업화 도시화에 힘입어 가족구조도 또한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하면서 가족구성원의 평균수도 1955년 5.15명에서 1975년 4.64명으로 떨어졌다.

1950~53년 사이의 한국전쟁으로 완전히 뒤흔들어진 계급구조도 또한 매우 많이 변했다. 신중간계층과 노동자계층이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고, 반면에 농민과 농촌하류계층은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다(표 1-3). 구중간계급과 신중간계급을 포함한 중간계급은 1960년에 19.6%에서 1970년에 29.0%, 1980년에 38.5%로 성장했다. 한국사회의 계층구조는 아직도 구조화의 과정에 있는듯이 보이고 중류계층은 계속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화, 도시화, 및 계층구조의 이러한 변화들과 함께, 교육수준도 또한 많이 개선되었다. 해방 이후 우리 나라 교육인구의 증가는 놀라울 정도이다. 초등교육에서는 해방 당시 약 137만명의 학생수가 1980년에는 약 566만명으로 4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고, 중등교육에서는 약 9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약 417만명으로 46배 이상의 증가를, 그리고 고등교육에서는 약 8천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약 60만명으로 75배 이상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교육인구의 증가 및 교육수준의 향상은 각급학교의 학령인구에 대한 취학률을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중학교 진학률은 90%, 고등학교 진학률

〈표 1-3〉

한국 사회의 계급구조 변화(1970~1980)

계 급 구 분	1960	1970	1975	1980
중 상 계 급	0.9	1.3	1.2	1.8
신 중 간 계 급	6.6	14.2	15.7	17.7
구 중 간 계 급	13.0	14.8	14.5	20.8
근 로 계 급	8.9	16.9	19.9	22.6
도 시 하 류 계 급	6.6	8.0	7.5	5.9
독 립 자 영 농	40.0	28.0	28.2	23.2
농 촌 하 류 계 급	24.0	16.7	12.9	8.1
합 계 (N)	100.0	100.0 (59, 332)	100.0 (61, 715)	100.0 (154, 630)

자료 : 홍두승, 1983 : 71, 송복, 1985 : 113.

은 80%를 넘게 되어 중등교육은 거의 보편화되고 있다(전병재, 1983).

이것은 한국인의 특별히 높은 교육열을 고려할 때 놀랄 일이 아니다. 등록율 뿐만 아니라 진학율도 또한 매우 많이 향상되었다(표 1-4). 그러나, 높은 진학율은 학생들 사이의 경쟁율이 심해짐을 의미하고, 소위 “좁은문 증후군²⁾이라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 “좁은 문 증후군”은 학생들의 좌절, 공격 및 비행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예컨대, 가정, 학교에서의 모든 평가가 기성세대의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기성세대의 가치관의 압력을 받음으로써(예컨대, 기성세대의 지나친 엘리트주의적, 출세주의적 자녀관, 교육관에 의한 학과 위주,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 평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들은 중압감과 열등감과 좌절감만을 주는 가정과 학교를 외면하고 비슷한 입장의 다른 청소년들과 어울려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양식과 보람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심영희, 1986). 물론 이러한 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그 중에는

〈표 1-4〉

각급학교 학생들의 진학률

연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65	48.7	79.1	37.6	4.6
1970	63.2	70.2	35.9	13.7
1975	76.8	75.5	31.0	20.1
1980	93.7	84.6	43.3	34.3
1985	98.6	88.8	49.6	24.8
1988	99.2	89.0	44.5	20.1

자료 : 경제기획원, 1988 한국의 사회지표, pp.160~161.

대항문화와 소위 창조적 비동조행위로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퇴폐적, 향락적 하위문화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대중문화 취향의 청소년 하위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학교와 가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필요 이상으로 소외시키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청소년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임희섭, 1985).

요약하면 이러한 변화들이 중류계층비행의 등장의 맥락을 제공한다. 즉, 산업화는 물질주의적 가치지향을 낳고, 도시화와 중류계층의 성장은 개인주의 및 쾌락주의를 낳으며, 교육체계는 “좁은문 증후군”을 낳기 때문이다(심영희, 1986).

2. 한국 청소년 비행의 특성

2.1. 공식통계에 나타난 소년비행

중류계층비행을 소년비행 전반의 맥락속에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소년비행의 현황을 개괄해 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먼저 공식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비행의 양적 추세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소년범죄자수는 1970년 38,896명에서 1988년 104,052명으로 18년간 2.7배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의 총범죄 증가율보다는 낮은 것이다. 또한, 소년범죄 구성비는 1988년 9.1%로서 비교적 낮은 편이다(표 2-1).

그러나 양적으로는 그다지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해도 유형별로 보면 소년범죄의 심각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즉, 소년범 중에는 폭력범의 구성비가 43.4%(1988)로서 가

〈표 2-1〉 청소년 비행의 연도별 추세 및 비율

	1984	1985	1986	1987	1988
총범죄	1,000,343	1,005,892	1,041,887	1,113,612	1,144,802
소년범죄	104,578	102,225	106,355	97,849	104,052
구성비	10.5	10.2	10.2	8.8	9.1
청소년인구 100,000명당	1,267	1,228	1,237	1,114	1,135
소년범수*					

자료 : 청소년 백서, 1989

*범죄백서, 1989, p.74

<표 2-2>

소년범죄의 유형별 추세 및 구성비

	총범죄*	소년범죄**
합계	239,660(100.0)	104,052(100.0)
강력범죄		4,771(4.6)
폭력범죄	37,379(15.6)	45,120(43.4)
재산범죄	162,268(67.7)	28,587(27.5)
기타	40,013(16.7)	25,574(24.6)

자료 : *범죄분석, 1989.

**청소년 백서, 1989.

장 높고, 강력범의 구성비(4.6%) 도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범죄의 경우에도 폭력사범은 44.6%로서 가장 높고 다음이 절도사범 26.5%, 흉악사범 1.6%의 순으로서 폭력사범의 구성비가 청소년 범죄의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청소년 백서, 1989; 심영희, 1988). 이것은 재산범이 총 형법범죄 건수의 54.9%(1975), 67.7%(1988)을 차지하고, 강력 및 폭력 범죄는 12.6%(1975), 15.6%(1988)에 불과한 형법범의 유형별 구성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표 2-2).

소년범죄의 이러한 유형별 특성을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 죄명별 소년범죄자의 구성비를 보면 89년 1/4분기의 경우 총 소년범의 총 형법범에 대한 구성비는 13.8%에 지나지 않으나, 각 범죄별 소년범의 구성비는 큰 차이를 보여 강도범이 53.2%, 절도범이 44.9%, 강간범이 33.0%, 공갈범이 28.8%,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범이 18.6%에 달하고 있다(표 2-3). 또한 이 범죄들의 경우 1974년에 비해 그 비율이 크게 증가

<표 2-3>

소년범죄 유형별 총범죄에 대한 구성비

	소년범죄	총범죄	소년범구성비
총 형 법 범	8,869	64,110	13.8
절 도	5,853	13,045	44.9
살 인	17	162	10.5
강 도	836	1,570	53.2
강 간	404	1,224	33.0
협 박	59	205	28.8
폭 력 행 위 등 처 벌 에 관 한 법	11,455	61,666	18.6

자료 : 범죄분석, 1989 1/4, p.22.

〈표 2-4〉

집단범죄의 비율

총 범죄		소년범죄	
혼자	2인이상	혼자	2인이상
83.9%	16.1%	54.7%	45.3%

자료 : 범죄분석, 1989 1/4.

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죄가 갈수록 조폭화 흉포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소년범죄의 특징은 혼자서 비행을 저지르기보다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비행을 저지르는 집단화 경향이 뚜렷하다. 전체 범죄자의 경우 일인 단독비행이 83.9%(1989년 1/4분기)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비행소년의 경우에는 이와 몹시 대조적으로 단독비행의 비중이 훨씬 낮고 집단비행의 비중이 높아, 단독비행의 비율은 59.2%(1975), 54.7%(1989 1/4분기)로 거의 절반정도가 집단 비행인 것으로 나타난다(표 2-4).

2.2. 숨은 비행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은 숨은 비행이 많으므로 이것 또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실시한 자기보고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발각되지 않고 숨어 있는 비행의 정도는 1986년에 35.8%로 공식 통계의 1.2%(1986년 소년형법범 인구비 123.7 기준, 범죄백서 1989)에 비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 증가추세를 보면 비행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980년에 27.5%에서 1986년 35.8%로 크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표 2-5).

청소년들이 인정한 숨은 비행의 종류별 정도를 보면 1980년에는 음주, 금지장소 출입, 흡연 등 은둔비행이 가장 많고 폭력비행에 속하는 주먹싸움은 4위였으나 1986년에는 주먹싸움이 3위로 올라왔고 음주, 금지장소 출입등과의 차이도 매우 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폭력비행을 보다 자세히 보면 주먹싸움, 집단 패싸움, 건물 기

〈표 2-5〉

공식비행 및 숨은 비행의 양

	공식비행*	숨은 비행**
1980	1.18%	27.5%
1986	1.24%	35.8%

자료 : *범죄백서, 1989, p. 74.

**심영희, 1981, 1987.

〈표 2-6〉

숨은 비행의 유형별 정도

유	형	빈 도	순위
재산비행	절도1(5,000원미만)	141(35.4)	7
	절도2(5,000원이상)	49(12.3)	
폭력비행	주먹싸움	269(67.6)	3
	집단패싸움	58(14.6%)	
	기물파괴	91(22.9)	
의도적 반항	무단결석	98(24.6)	6
	가출	85(21.4)	
	부모에반항	180(45.2)	
은둔비행	음주	278(69.8)	1
	마약	29(7.3)	
	성관계	110(27.6)	5
	흡연	205(51.5)	
	금지장소출입	271(68.1)	2
	도박	233(58.5)	4

자료 : 심영희, 1987.

물파괴중에서 주먹싸움이 가장 많고(86년 67.6%), 건물기물파괴가 그 다음이며(22.9%), 집단 패싸움이 그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4.6%). 또한 변동양상을 보면, 주먹싸움은 1980년 57.1%에서 86년 67.6%로 늘어났고 집단 패싸움은 13.3%(1980)에서 14.6%로 늘어났으며, 건물 기물파괴는 13.1%에서 22.9%로 늘어났다(표 2-6).

이렇게 볼때 한국의 소년비행은 적어도 공식통계상으로는 비록 그 양에 있어서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양상에 있어서는 보다 폭력화되는 추세가 있음이 분명하다.

3. 중류계층비행의 유형 및 특성

공식통계에 나타난 소년비행—이들은 주로 하류계층비행인데—과 비교하여 중류계층 비행의 특성을 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숨은비행”의 과다, 집단비행의 과다, 그리고 비행유형의 복잡성이다.

3. 1. “숨은”비행의 과다

중류계층비행은 그 가시성이 낮음으로써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Gibbons, 1976 ; Chambliss, 1973), 공식통계에 의하면 중류계층비행은(상류 계층 포함) 1987년에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그러나 숨은 비행의 자기보고식 연구에 의하면(심영희, 1981, 1987), 중류계층 청소년 가운데 1980년과 1986년에 각각 28.6%와 38.8%가 숨은 비행을 포함하여 비행을 범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하류계층 비행의 경우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표 3-2). 또한 우리가 수집한 사례를 보면, 비록 이 표본이 대표성의 문제는 있지만, 64사례중 18사례가 중류계층비행으로 나타나, 28.1%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리고 이 중 잡혀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2사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중류계층 비행은 공식통계에 기록되지 않는 숨은 비행이 많음을 보여준다.

〈표 3-1〉 공식통계에 나타난 소년범죄자의 생활정도

연도	하류	중류	상류	합 계
1975	92.5	7.1	0.4	100.0(62,007)
1980	90.1	9.6	0.4	100.0(87,962)
1985	89.6	10.1	0.5	100.0(102,225)
1987	88.7	10.8	0.5	100.0(97,849)

자료 : 범죄백서, 1985, p.221, 1988, p.86.

〈표 3-2〉 숨은 비행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비행인정자 사회경제적 지위	1980	1986
하	30.1(246)	33.7(202)
중	28.6(294)	38.8(160)
중상	29.4(17)	0
합	29.3(557)	35.6(362)

자료 : 심영희, 1981 ; 심영희, 1987.

()속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의 수이고 퍼센트는 비행을 했다고 인정한 소년의 비율을 가리킴.

3.2. 집단비행의 과다

중류계층비행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집단비행이 많다는 것이다. 하류계층비행에 집단비행이 많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논의된 사실이며 (Cohen, 1955 ; Miller, 1958), 중류계층비행의 집단화 경향도 어느 정도 논의되었으나 (Greeley and Casey, 1963 ; Meyerhoff, 1964), 이는 최근에 Schwendinger부부 (1976, 1982, 1985)에 의해 체계적으로 논의되었다.

공식통계로 보면 하류계층의 경우에는 약 2/3가 집단 비행으로 나타나는데 (표 3-3) 중류계층의 집단비행은 하류계층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이를 능가하는 듯하다.

이 사례연구에서 중류계층 비행을 단독비행인지 집단비행인지에 따라 나누어보면 집단비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사례 총 18개 중 오직 한 사례만이 단독비행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대부분 친구, 또는 폭력씨클과 함께 하는 집단비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3.3. 비행유형의 복합성

비행의 유형은 편의상 재산비행, 은둔비행, 폭력비행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Cloward & Ohlin, 1960) 중류계층비행의 유형을 이 세가지 비행유형의 면에서 보면, 한 소년이 한가지 종류의 비행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두가지 종류 이상의 여러 가지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유형복합을 보인다. 즉 재산, 은둔, 폭력비행의 복합이 11건으로 가장 많고 은둔 및 폭력비행의 복합이 5건으로 나타나, 중류계층의 비행유형은 단순한 재산비행보다는 물질적 및 쾌락주의적 문화의 반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은둔, 폭력 재산비행의 복합유형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4).

중류계층 비행소년들 가운데 이처럼 비행유형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1) 은둔비행을 하기 위한 “유흥비”의 필요성 2) 폭력씨클에의 참여 (심영희, 1988) 때문인

〈표 3-3〉 공식비행 중 집단비행의 비율

연도	단독	집단	합계
1975	59.2	40.8	100.0(2,970)
1980	38.8	61.2	100.0(1,550)
1984	33.4	66.6	100.0(3,500)

자료 : 청소년 백서, 1987.

<표 3-4>

비행유형복합

재산 및 은둔 (성비행 포함)	2
은둔 및 폭력 (강간 포함)	5
재산, 은둔 및 폭력	11
합	18

자료 : 심영희, 1988.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유형, 즉 유흥비가 절도, 갈취, 또는 강도에 의해서 확보되는 경우에는 은둔비행이 주 비행유형이고 재산 또는 폭력비행은 부 비행이 된다. 두번째 유형에 있어서는 반항과 폭력씨클 참여가 은둔비행과 함께 주 비행형태가 된다.

4. 중류계층비행의 원인

비행전기의 분석결과 중류계층비행의 원인중 공통되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쁜 친구 또는 폭력씨클과의 관계로 나타났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이 관계가 가정문제 또는 학교부적응 때문에 나타나고, 다른 경우에는 가정문제나 학교부적응 문제 없이도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친구관계와 폭력씨클에 초점을 두되 가정문제와 학교 부적응을 나쁜 교우, 폭력씨클 가입의 원인으로 다루도록 한다. 나쁜 친구, 폭력씨클 가입의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표 4-1). 이 표에서 보듯이 청소년문화에 휩쓸려 폭력씨클에 가입한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고, 가정문제로 인해 폭력씨클에 가입하게 된 경우가 5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폭력씨클 가입의 원인

가정문제	5
학교 부적응	2
청소년문화	7
참여의식 결여	2
합	16

자료 : 심영희, 1988.

4.1. 가정문제와 비행

소년들이 나쁜 친구와 어울리거나 폭력씨클에 가입하는 것은 가정문제로 인한 때가 많다. 가족문제는 크게 1) 가족의 구조적 결손과 2) 가족관계, 가정분위기의 문제라는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사례분석 결과는 중류계층비행의 경우, 구조적 결손보다도 가족관계, 가정의 분위기가 더욱 중요함을 지적해 준다.

우리의 질적 자료에 의하면 전형적인 가족관계의 문제로는 1) 부모사이의 불화 갈등 2) 부모의 사회화 방식, 특히 아버지의 엄격한 훈련 3) 부모, 특히 아버지의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들은 한국가족에서 아직도 지배적인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 그 근원을 추적할 수 있겠다.

4.2. 학교 부적응과 비행

현대사회에서 학교는 사회화의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해주는 성공의 열쇠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실패는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좌절을 안겨주게 된다. 이 연구의 사례들에서 학교부적응 문제는 대체로 성적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이러한 낮은 성취는 청소년들에게 열등감과 좌절을 안겨주고 비행으로 이끌어가기도 한다(Schafer and Polk, 1967; 1972). 이것은 한국의 경우에 특히 더 그러한데 이것은 한국의 교육제도에 따른 높은 경쟁과 “좁은 문 증후군”을 고려할 때 특히 더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서 잘하거나 평균정도는 하는 청소년들까지도 가정과 학교로부터 끊임없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이리하여 학교적응문제가 없는 청소년들도 좌절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좁은 문 증후군” 때문에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4.3. 청년문화와 비행

대부분의 중류계층 비행소년들이 나쁜 친구나 폭력씨클에 휩쓸리게 되는 것은 특정한 가족문제나 학교적응문제가 있을 때인데 많은 경우에는 가정문제나 학교 부적응 없이도 나쁜 친구와 어울리거나 폭력씨클에 참여하여 비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자의 현상은 중류계층소년의 경우 만족을 뒤로 미룰 줄 아는 인내가 쇠퇴하고 단기적 쾌락주의에 휩쓸리게 된다는 Cohen(1967), England(1967), Vaz(1967) 등의 “청년문화 이론”이 중요함을 지적해준다.

우리의 사례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유년기를 부유한 가정에서 심각한 가정문제나 학교적응문제 없이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들이 폭력씨클이나 비행

에 휩쓸릴 때에 그들을 그러한 씨클로 끌어당기는 것은 친구와 청소년문화라고 할 수 있다(심영희, 1988). 비록, 가정 및 학교적응문제가 배경에서 밀어내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비행으로 이끌어가는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보다 중요한 것은 끌어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청년문화와 씨클인 듯이 보인다. 이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열등감을 극복하고, 함께 쾌락을 추구하며 가정과 학교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들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폭력비행과 은둔비행들에 대해 청소년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체험했다는 사실은 다른 학생들에게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고, 이들은 이러한 행위들의 실행을 통해서 다른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가정문제나 학교적응문제 없이도 비행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여러 비행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힘과 용기, 남성다움 등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들 비행에 많은 청소년들은 호기심을 갖고 있다.

5. 통제, 낙인 및 재비행

중류계층비행의 통제는 그 작용에 나타나는 선택성으로 특징된다(심영희, 1987). 즉, 대부분의 중류계층 비행소년은 잡혔을 때에도 낙인 찍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낙인은 법원에 의한 공식적 낙인 및 소년원에의 송치를 가리킨다. 이러한 선택성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5.1 통제의 선택성 및 낙인

통제의 심각도 및 유형은 1) 학교에서의 정학, 퇴학, 2) 경찰 검거, 3) 법원에서의 보호처분 및 소년원 송치여부로 보았다. <표 5-1>에서 보듯이 발각되고 통제된 대부분의 사례들은 공식적으로 낙인찍히지 않았다. 즉 발각되지 않아 통제도 낙인도 전연 받지 않은 소년이 1명 있고, 학교에서 처벌받거나 경찰에 잡힌 소년이 전체 18사례 중 각각 8명, 11명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법원에 회부된 소년은 2명에 불과해 통제의 선택성이 높게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례에서 나타나는 흥미있는 점은 처벌에 대한 이 청소년들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처벌을 통한 낙인은 이들에게 있어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

〈표 5-1〉

비행의 통제와 낙인

통제및낙인		전체
통제무/낙인무	1	18
통제유/낙인무 (학교)	8	18
(경찰)	11	18
통제유/낙인유 (법원)	2	18

* 학교에서도 정학 또는 퇴학을 받고 경찰에도 잡힌
소년들의 경우 두 곳 모두에 각각 계산됨.

러운 것이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의 능력과 경력을 인정받는 하나의 지표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이러한 처벌에 의한 낙인은 “죽보가 올라갔다”는 표현으로 통하며, 낙인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낙인찍힌 일탈자는 낙인으로 인한 좌절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낙인 그 자체에 대한 주위의 긍정적 반응으로 인해 재비행을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5.2. 낙인, 재비행 및 비행의 지속성

중류계층 소년들의 경우 비행은 일시적 현상으로서 지속되지 않고 중단되는 경우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2). 이것은 중류계층비행은 참여의식 결여로 인한 청소년기의 일시 현상이라는 Karacki & Toby(1962)의 주장을 지지하는 듯하다.

비행을 지속하는 경우는 1) 문제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거나, 2) 통제가 없었거나 또는 3) 통제에 대한 반발 때문에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번째 요인은 한편으로는 통제의 선택성 다른 편으로는 통제담당자의 부패가 재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경찰에 의한 폭력도 또한 청소년을 반항적으로 만들어서 재범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비행이 계속되지 않고 중단되는 경우는 1) 원인이 제거되었거나, 2) 환경이

〈표 5-2〉

비행의 지속성 여부

지속	5
중단	7
불분명	3
합	15

자료 : 심영희, 1988.

변화했거나, 3) 처벌 등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이나 새로운 계기가 있었거나 4) 성숙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비행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맺는말

위의 분석에서 필자는 중류계층이 등장하게 된 거시적 구조적 배경과 중류계층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미시적 환경적 요인들을 지적했다. 이제 이들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적어도 줄일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

첫째, 가정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정의 민주화를 주장하고 싶다. 비록 현대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만큼 가부장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성격에 있어서 가부장제이며 따라서 “신가부장제”라고 불리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화의 기술로서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인 훈련이 사용된다는 것, 아버지의 부도덕한 성적 행동 및 부모간의 불화와 갈등 등은 모두 가부장적 가족관계와 이에 기반한 성역할의 이중 기준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 가족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관계는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것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업적지향 교육에서 전인지향 교육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싶다. 현재의 교육체제는 학교에서의 높은 성취와 경쟁만을 강조하고 따라서 “좁은문 증후군”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사회의식과 공동체의식과 같은 집단동일시에 눈뜨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전인지향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문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물질주의적 및 쾌락주의적 가치지향은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산업화 과정과 함께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했고 이에 따라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및 단기적 쾌락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보다 넓어져서 더 많은 하루계층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보다 민주적인 가정, 전인지향적 교육, 소외된 계층의 인간존엄에 대한 관심 등이 민주적 공동체의 새로운 사회문화로 가는 길을 닦을 것이며 중류계층비행의 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주

- 1)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1984년 5월, 당시 한양대 사회학과에서 “일탈행위론”을 수강하고 있던 2학년 학생들에 의하여 수집된 총 64개의 비행전기 중 하류계층에 속하는 48사례를 제외하고 중류계층에 해당되는 18사례이며 연구방법은 이 비행전기의 내용분석이라는 질적인 방법에 의존하였다. 면담자로 활동한 학생들은 각자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 1명씩과 면담하여 비행전기를 작성해오도록 요청되었으며 자료내용상 일관성을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첨부하여 비행전기 작성시 이를 참조하여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했다.

또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면담자로 활동한 학생들에게 일탈행위이론과 연구방법의 강의를 한 뒤에 자료수집을 하도록 했으며, 또한 면담장소, 면담일, 면담에 걸린 시간, 그리고 면담자와의 관계를 밝히도록 하였다(참고로 면담자와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친구, 친구의 동생, 동생의 친구, 친척 등을 면담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여기에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자료는 “인류학적 표본”으로 표본의 대표성에 있어서는 약하지만 탐색적 연구를 위한 질적 분석을 위해서라면 자료의 신뢰도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 2) 입시경쟁은 한국에서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서, 심지어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의 성적부진이나 입학시험에서의 실패로 자살을 하기까지도 한다.
- 3) 4절과 5절에서는 질적 자료가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지면제약으로 사례들의 상세한 묘사 및 예시는 생략하고 분석결과와 대체적인 윤곽만을 제시한다.

참 고 문 헌

통계자료

국무총리실 청소년대책위원회 1987/1989 청소년백서.

경제기획원 1988 한국의 사회지표.

대검찰청 1989 범죄분석.

법무연수원 1989 범죄백서.

참고문헌

김준호 외 1989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송복 1985 “계급갈등과 계층구조,”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와 갈등의 연구, 현대사회연구소.

심영희 1990 “청소년 폭력화, 실태와 대책,” 제 20회 청소년 지도자 심포지움 : 빛나는 청소년과 그 대응책, 서울, 4월, 청소년 지도육성회.

1988a “중류계층비행연구 : 생활사분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3집.

1988b “우리나라의 학생폭력,” 서울 특별시 교육연구소 편,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

1988c “비행소년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종류와 그 평가,” 청소년범죄연구 6집, 법무부 보호국.

1987a 비판범죄론, 서울 : 범문사.

1987b “숨은비행의 재조사연구, 1986,” 사회과학논총 6집, 한양대 사회대.

1987c “여성비행연구,” 여성연구 5권 4호, 한국여성개발원

1987d “상대적 박탈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소년원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집.

1986a “한국사회의 문화갈등과 일탈에 관한 고찰 : 문화갈등의 유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창간호 57~93.

1986b “보호소년 위탁을 위한 청소년단체 육성 방안,” 청소년범죄연구 4집, 법무부 보호국.

1984a “미국 청소년봉사국의 교훈 : 분리(Diversion)의 이념과 실제,” 청소년범죄연구 2, 법무부 보호국.

1984b “청소년 범죄, 누구의 책임인가?” 신동아 5월호.

- 1981 “한국의 ‘숨은’ 비행의 사회학적 연구 : 근로청소년과 고교학생과의 비교분석,”
한국사회학 15집, 73~114.
- 전병재 1983 “청소년과 학교교육,”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현
대사회연구소.
- 정진홍 1990 “무엇이 우리 청소년의 정신을 황폐시키는가?” 한국청소년연구 1권 1호,
창간호(여름).
- 홍두승 1983 “직업 및 계층구조의 변동과 전망,”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현대사회연구소.

영문 참고문헌

- Cloward, Richard and Lloyd Ohlin
1960 Delinquency and Opportunity, Glenco, Ill.: Free Press.
- England, Ralph W., Jr.
1967 “A Theory of Middle Class Delinquency,” Vaz (ed.), 242~244.
- Karacki, Larry and Jackson, Toby
1962 “The Uncommitted Adolescent: Candidate for Gang Socialization,” Socio-
logical Inquiry 32 (Spring), 203~15.
- Nye, F. Ivan
1958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Wiley.
- Schafer, Walter F. and Kenneth Polk
1967 “Delinquency and the Schools,” in the U.S.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Task Force Report: Juvenile
Delinquency and Youth Crime, p.222~77 (eds.)
- Shim, Young-Hee
1989 “Industrialization and the Rise of Middle Class Delinquency in Korea,” in
Proceedings of the 9th Asian-Pacific Cultural Scholar’s Convention, Seoul,
May 29~31, 1989.
- 1987a “Diversion and Community Treatment in Korea,” Proceedings of the
Fifth Asian-Pacific Conference on Juvenile Delinquency, Taipei, Dec. 6~13,
1987.
- 1987b “Hidden Delinquency in Korea,”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3 no.2
(July), 425~432. Also in Proceedings of the Fourth Asian-Pacific Conference

on Juvenile Delinquency, Tokyo-Kobe, Nov. 10-17, 1985.

Vaz, Edmund W.

1967a "Juvenile Delinquency in the Middle-Class Youth Culture", in Vaz (ed.),
1967, 131~47.

1967b Middle Class Delinquency (ed.), New York; Harper and Row.

토 론(1)

실버라이젠(Rainer K. Silbereisen)*

오도넬(C.R. O'Donnell)박사의 논문에는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여러가지 요인들을 말하는 중에 사회적 능력을 강조했다. 나는 몇 가지를 더 첨가하고 싶은데, 자기통제, 신념체계, 재능, 역할, 주체성 등이다. 정치적 상황에 관해서 말하자면, 나는 서독인으로서 독일의 통일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자기통제를 잃거나, 자발성에 대한 믿음이 없을 경우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 다른 누가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정해주기를 기다리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통제란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개인적 장점이요, 많은 사람들이 나쁜 환경에서 살더라도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된다.

사람들의 마음속엔 보호적인 요소가 있는데 교육이 그중의 하나이고, 그래서 나는 어제 발표된 이미나 박사의 논문을 좋아한다. 이박사는 최선의 교육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했다.

교육은 개인을 도와주는 자원인데, 새로운 환경에 대처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잘 이용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자존심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자기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일단 믿기 시작하면 개인이 책임지게 되고, “성장시간표”라는 중요한 개념이 생긴다. 우리는 누구나 사회적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의 두뇌가 무엇을 지금 해야되고, 무엇이 언제까지 해야되고, 또 무엇이 언제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를 들자면, 언제 내스스로 남자나 여자를 선택해서 외출할 수 있는지, 언제 술을 마셔도 괜찮은지, 언제 차를 또는 자전거, 오토바이를 운전해도 괜찮은지 등의 문제가 있다. 재미있는 것은, 상당히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젊은이와 어른들이 비슷한 성장시간표를 가진다. 그러나 빠른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는 사회에서는 젊은이와 어른들의 성장시간표 사이에 갈등이 있다. 예를 들자면, 심영희박사의 논문에서 지적된 청소년비행들은 독일 사람인 나의 입장에서는 실수 또는 신분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고싶다. 그런 행동들은 단순히 때를 맞추지 못했을 뿐

* 독일, Justus Liebig Universität Gissen

이다. 그것들이 비행이 되는 것은 도둑질 같은 성격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너무 어린 나이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행동은 성장시간표와 관련되어 있고, 그 시간표는 쉽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신분적 저항이 인간 성장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과 적응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있다.

새로운 주제를 하나 제기하겠는데, 아무도 생물학적인 요소를 말하지 않았다. 하나의 여성으로 성숙되어 월경을 시작하기까지의 기간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특히 현대화과정에 있는 사회에서는 모성에 이르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신분적 저항을 신체적으로 보이는 나이와 사회적 책임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 예를 들자면 나이는 어리지만 조숙한 여자는 나이가 더 많은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너무 어린 나이에 하기 때문에 비행이 되지만, 길게 볼 때 비행청소년이 될 위험이 없는 것이다.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너무 일찍 즉, 교육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 뿐이다. 우리가 청소년 비행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생물학적인 성장시간표와 사회적 성장시간표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특히 빠른 사회적 변화가 있을 때는 이 두 시간표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겠다. 예를 들면 서독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제도들이 인간성장의 시간표와 조화되지 않고 있다. 내 생각에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사실, 나는 동서유럽사이의 문화적 비교연구를 여러 해 동안 했지만 아시아에 대해선 연구한 것이 없어서, 독일과 상황이 비슷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다.

일단 청소년의 성장시간표를 믿게 되면 청소년 행동 전부가 개인성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보게될 것이다. 대개의 경우 그것은 전체인구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성장의 표시이다. 예를 들면 어떤나라에서 술 마실 수 있는 나이가 정해졌을 때 누가 그 규칙을 어긴다는 것이 곧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그 정해진 나이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말한 청소년들의 비행은 대개의 경우 신분적 저항이며 성격상 과도기적이다. 심영희박사는 청소년기와 생리적 성인이 되는 순간을 일단 지나면 이것들은 이미 청소년 비행과 관계되는 사회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관찰했고 구체적인 청소년에 관한 정보와 자료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들은 회고적이고 집학적인 것들인데 필요한 자료는 청소년의 성장이 시작되는 때 즉, 비행이 전혀없는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중년성인이 될때까지 계속해서 조사한 자료들이다. 이 작업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발전도상국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런 정보없이 청소년비행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청소년이 결국 범죄자가 될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

청소년비행자 특히 신분적 저항을 보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른이 되어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장기간에 걸쳐 앞날을 내다보는 조사에 근거해서만 생활경험이 다른 청소년들을 비행에서 보호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인간성장이란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 비행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요소보다는 청소년 비행에 안 빠지게 돕는 요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도넬박사가 언급한 부모감독은 한 문화내에서 또 다른 문화사이에서 공동적으로 나타난 중요한 요소이므로 거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부모감독은 청소년 비행과 실수를 예견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부모감독에 연구자들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예견하는 힘은 지금까지 주로 차이에 관해 토론되었지만 하나의 인과적인 요소로서 취급해야 되겠다.

다음엔 오도넬박사가 말한 개인적 예방에 관해 말하겠는데, 그 요점은 청소년비행을 일찍 예방하기 위해선 그들의 성장과정을 잘 보살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술마시기, 약물사용, 범죄행위 등을 막기에 너무 늦은 그런 수단은 사용해도 효과가 없다. 약물사용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자. 바꾸어 말하면, 청소년 성장에 관한 환경을 개선하고 개인적 능력개발에 힘써야 한다. 비행에 등급을 매기지 말고 성장에 등급을 매기자. 그리고 예방에 관해서 중심적인 생각은 긍정적 대안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청소년 때의 문제들과 행동들은 결국 개인의 성장에 대개 보탬이 되는 것이다. 그것들은 다 성장과정에서 적응하느라고 나타난 것인데 부차적인 효과를 수반한다. 자기통제와 밀접히 관계있는 일은 자신에 도전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한가지 주의할것은 현실사회에 순응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나는 독일에서 사회순응적인 청소년집단에 대해 연구할 때 그들이 비행 청소년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곤란을 겪은 일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인 도전을 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토 론(2)

김 의 철*

사회심리학의 권위자인 뉴랜드(Kurt Lewin)는 “좋은 이론만큼 실질적인 것은 없다(There's nothing as practical as a good theory)”라는 말을 했지만, 본인은 거기에 “활용되는 이론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There's nothing better than a theory that works)”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그것이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오늘날 우리는 활용되는 이론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오도넬(C.R. O'Donnell)박사가 그런 주요 논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이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며 우리가 대표하려는 모든사람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드럽고 예절바르게 이야기 했지만 본인은 그 메시지가 자체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 누군가가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할 때 여러분은 매우 주의깊게 경청해야 한다. 그때 그 메시지에 매우 비중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

본인은 오도넬 박사가 급진적인것부터, 현명한 것, 매우 적절한 아이디어에 이르기까지 3가지 관점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매우 자극적이고 즉흥적인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청소년을 연구할 때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연구단위를 개인에서 장(setting)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하여 크게는 본인도 동의한다. 그러나 본인은 좀 더 세밀화하고 맥락화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분석단위는 매우 적절해야 한다. 만약 현상이 매우 있음직한 것이라면 그것은 반복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매개변수가 안정적이거나, 체계 혹은 하위 체계가 분리 고정될 수 있는 것이면 결국, 여러분은 과학적이기 위하여 반복하거나, 타당화하거나, 그리고 검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인문과학(human science), 특히 장(setting)을 다룰 때 갖게 되는 문제들 중의 하나는 사건(event)들이 매우 있음직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분리,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준들(levels)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분석의

* 미국, 하와이대학교

수준을 구별하는 것이다. 즉, 실버라이젠(R.K. Silbereisen)박사가 제안한 것처럼 생리학적 혹은 생물학적 수준,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생물학적인 부분이 포함되는 개인수준, 다른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집단수준, 여러정보와 자극들이 통합되고 검증되는 문화수준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그리고나서 우리는 인간을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각 수준내에서 우리는 적절한 분석단위를 발견해야 하거나 발견할 필요가 있다. 물리학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기계적 법칙중에서 뉴우톤의 물리학은 기계적 수준에 적절한 단위를 제공하였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양자물리학 분야에서 핵수준에 적절한 또 다른 단위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분석의 또 다른 형태(set)를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단위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연과학으로부터 배우게 된다. 장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본인은 오도넬 박사가 장과 그에 속하는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실버라이젠 박사는 여러분들이 단순한 개인적 통제, 자존심, 사회적 유능함이 아닌 다른 요인에 주시할 것을 제안했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

두번째 관점은 인간관계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의사소통하는가? 등은 매우 중요하다. 역시 여러분은 사회적 조건 혹은 맥락에 의해 이미 결정되고 이미 정의되어 버리는 문화적 요소를 잘 주시해야 한다. 우리는 역시 그런 수준들에 주시하고 있다. 우리가 개인적 맥락에서부터 장(setting)의 맥락까지 조사하며 시작할 때 현상은 매우 복잡하게 된다. 그리고 현상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개인적 수준에서 문제 혹은 해결책을 규명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되며 우리 앞에 제시되는 현상만을 보아서는 안된다.

심박사의 논문에 관하여 본인은 그녀의 논문내용 자체 보다는 사회과학이나 사회학 분야의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평하고자 한다. 문제중의 하나는 우리가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에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하나의 원인에 하나의 결과라는 것이다. 즉, 하나의 원인이 두개의 결과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는 여러가지 다른 결과들을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한다.

고전적 인물의 한 사람인 뒤르켐(Durkheim)은 자살의 원인을 소외(anomie)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규범을 잃거나 소외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소외가 자살의 원인이 되고 다른 경우에는 자살을 일으키지 않는가?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서구화의 경우에 어쩌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행의 원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한가?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유용하지 않거나 혹은 가장 잘 상관관계가 있는 인과요인이 못된다. 그것들은 서로 묶여 있는 짐꾸러미처럼 서로 얽혀있다. 하나나 둘 혹은 그 이상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규정 지을 수 없다.

비록 동의는 하지만 결론중 몇가지는 재검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토론에 참여하는 우리로서 제한된 자료와 이해에 근거한 결론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다. 심박사 논문의 159쪽을 보면 심박사는 중산층 청소년에게 비행을 일으키게 하는 거시적인 관점의 구조적 배경과 미시적인 환경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주장의 문제점은 사회계급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것은 변수들의 덩어리다. 그러나 그 변수 덩어리의 형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방향들과 인과관계 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우리는 모른다. 특히 64명이라는 표집 크기에 관한 것인데 그 정도의 표본수로는 기술의 정도가 낮고 얻으려 하는 정보가 너무 적다.

심박사가 제안한 정의 역시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의 문제는 사회계급의 정의에 있고 가족에 관한 정의에 있다. 그리고 청소년과 비행이라는 개념의 정의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세째, 심박사의 두번째 결론인 한국 가족내에서 가부장의 권위관계가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민주주의나 평등주의가 더 나은 사람을 만들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경우를 본다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비행수준이 높은 나라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회가 민주적으로 되는 것이 문제를 없애는 길은 아니다. 미국 코네티컷주(Connecticut)에서 로너(Ron Roner)에 의해 수행된 또다른 흥미로운 예가 있다. 그는 미국인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통제가 태만, 거부, 적의, 그리고 공격성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부모가 매우 통제적이라고 지각한 아동은 그들의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각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주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이다. 그가 한국에서 자료를 수집했을 때 그는 반대의 결과를 얻었다. 부모의 통제는 부모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의 표현으로 지각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약 여러분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부모님의 관여가 필요하다. 즉, 필요한 요구인 것이다. 그래서 권위주의적 관점은 비행과 상관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것이 한국문화가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갖는 권위주의 형태이다. 그러나 권위주의를 넘어서 그들은 무엇을 갖고 있을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인간적 관계와 집중이다. 이것은 발달과정상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제 방향을 바꾸어 다른 결론인 물질지향적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다. 어른들

이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뉴우스를 들어보면 정치인들, 경영인들, 심지어 교수들까지 그들이 세를 놓는 방식, 가르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의 학생을 학대하는 방식 등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쾌락적이고 물질만능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은 지키지 않는 이상적인 생활지침에 따르도록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일까? 본인은 우리가 청소년과 미래를 변화시키자고 부르짖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시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라든지 평등주의 같은 것은 표어에 지나지 않는다. 본인은 이러한 개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어떻게 실시하며 어떤 종류의 것이어야 할까? 민주주의는 보편타당한 개념은 아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맞는 민주주의의 개념이 있다. 또한 그 나라에 맞는 방식이 있다. 우리가 더 민주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미국식 민주주의를 채택한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사회가 소란과 혼동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민주주의를 할 것이며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이상적인 안을 제시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이론이 활용 가능하고 우리 연구의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실질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적인 안에 지나지 않게 된다.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 이상적인 안을 주장하는 많은 서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현사회에 효과적인 감각을 갖는 실질적인 안을 갖고 있는 책은 거의 없다. 감사합니다.

새 사회 건설-청소년을 주역으로

- 신화 그리고 꿈과 가능성 -

나이야(Usha. S. Nayar)*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사회는 청소년들과 그들의 감정표출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취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청소년들의 무한한 능력과 국가나 사회의 재구성을 위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젊음의 에너지에 대한 가능성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 아마 정책 입안자들과 정책 결정자들 중에 상당수는 그 능력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강한 구속력을 행사하려 들기가 쉽다. 다시말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레크레이션, 건강, 고용 및 사회안전 문제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기 마련이다. 표현의 자유나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관심영역에의 참여기회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은 거절당하거나 무시되기가 쉽다. 세상이 두개로 나뉘어져 한쪽은 청소년이고 다른 한편은 모든 세상이 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세계 어디에서나 청소년들이 자유를 얻기 위한 운동의 선봉에서 왔다. 청소년들의 열심과 정열, 새로운 것에 대한 집착, 시도, 투쟁의 자세는 억압하고 적대시하는 통치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힘든 투쟁의 불꽃을 태워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는 변화의 와중에서 목표를 향하는 다양한 운동들이 청소년들의 책임하에서 성공적으로 지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급진적일 수도 있고 완만할 수도 있지만 힘찬 행보임에는 틀림없다. 청소년들은 훌륭한 목표를 향하여 자신들의 에너지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또한 자신들의 열망을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권위에 대한 의문과 변화에 대한 바람으로 기성세대가 사회운동을 이끌어 갈지라도 결정과정에 청소년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원하는 정치·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입법과정과 사상문제로 인하여 소멸되어 가고 있음을 청소년들은 알고 있다. 그들의 낙관주의는 너무나 이상적이었고, 염려없는 기성세대와 문제 없는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바람이 현실이 아님도 알게 되었다. 1950년대의 서방세계는 전후시기요, 다른 대개의 나라는 주로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는 변화의 시대였다. 전쟁

*인도, Tata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교수

의 쓰레기더미와 식민통치로부터 대두되는 새로운 양식의 사회운동은 필연적으로 낙관주의가 되었고 국가건설의 목표를 향한 사회의 방향설정이 확실해지게 되었다. 특히 기술의 발전이 서구 세계에서의 사회의 변혁을 동반하게 되었고 이를 본 청소년 젊은 세대는 현존하는 사회의 규정이나 규범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평화적이고 비폭력운동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성장해온 환경에 의해 “올바르고 필요”하다고 여겨왔던 가치에 대하여 철저한 거절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은 국가건설에서 자신들이 소외되고 무시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모든 실질적인 활동들이 “기성세대”에 의하여 통제되고 지시되며 재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국가자원의 공정분배와 같은 자신들의 꿈이 눈앞에 보인 발전계획의 우선순위 때문에 희생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언급이 옳을지 또는 필요한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정책 입안자들이나 정당에서도 청소년들의 요구는 관심밖의 일이었으며, 청소년과 직접관계되는 문제까지도 청소년들 자신은 소외되어 왔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렸던 국가에서는 청소년들이 힘을 얻게 되고 기본적인 예외법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회규범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면서 새로운 문화창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역경계와 전통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었으며 청소년 우위의 관점이 지역적으로 잘 수용되어지고 있다. 1970년에서 90년대에 이르는 동안에는 변화의 속도며 변화의 영역이 지대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라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한 나라의 조그마한 사건은 곧 세계곳곳에 알려지게 되고 곧 세계적 관심의 초점이 된다는 것이다. 인도의 학생들 폭력 데모 같은 것도 그것이 정치적이건, 사회적이건 아니면 생태적이건간에 세상에 곧 알려지게 되고 중국 학생의 자유화운동도 곧 세계의 동정과 관심을 얻기에 충분하였다. 오늘날은 과거 어느때 보다도 청소년들이 사회정의의 이야기하고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말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필자는 본 글에서 다음의 질문에 대한 관점을 나름대로 피력해 보고자 한다. 보다 완만하고 자연스러운 변화의 가능성, “기성시대”의 입장에 대한 신뢰구축의 가능성, 청소년들의 표현에 대한 기성세대의 수용가능성, 그리고 입법예의 호소가 그것이다.

I. 청소년의 개념

1. 청소년과 연령

청소년에 대한 현재의 정의는 논란이 많다. 국가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이 다른 물

론이고 한 나라에서도 법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제공이나 국가적 지원 역시 다양하다. 필자는 유엔이 정한 15세에서 24세까지를 기본으로 하겠다. 참고로 인도의 경우는 청소년의 공식연령이 15세에서 35세이다. 청소년을 정의할 때 실질 나이를 기준으로 할 때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생기고, 또 일반적으로 말할 때의 청소년은 그 당시 그 사회의 가능한 삶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 물론 분명한 것은 청소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기준을 두고 볼 때에는 그 사회의 물질적인 문제와 사회문화적인 성숙도 정도에 따라 다양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분류

분류 또한 확실한 범주설정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정치, 사회, 문화 및 발달상의 구성요소가 이를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징별로 다음의 네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청소년 참여 및 역할수행 그리고 사회변화를 고려한 것들이다.

1) 만족하고 있는 청소년

이 범주에 속한 청소년은 좀 피동적이며 현실에 만족하고 있다. 그들은 문자해독능력이 있고 지방이나 소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전통적이고 통상적인 생활을 큰 변화없이 영위하고 있으며 외부와는 접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다.

2) 투쟁적인 청소년

이 범주에 속하는 청소년은 부모가 도시로 이주하여 함께와서 중하류의 경제적 배경에서 성장한 약간 글을 아는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정치가들이나 정당에 의하여 쉽게 조종되기도 하며 사회의 부분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그들은 도시에서 자라고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므로 주위의 사회정치적 발언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3) 이유있는 청소년

이들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대부분 어떤 조직에 속해있으며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들은 도시출신이며, 의사표현이 분명하고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청소년들로 특징지어 진다.

4) 해방된 청소년

이들은 도시의 교육받은 청소년들로 자아확립을 시도하고 있으며 생활가운데서 전통적인 관념의 탈피를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문화나 정치적 환경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나 뜻을 피력하지도 않고 자기중심 또는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II. 참여와 새사회건설 : 시나리오

오늘날 세계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말그대로 복잡한 세상에 처해 있는 줄을 알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생물학적으로는 절정기에 처해 있고, 교육적으로는 일의 선택에 제한을 받거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그로 인한 실업상태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보건시설의 절대 부족과 제한된 일자리이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가하고만 있다. 교육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간에 실업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고, 이는 아마 세계적인 추세일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청소년들의 꿈과 염려는 “청소년 또래 문화”를 가져 왔고, 자신들을 결정적으로 표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인도나 기타 여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여러가지 사회문제나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며 여성지위향상이나 생태적인 문제에까지 깊게 간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청소년 운동에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지도는 성인이 하고 있으나 참여층은 청소년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운동을 반항운동으로 특징지워 보는 것은 잘못이다. 청소년의 잠재 폭발력을 인정하고 대개의 정치조직들이 이 힘을 정치목적이거나 또는 사회에 유용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잡아두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다. 아마 어떤 확실한 청소년 참여운동을 이 시기에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유일 수 있다.

III. 인도의 청소년-현재의 위치

청소년에 대한 헌법상의 규정 : 인도의 헌법은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교육, 청소년 노동자의 보호, 미성년자 보호 그리고 불법 노동착취예방과 관련된 조항들이다. 교육과 문화적 관심에 대한 보호는 기본권(28조 1항) 조항에 들어있다. 1875년의 인도성인법에는 성인과 미성년자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인도에 거주하는 자는 18세를 마치면 성인이 된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보호를 받고 있는 미성년은 21세가 되어야만 성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의 추가사항을 보면 18세의 청소년부터 참정권, 재산의 매매권, 계약권, 결혼 및 유언을 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해 주고 있다. 헌법의 특수조항들을 보면 합법적이고 행정적인 척도로 교육의 진흥, “취약계층” 국민에 대한 고용과 일반복지향상으로 계급제도 하위에 속한 부족과 기타 천민에 대한 정책상의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조항들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인도정부의 국가청소년정책(안)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계획이 확정되면 국가적 정책으로 의무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선언은 외국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국의 계획이나 정책이 국제적인 정책으로 제안되고 상관계를 맺게되면 청소년들은 국가사회와 조직에 대한 책임있는 참여자도 또 주요한 공헌자도 참여하게 되고 새 사회건설의 주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특별관심사항 :

- 1) 청소년들의 직업, 고용기회 확대와 같은 생활기술개발이 포함된 종합적이고 이상적인 교육프로그램 확대
- 2) 의료서비스를 자유로이 받을 수 있는 제도 확립
- 3) 스포츠나 여행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상호관계가 있는 정규적인 과정의 문화 프로그램 확대
- 4) 윤리적 가치 강조 프로그램으로 간디의 평화주의나 비폭력 가치관에 대한 젊은이들의 참여프로그램
- 5) 매년 노동시장에 새로운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동기회 확대

IV. 국제청소년 정책 구성

청소년들은 인구학적으로나 그들의 창의적 에너지 활용면에서 사회의 매우 주요한 구성인원이요 국가와 세계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역할수행을 충실히 해낼 수 있다(<표 1> 참조).

청소년들은 건강문제, 주택문제, 토지와 기타 국가자산의 분배문제에 대한 정책입안 시 점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되고, 지역발전계획이나 복지제도등에는 미래의 수혜자 입장에서 적극 참여 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전인 개발교육은 사회적 성장을 수반하게 되므로 정책입안자들은 계획상의 종합적인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상호협의체 구성에 대한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는 연령에 따라 다르므로 지역이나 또는 시설에서 알맞은 수준까지를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확대적용을 위해서 정부나 민간인, 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 프로그램은 운영기관에 따라 산재해 있으므로 중앙의 협의체

〈표 1〉 전체인구중 청소년(15~24세)인구가 차지하는 백분율(세계/지역별)

지역	성별	1990		2000		2010	
		남	여	남	여	남	여
전세계		19.47	18.73	17.72	17.30	17.15	16.76
저개발권		20.67	20.22	18.62	18.39	17.97	17.70
선진대국		15.26	13.91	14.10	13.22	13.47	12.75
아프리카 전체		19.00	18.70	19.30	19.04	20.80	20.53
동아프리카		18.68	18.45	19.16	18.96	21.09	20.83
서아프리카		18.91	18.66	19.23	18.97	20.92	20.63
동/서 아프리카		18.79	18.55	19.19	18.96	21.01	20.74
북아프리카		19.76	19.23	19.71	19.33	19.96	19.68
라틴/북 아메리카		17.92	17.23	17.67	17.04	17.13	16.52
북 아메리카		14.64	13.52	14.13	13.26	13.46	12.74
라틴 아메리카		19.92	19.57	19.57	19.13	18.94	18.41
아시아 전체		20.94	20.42	18.11	17.87	16.80	16.51
동/남, 극동아시아		21.86	21.26	16.50	16.14	14.29	13.96
동/남 극동아시아 (중국, 일본제외)		20.64	21.48	19.40	19.00	18.84	18.39
남아시아		19.75	19.26	20.17	20.13	19.66	19.46
남아시아(인도제외)		19.09	18.80	19.98	18.74	20.86	20.71
서남아시아		19.51	19.53	18.96	19.21	19.83	19.89
유럽(소련제외)		15.36	14.09	13.34	12.56	13.09	12.40
오세아니아		17.91	17.41	15.35	15.05	15.32	15.02
호주/뉴질랜드		16.81	16.20	17.49	13.53	13.87	13.53
오세아니아 (호주/뉴질랜드 제외)		21.47	21.44	19.58	19.46	18.95	18.82
인도		20.01	19.45	20.26	20.33	19.08	18.84

자료 : My T. Vu, 세계 인구프로젝트(1985) : 통계자료에 근거한 연령과 성별 대비 단기, 장기 추정, 세계은행, 워싱턴, 미국, pp.2~25, p.310

기능이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부터 행정 최소단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관계의 업무수행기관까지 연결될 수 있는 관계망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겠다. 청소년 관계기관은 각 연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든 연령층의 청소년에게 골고루 활동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기관과 청소년기관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유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지원은 지역사회봉사활동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학교, 스

카우트 대원, 스포츠분야, 레크레이션등이 포함된다. 발달상으로 볼 때 청소년은 도덕 발달에 있어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므로 지역사회의 사회정의는 물론 실천적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는 압력집단의 역할도 수행해 낼 수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들의 노동력, 지식, 그리고 기술을 활용한 봉사가 그것이다. 이는 정부의 지역사회복지 및 가용자원 활용을 위해 개발이 될 수 있다.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재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청소년지도자 선정등에 있어서는 연령뿐 아니라 책임감 등에 대한 경쟁 및 실무수행능력도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현재의 조직에 대한 재고와 감독과 지도가 실시되어야 하며 청소년 스스로가 책임과 임무수행에 있어서 동일수준 이상이 될 때에는 정책적으로 청소년 자신들에게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기금은 국제적으로 조성이 가능토록 하여 모든 나라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과학기술의 지식은 물론 세계문화의 유산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할 수 있도록 수집과 전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V. 결 론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꿈과 능력을 가지고 새 사회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그들은 전쟁의 공포와 위협을 줄이게 될 것이고, 근심걱정을 멀리해줄 것이며 성에 의한 차별, 계급제도, 종족간 분쟁, 빈곤으로부터 인류를 구해줄 세대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의 목소리는 국제적 운동의 힘을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청소년들은 지역의 제한성을 탈피하여 문제에 대한 세계적 이해를 촉구하기 위한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인종주의, 발전이란 이름에서의 자연파괴, 생태적인 문제, 성차별, 자율성, 표현의 자유 등이 현재의 난제로 청소년들은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범세계적으로 정하고 해결을 위해 매달려야 한다. 청소년들은 이 문제를 사회에 제시해 주고 정정당당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사회는 미루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결정을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가치는 청소년들이 관심을 불러 일으켜주어야 하고 미래의 질서를 위한 선구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세계는 기본적인 자유의 보장과 자원의 알맞은 분배, 모든 파괴행위의 중단을 가져올 것이다. 유엔과 인권에 대한 민주선언, 청소년들의 보호와 지위향상의 결정은 청소년들의 능력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한 도전은 기성세대에 있으며, 기성세대의 청소년 이해와 능력의 인정이 있어야만 그들의 사회공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서약은 다음세대로 청소년들의 세대는 그들은 이 세상을 보다 즐겁고, 기쁘며, 낙천적인 땅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데 있다.

요 약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층의 사회참여 및 그 역할은 매우 괄목할만하며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숫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본질적인 잠재능력에 있어서 사회의 내적문제와 그 방향 설정에 있어서 청소년의 영향력은 거시적이건 미시적이건 간에 매우 지대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자기표현은 사회의 각종현상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사회의 변화나 재 검토를 위한 필요조건을 반영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현실과 변화의 주역이라는 입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청소년의 특성과 참여 영역에 대하여 실질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 표현으로 대변해 주는 사회변화에 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정의에 대한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사회운동 영역에 한정시켰다. 연령층은 15세에서 24세까지로 하고 일반 청소년, 군 복무중인 청소년, 문제청소년 그리고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또한 본문에서는 사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 사회의 구조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의 역할 또는 그 사회의 전통적 가치구조에 대한 거울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화적일 뿐이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엄연한 현실은 정확하고 가속화된 정보의 흐름으로 국가적 범주를 넘어 세계적이 되었으며 전통과 국가적 과제는 여지없이 중간에서 차단되고 새로운 정보에 더욱 중요성이 부여되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이의 가치는 범세계적이고 동시에 인간적인 영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표현에 대한 권리나 전통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 등 변화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운동의 핵심이 되고 있다. 생태학, 민주주의, 거주지, 알 권리, 자원의 분배에 대한 참여 등 청소년들이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광역의 가치에 기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비폭력 학생운동과 유럽, 중국, 인도의 학생들과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은 가치에 대한 문제를 의미있게 지적해 주고있다고 보겠다. 이미 시작된 운동도 성장해 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인간의 가치와 범 세계적 관점의 가치에 대한 창조와 보존의 장본인인 청소년운동을 포함한 각종 운동에 대한 비평적 접근은 새 사회 건설의 행보가 시작되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자연 속에서의 만물의 나타남은 안정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세계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운동은 사회전통의 권위주의적 요구속에서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고 있질 않는가? 사회주역으로서의 청소년운동은 이미 신화나 꿈이 아니요 가능한 현실로 하나 하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바람직하고 정의로운사회 : 역사적이고 문화비교적인 관점에서

김 의 철*

서 론

영국 철학의 선구자인 John Lock(1690)는 유아들은 본질적으로 백지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무의 상태로) 그들에게 들어온 메시지를 자신의 생활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에는 유아들이 새롭고 다양한 감각들에 접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다; 여러종류의 빛 소리 냄새 촉감. 미국 심리학의 선구자인 William James(1890)도 이와 비슷하게 말했다. 유아들의 첫번째 경험이란 “별집을 터뜨렸을 때와 같은 큰 혼란이다”라고 말하는 이 학자들은 아이들이 아무런 준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경험주의자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아이들은 광범위한 물리적 자극의 배열을 어떻게 감각, 지각, 그리고 정서와 같은 심리적 체험으로 받아들이는가를 경험함으로써 이 세상에 대해 배워나간다.

그러나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이 전통적 입장에 반대한다.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백지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눈에 띄이는 단서들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정보를 응집력 있는 통일체로 구성하며, 조직적이고 기능적인 방식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할 수 있다(Masters 1981). 그들은 달콤한 것과 같은 유쾌한 자극을 추구하고 유쾌하지 않은 자극은 피하며, 많은 자극들중 새로운 자극을 선호하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경험을 통해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가장 중요하게 자신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맺을 수 있게 미리 계획되어져 있다(Cohern & Gelbar, 1975; Fantz, 1963; Martin & Halverson, 1981; Master, 1981). 아이들은 세상이 무질서한 방식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고 의미있는 방식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배운다. 아이들은 주의를 기울

* 미국, 하와이대학교, 심리학과교수

이고, 지각하고, 들어오는 정보를 선택하며, 또한 그것들을 조직화하도록 유전적으로 미리 만들어진 것이다. 그들은 다양한 감각들과 경험들의 의미와 일관성을 제공해주는 내적인 도식(구조)을 발달시키는 것을 배워간다.

마찬가지로 문화는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세계를 조직하고 해석하고 나타낼 수 있는 집단적인 전략을 발달시켰다(Berry 1976; Vygotsky 1978). 집단적 조직화의 유형은 유아의 심리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들어 현존하는 어떤 언어라도 배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자라는 문화적 맥락에 의해 그들이 배워야 하는 특별한 언어가 정해진다. 집단적인 학습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데, 이것은 문화전달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자기가 속한 문화의 적절한 가치들, 규준들, 기술들, 열망들을 모방과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다. 그것은 부모의 유전적인 청사진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생물학적인 전달과 유사하다. 거의 모든 사회에서 생물학상의 부모들은 가장 강력한 사회화의 표본이다. 그러나 이런 생물학적인 전달보다 문화적 전달은 더 널리 퍼진다. 생물학적인 전달은 그의 생물학상의 자손에게만 한정되지만, 문화적 전달은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광범위한 가족 구성원들, 동료, 공동사회의 구성원, 공공 기관들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아이들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각의 사회는 아이들의 행동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도록 바람직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 사회화는 그것이 일어나는 맥락에 의해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가정에서의 사회화와 공공기관에서의 사회화. 아이들은 우선 가정에서 사회화 되며, 그들이 공공기관에서 성숙됐을때 많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배운다. 공공기관은 아이들이 그 문화가 받아들일 수 있고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화 시킨다. 일반적으로 각 문화안에는 가정에서의 사회화 목표와 공공기관에 의한 사회화 목표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의 변화에 의해 가족과 사회기관 사이에 분열이 생기게 된다. 가정에서 가르쳐진 가치의 종류는 사회에서 강조된 가치와 상반되기 시작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상반되는 요구로 인한 희생자들이다. 몇몇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부적응이나 비행의 징후를 나타낸다. 공공기관은 가족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미국에서 과학과 관련된 공공기관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중재를 하고있다. 중재의 목표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같이 보이나 사실 그런 중재로 인한 성공은 한정되어 있다. 종종 어느 것은 해롭기도 하다. 연구와 중재의 대상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경험과 입장이 항상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는다. 그들이 자라난 의미 있는 배경이 실험 설계에서는 유사하기는 하지만 전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중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는 때때로 문제를 악화시킨다. 역사적으로 심리학은

아이들의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묘사하려는 시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론들은 그 당시 절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되었다.

그리고, 자연과학적인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인간발달의 기초적인 과정을 발견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접근에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인간의 특징은 제거시켰다. 이 연구 결과는 발달 과정에 대해 기계론적으로 이해 하도록 도와준다. 그들 경험의 의미와 맥락은 제거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환원주의적이고 실증철학적인 행동에서나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기초적인 구조와 과정이 이해된다면 문제의 원인이 되는 대상을 성공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

심리학이 과학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많은 면들은 자기문화 중심적이고 독단적이다. 아무런 비평없이 자연 과학적인 방법을 전용하는 것은 학문에 매우 유해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 이론들과 발견들중 많은 것은 과학적이라고 간주되지 않는다(Cronbach, 1979 ; Gibson, 1985 ; Kantor, 1979 ; Koch, 1985). 심리학적 지식의 적용이, 특히 정신기술 영역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경우 심리학적인 지식은 심리학자체에만 기여했다. 심리학의 기본적인 한계는 자연과학적 패러다임의 적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자연과학적 이해는 현상을 실제로 이해한 경우에 생기게 된다. 첫째, 우리는 과학에 대한 몇몇 신화를 파괴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대안적인 과학적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대안적인 패러다임 즉 문화과학의 전통은 이런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불공평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였고, 지금도 도구일 수 있다. 우리가 탐구에 적절한 도구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우리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과학과 문화

인간은 항상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매혹당한다. 하늘에 있는 별과 행성들, 발 밑에 있는 땅,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것들은 굉장한 흥미의 초점이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큰 흥미는 자연과 그들 자신의 근원에 대한 이해에 있다. 생물과 무생물에 대해 이해하려는 욕망이 생존에 필요한 정도를 능가한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을 구체화하고 조절하고 예상하고 이해하려는 탐구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

이 탐구의 결과로 생긴 설명의 첫번째 형태가 종교이다. 종교는 경이롭고 때로는 위협적인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준다. 일단 이런 설명들이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지자,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특정한 종교의 관점에 일치하는 행위와 가치와 규범과 태도들을 규정했다. 즉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관한 행동지침을 만들었다. 이러한 생각들을 시행하고 확립하기 위해 제도들이 생겼다. 그러나 이제도들은 극히 자기문화 중심적이고 독단적이었다. 각각의 종교 교리가 그들의 충성심과 정통성의 증거가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진리의 절대적인 중재인으로서 과학을 수용하게 되었다. 과학이 일단 우리 세상을 이해하고 묘사하기 위한 매개물로 받아들여지자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 예를들어 심리학은 인간 세계를 이해하기위한 모델로서 생물학과 물질과학을 사용하였다. 일단 심리학이 받아들여지자 그것은 과학적인 입장을 확립시키기 시작했다. 심리적기술은 사회개선을 위해 인간행위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사실상 과학의 결과는 인간행위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보다는 그것을 조절하고 분류하는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심리학에서의 많은 설명들은 극도로 자기문화 중심적이고 독단적이다. 심리적 기술은 인간행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행동지침을 제공해주었다.

심리학과 자연과학의 전용

18세기 유럽의 계몽운동 기간중에 엄격한 종교적 교리의 고수는 심각한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그들은 더이상 진리의 절대적인 중재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자연과학에서의 과학적발견들로 인해 덜 편협하고 덜 독단적인 대안적인 설명이 나오게 되었다. 물질세계의 과학적인 발견들은 보편적이고 기계적인 법칙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고 형이상학적인 추측에는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명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설명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존재하는 전제와 관점들에 도전하고, 이것을 증명하고 실험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인 관찰, 분석, 합리화, 실험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의 과학혁명은 정의내리고 설명하는 힘을 종교적인 것에서 뺏아서, 분석, 합리화, 관찰, 실험하는 집단적인 능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자연과학의 전통에는 세가지 중요한 분야가 있다: 물질과학, 생물과학 그리고 응용과학이다. 물질과학(천문학, 물리학, 화학)이 맨 처음 나타났다. 예를들면, 뉴우튼의 물리학은 비교적 단순하고 기계적인 물질세계에 대해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화학자들은 복잡한 물질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게하는 물질세계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발견하였다. 그 다음으로 생물과학이 나타났다. 그들은 살아있는 유기체의 심리적인 청사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분석단위로 세포를 사용하면서 육안으로 보이

는 단계에서는 분석단위로 종을 사용하면서 다아윈은 삶의 형태의 진화와 다양성에 대한 기계학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 다아윈의 진화론은 인류의 특성과 근원에 대한 이전의 전제에 도전하였다.

응용과학은 기술학, 농업, 의학 분야를 포함한다. 즉 물질세계와 생물학적 세계를 관리하고 조절하기 위한 방법과 과학적 지식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응용과학의 성공은 물질세계와 생물세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연과학이 타당성있고 적절한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과학과 기술의 연합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응용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특히 20세기에 물질과 생물세계를 인간이 조절하게 되었다. 물질세계와 생물세계의 작용을 밝힌 자연과학적인 성공과 응용과학에서의 중요한 발전이 연합되어, 학자들은 그들의 관심을 인간세계로 돌리기 시작했다. 19세기초에 콩트(Comte)는 인간 세계는 물질세계와 보편적인 법칙에 의하여 통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법칙들은 자연법칙과 유사하여 과학적인 연구에 의해 밝혀질 수 있다(Allport 1968).

John Stuart Mill(1843-1862)은 자연과학을 본따서 만든 인문과학의 발달에 있어서 강한 주창자였다.

그는 “정신과학의 후퇴는 오직 넓고 일반화된 물질과학의 방법을 적용함으로써만이 치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새로운 과학을 “사회과학”이라고 불렀다(Lenzer, 1975).

자연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꿔 놓았다. 그것은 그들자신에 대한 이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1748년초에 La Mettrie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기계적인 장치일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Condillac(1754)은 이와 유사하게 “모든 사고의 형태는 단지 기본적인 감각의 변형”이라고 주장했다. Thoma Brown(1820)은 연상법칙을 공식화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감각이 결합되어 더 복잡한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을 나타낸다. 이런 접근에서 보면 인간 세계는 물질적이고, 생물학적 세계의 확장인 것 같다. 그들은 더 이상 특정한 위치를 점유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은 단지 논쟁을 일으키는 철학적 추측이다. 19세기 초반 이러한 추측은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검사를 받게 되었다. 이 과정은 정신과정을 물질적 체계로 옮기고 그것을 측정하고, 심리적 실험을 행하는 것을 포함했다. 정신물리학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성과는 E.H. Weber와 G.Fechner에 의해 이룩되었고 반응시간 측정에서는 Donders가, 감각적 지각에서는 H.Von Helmholtz가, 인간 기억에서는 H. Ebbinghaus가 큰 성과를 남겼다(Murrag, 1983). 이런 실험들은 철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간격을 메꾸었다.

어떻게 인간이 지각하고 인지하고, 기억하고 느끼고, 행동하는가에 대한 3천년동안의 철학적 추측이 지금에 와서는 직접적이고 실험적인 검사를 받는다. T. A. Ribot는 이러한 성취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자연 과학의 기풍(시대정신)이 심리학을 침해했다”. 그리고 “과거의 심리학(철학적 추측)은 비논리적인 개념에 의존 하였는데, 그 안에 있는 모순과 함께 없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하게 J. T. Merz는 “의식적이거나 내적인 경험현상을 나타내는 고등동물들의 놀라운 속성은 자연과학의 영역에 속한다”(p.468)고 말했다. 많은 학자들은 인간의식과 사회적현실에 대한 내용이 자연과학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수량화되고, 조사되어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새로운 심리학”은 자연과학에서 이룩한 성공과 똑같은 성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Wilhelm Wundt가 1879년 독일의 Leipzig에 심리학 실험실을 세움으로 심리학은 “독립적이고 실험적인 과학”이 되었다(Boring 1921). 그는 인간의 마음을 면밀히 조사하는 도구로서 실험적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은 북미에서 행동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새로운 실험심리학 설계자중 한 사람은 E. L. Thorndike이다. 그는 심리학은 인간사에 있어서 근본적인 과학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리학은 기본적인 원칙을 제공해야만 하며 그 원칙이 인간 사고와 행동을 다루는 사회학, 역사학, 인류학, 언어학등에 근거를 두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1911, p.323). “심리학의 사실과 법칙 —사람들이 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역사적으로 연구되어진 위대한 사건과, 문명 사회에서의 복잡한 행동, 노동과 자본의 행위를 통제하는 동기에 대한 해석과 설명에 대하여 일반적인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으며(p. 323-324), 그는 “이론적으로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 언어학과 다른 인문과학, 혹은 인간사에 대한 과학들은 모두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라고 결론지었다(p.324).

이러한 “새로운 과학”의 실질적인 형태와 내용은 J.B. Watson의 “행동주의자의 관점에서 본 심리학”이라는 제목의 논설에 간결하게 나타나 있다(1913). Watson에 따르면 :

행동주의자가 심리학을 보는 관점에 서면 심리학은 순전히 자연과학의 객관적인 실험 분야인 것이다. 심리학의 이론적인 목표는 행동을 예언하고 조정하는데 있다. 행동주의자들은 동물의 단일한 반응 구조를 얻기위해 노력하여, 인간과 맹수를 구분하는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 세련되고 복잡성을 지닌 인간 행동은 행동주의자들의 전체적인 조사계획의 일부일 뿐이다(p.158).

위의 문장은 행동주의의 입장과 심리학의 과학적인 토대를 응변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첫째, 심리학은 객관적이고 실험적인 자연과학의 한 분야이다. 객관적이란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 공정하고, 편애·예상·편견을 갖지 않으며, 선입관이 없고, 미리 품어온 가치나 판단이 없는 것을 의미 한다.” 기초적인 분석 단위로 판단이 가능하고, 수량화될 수 있으며 실증될 수 있는 행동의 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행동주의자들은 복잡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근본적인 토대를 형성하는 기초적인 단위가 있다고 가정했다. 더우기, 동물과 인간사이에 있는 종(種)들의 연속성을 확신함으로써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실험연구들이 정당화 되었다. 그것은 실험실 상황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통제된 실험을 함으로써 행동의 기본단위가 확인될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런 분석의 기본단위가 일단 발견 되면, 복잡한 인간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토대를 형성할 수 있게된다(Lachenmeyer, 1970). 실험은 심리적인 연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기계적인 법칙의 일부로 간주된다.

세째, 이론적인 목표는 행동의 “예상과 통제”이다. 심리학에서 발견된 법칙과 원리는 “사회 개선”을 위해 인간을 형성하고 조작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심리학은 지구에서 과학과 기술을 동등하게 성취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객관성을 지도의 원칙으로 채택하면서, 심리학은 그 분야에서 모든 주관성을 없애기 위해 계속해서 규율을 다듬었다. 철학으로부터 철학의 논리적 명확성을 채택했고 물리학으로부터 조작주의를 채택하였으며, 통계학으로부터 추론적 통계를 채택했고, 자연과학으로부터 실험적 방법을 채택했다. 그리하여 심리학은 “순수하고, 일신론적이고, 실험중심적인 과학으로 발달되었으며, 그것은 모든 인간과학의 근본적인 규율과 같은 역할을 한다.”(Koch & Leary, 1985, p.3)

심리적 기술

유럽에서의 과학적 혁명은 물질적 세계와 생물학적 세계를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는 힘을 종교에서 뺏아서 과학에게 주었다. 심리학은 인문과학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인문과학은 기초 과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은 인간을 정의하고, 궁극적으로 행동통제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 자연과학으로부터 도구를 빌려 왔다.

행동 통제는 Ulrich, Stachnik, 그리고 Mabry(1966)에 의해 “명확한 행동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새로운 행동을 만들기 위해, 유기체의 현재행동 경향성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과거의 행동을 제거하기 위해 유기체가 접한 환경 조건을 조작하는

것이다.”라고 정의 되었다. 심리학에 있어서 심리적 기술이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맨 처음 개발한 것이 IQ검사(지적계수)이다.

첫번째 IQ검사는 Sir Francis Galton에 의해 만들어 졌다. 그는 IQ검사란 특정하고 유전적인 타고난 재능과 연결된 선천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지능은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그것은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IQ검사는 선천적인 지능수준에 따라 개인을 구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Galton(1907)은 다른 인종, 역사적 시기, 성(sex)과 문화에 따른 비교를 하기 위해 논의를 한층 확대시켰다. 그는 타고난 능력에 따라 인종과 문화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수량화 하였다. 그는 “흑인종의 평균 지능은 우리보다 약 2등급(표준편차 1) 아래이다.”고 했으며, 그는 또한 각각의 문화는 그들의 성취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다고 추측했다. 더 나아가, 그는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에 남성보다 여성의 감성이 우수하다면, 상인들의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인해 항상 여자들이 고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반대 가정이 사실인 듯 하다 (1907, p20-21).

그는 기억, 감각적인 정확성, 운동의 유연성을 평가하기 위해 최초로 지능검사를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시험해 보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의 주장을 지지하지 못했다.

미국 Standford대학의 Lewis Terman교수와 Vineland Training 학교의 Henry Goldard와 Harvard대학의 Robert Yerkes교수는 프랑스의 Alfred Binet에 의해 만들어진 검사를 수정, 개조하였다. 이것이 바로 Standford-Binet검사이다. 그와 그의 동료는 사람을 유전적 능력에 따라 분류하고, 측정하고, 배열하는데 관심이 있었는데, IQ검사는 그런 목적에 도구로 사용되었다. 일단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사람은 지도적인 위치에 있게 되며, 능력이 없거나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통치를 받는다. 그들은 만족스럽게도 능력있는 사람이 이미 권력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한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계층에서 매우 낮은 부분에 종사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그들의 측정도구가 타당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그들은 단지 사회의 불평등을 정당화 하는데 만족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사회적인 불평등을 줄이도록 조절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이런 것의 한 형태가 우생학적인 운동인데, 이것은 1883년 Galton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IQ검사를 만든 사람들에 의해 뒷받침 되었다. 이런 운동의 목적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한 자손의 수를 늘리는 데

있다. 동시에 생물학적인 퇴화와 결함이 유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곧 인종을 정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우생학적 고자만들기 프로그램은 미시간주에서 중죄를 지은 사람들과 미시간 가정의 불안정한 정신과 간질 병을 가진 모든 거주자를 생식불능케하기 위해 3번째로 통과되었다. 1928년 21개 주에서 이상성격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생식불능자로 만드는 법률이 강력하게 시행되어서, 1929년에는 약 8,500명의 성기능이 퇴치되었다(Chorover, 1980).

Terman(1916)은 이런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은 범죄자가 될 잠재력이 있고” “정신이 불안정한 여자들은 매춘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p.45). 이런 주장에 근거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인 통제를 해야된다고 말했다.

얼마지나지 않아서 지능검사는 사회적, 심리적으로 심한 결점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의 보호와 감시 아래에 두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재생산을 축소하여 거대한 양의 범죄, 빈궁, 산업적 비효율성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p.6-7).

그는 “이런 집단의 아이들은 격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때때로 효율적인 노동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신은 흑인과 백인이란 두 인종을 혼합해서 백인 문명의 기준을 유지할수 없다. 흑인의 평균 IQ인 80과 백인의 평균인 100을 더해서 둘로 나누면 90이 된다. 이 10%의 차이가 곧 뽀족탑이 있는집과 오두막집의 차이와, 문명된 사회와 야만인 사회의 차이이다. 백인과 흑인을 혼합하는 결혼이 백인에게 나쁘다면, 이것은 흑인에게도 역시 나쁘다. 만약에 지도력이 붕괴되면, 모든 것이 붕괴될 터이므로(cf. Chorover, 1980 p. 47).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곳에서, IQ검사는 다른 나라 사람의 이민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데 사용된다. 1875년 이전에는 미국에 이민법이 없었다. 그런데, 우생학적인 움직임이 선발과정을 강하게 규제하도록 주장했다. 최초의 IQ검사는 1912년 Henry Goddard에 의해 행해졌는데 그는 Ellis섬에 있는 미국 공공봉사소의 부탁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수정된 Binet검사를 Ellis섬에 새로 이주해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의 기대를 확신했다: 유태인의 83%, 헝가리인의 80%, 이태리인의 79%가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들”이었다. Goddard(1917)는. (정신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추방된 사람의 숫자는) …1913년에는 약350%, 1914년에는 570%가 증가 하였다… 이

것은 불안정한 마음을 가진 외국인들을 탐지하기 위해 지능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의 꾸준한 노력 때문이다”(p. 271)라고 주장했다.

1917년 “선천적으로 정신병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민오는 것이 금지되었다. 1924년에는 생물학적으로 열성인 사람들을 미국으로 이민오지 못하도록 하는 Johnson-Lodge 이민법이 제정되었다. 같은 해에 모든 아시아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오는 것을 금지하는 동양인 배척 (Oriental Exclusion)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왜냐하면 아시아인들을 “유전적으로 열등한 인종”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H.C. Kim, 1989)

이런 관점들은 2가지 목적에 부합된다. 첫째 그들은 현존하는 불평등과 부정의를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것이라고 하여 정당화 한다. Kamin(1974)은 사회·경제적으로 하층인 사람들은 “불변하는 결함을 가진 유전적으로 열등한 희생물들이다”라고 주장했다(1974, p.15). 인종에 대한 편견은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서 인종편견은 더욱 심화된다면서 Kamin(1974)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과학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경이롭게 들리며, 특히 그것이 대중의 마음을 위로하는 소식을 전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역사적으로 IQ검사자들에 의해 전달된 메시지보다 더 위안이 되는 것은 거의 없다. 가난하고, 외국태생이고, 소수민족의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인다. 그들은 그런식으로 태어난 것 같다(p.16).

IQ 검사의 두번째 목적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물학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상이고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을 분리하는데 정당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이것은 격리(분리), 배제, 때때로 제거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IQ검사가 과학적인가하는 데에는 의문이 많이 있다. 프랑스의 Alfred Biret에 의해 만들어진 검사를 최초로 각색한 것이 Stanford-Binet검사이다. 그는 프랑스의 공립 기관 장관으로부터 특별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가려내기 위한 검사도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이런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공립학교 교과과정 목록을 만들었다. 선생님들의 평가를 이용해 도구를 선택하고 그것이 정당함을 인정했다. 그 검사는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다. 그것은 학문적 수행을 예언할 수 있는 진단적인 도구였다. 그것은 선천적인 능력을 측정하려고 만든 것이 절대 아니다. Binet는 생득론자들의 입장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을 보면 : “어떤 사람의 어리석음은 계속된다.” 이것은 지능이 모자라는 학생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교장선생님들에 의해 아무런 비판없이 글자 그대로

로 받아들여진다. 교장들은 아이들에게 아무런 연민도 없고, 더우기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막한다: “이 아이는 아무 일에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는 아무런 재능도 없다...”(cf. Chorover, 1980, p.37)

Binet는 IQ 검사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치료”를 주어서 점수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가 쓴 책의 한 장(chapter)에서 학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능 훈련”에 대해서 쓰고 있다.

IQ검사가 미국에 도입됐을때 Terman, Goddard와 Yerkes는 이것은 선천적인 지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데 필요한 독립적인 개념이나 확신이 없었다. 신기하게도 이런 새로운 특성들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IQ 검사는 현존하는 사회적 계층화와 관련이 있었다. IQ검사의 결과는 직관적인 정당성을 제공해 주고, 검사의 과학적인 장점에 대한 믿음을 확신시켜 주었다. 이런 가정이 일단 받아들여지자, 조작주의의 도움으로 가정이 구체적 주장으로 되었다. Boring(1921)은 지능이란 “IQ검사가 검증해내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일단 조작적인 정의가 받아들여지자, IQ 검사의 과학적인 위계에 대한 의문은 없어졌다. Stanford-Binet검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IQ검사가 만들어 졌고, 그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타당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IQ 검사들은 지능이 선천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믿음을 구체화시켰다. 선천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은 그런 믿음을 지지하는 경험주의적 증거들보다 먼저 존재했었다. 유전적이고 선천적인 것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는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 Kamin(1974)은 이런 생각들은 의미있고 과학적인 자료들과는 분리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은 이민을 제한하는 우생학적인 운동을 강조하게 만든다. IQ검사는 이런 목표들을 위한 수단이다. IQ검사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객관성이 있고, 가치중립적인 과학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Stanford-Binet검사에 대한 최초의 책은 1916년에 출판되어 검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의 일부는 그들의 기대에 반대되었다. 모든 나이의 여자아이들은 같은 나이의 남자 아이들보다 평균 2~4%정도 점수가 더 좋았다.

Terman과 동료들은 소녀들이 더 우수하다는 핵심문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했으며, 평균적으로 소년들과 소녀들은 비슷하다는 새로운 문장을 첨가시키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이 검사는 그들의 예상과 일치하도록 수정되었다.

IQ검사를 사용한 가장 거창한 자료수집은 미국 심리학회 회장인 Robert Yerkes에 의해 1917년 시작되었다. 그와 그의 동료인 Goddard와 Yerkes는 육군위생단(Army's Sanitary Corps)로부터 직업분류에 사용될 수 있는 정신평가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두가지 종류의 IQ 검사가 만들어졌다. 쓰기 검사인 알파, 비언어적

검사인 베타. 약 2만 명의 남자가 표준화된 IQ검사를 받았다. 전체 12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한 결과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결과를 확인시켜 주었다. 미국 흑인들의 평균 점수가 미국 백인들의 점수보다 낮았다. 또한 그들은 북유럽 사람들이 남유럽이나 동유럽사람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Princeton대학의 교수인 Carl Brigham은 이민 온 사람들에게 중점을 둔 자료를 재 분석 하였다. 그는 폴란드인의 46%, 이태리인의 43%, 그리고 러시아인의 39%가 미국흑인의 평균점수와 같거나 그보다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IQ점수가 미국에 거주한 횟수와 비례하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미국에 거주한지 5년이 안되는 이주민들은 대부분 “마음이 불안정하다”. 미국으로 이민와서 20년 이상 산 사람들의 IQ점수는 미국백인의 점수에 필적할만하다. 그러나, 그 결과들은 북유럽인 우수이론(Nordic supremacy model)에 적합하게 해석되었다.

Hans. j. Eysenlc(1962)는 IQ검사의 과학적 지위를 다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

· 종종 지능검사는 어떤 과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 졌다고 믿고 있으나, 사실 상 지능검사는 건전한 과학원리에 기초를 두지 않았으며, 지능의 본질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일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지능 검사는 자양한 실제적인 문제들에 적용되어서 많은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앞으로 과학자로서 IQ검사를 과학적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이런 도구들을 개발하는 기술자가 되고자 했다. 물론 사회는 기술의 향상을 즉각 적용하는데 관심이 있고, 순수한 연구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IQ검사의 결함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p.8).

그러나, 오늘날 Stanford-Binet검사와 그것에서 파생된 검사가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원에서까지 진단적인 도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진다. 몇몇 심리학자들은 아직도 IQ검사의 과학적인 장점을 주장하는데, 실제 증거물은 이런 주장들에 반대가된다. Harvard대학의 교수인 Herrnstein(1971)은 지능검사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러므로, 백인들 사이의 IQ검사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중 80~85%는 그들의 유전자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

취직 못하는 경향은 마치 고르지 못한 치아처럼 가족내에서 유전된다... 인간 사회의 부와 복잡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지능지수가 낮은 대중가운데서 찌꺼기 같은 인

간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들은 보통직업에 필요한 기능도 갖지 못하고, 성공이나 성취를 위한 경쟁을 견디지 못할텐데, 대개 똑같이 못한 부모에게서 태어날 것이다(p. 63).

20세기에 IQ검사의 발달은 다아윈의 진화론에 의해 생긴 종교적인 공백을 메꿀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일단 신과 교회의 권위가 부정되자 다아윈이 이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 생물학적인 영역으로부터 사회학적인 영역으로 Darwinism이 확장된 것은 종교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사실이나 과학적인 발견들보다는 믿음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러한 믿음들은 그들의 현실인식을 증명하고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드리게 되었다.

일단 과학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자 인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정의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비록 심리적인 기술과 심리학이 자연과학을 모방했지만, 자연 과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Cronbach, 1979; Gibson, 1985; Kantor, 1979; Koch, 1985). 결론들이 과학적인 것으로 간주되기전에 만족시켜야 할 기본적인 필요조건들이 있다.

과학적 분석

과 학

과학은 매우 넓고, 확산된 사업이다. Boulding(1980)은 과학을 “그것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정의했다(p.831). Kember(1966)은 자연과학은 “자연 세계를 조정하는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 인간의 지식과 창조성을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한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Percy Bridgman은 과학은 “무제한적으로 인간의 최선을 다함”으로써 발전했다고 말한다. “과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단히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진 인간이 현실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정신적, 물리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데서 켜여졌다”고 주장했다(p.296). 이런 광범위한 정의에 대하여, 두개의 중요한 특징이 과학을 다른 학문과 구분한다. 즉, 객관성과 과학적인 방법의 사용이다.

객관성

과학에서의 객관성은 과학을 다른 학문과 구분하는데 보증이 되는 것 같다. 물리적

인 세상은 인간의 직관력, 인간 중심의 가정이 통하지 않는 외부 영역이라는 인식에서 자연과학이 시작 되었다(Beloff, 1973). 인간은 단지 물리적인 세상의 관찰자이며 그들의 직관력은 오히려 발견 과정을 방해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위대한 과학적 업적은 인간의 직관과 주측을 통해 이루어 졌다(Holten, 1973).

Polanyi(1968)는 객관성과 주관성은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의 모든 단계들을 분석함으로써 그는 객관적인 과학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리의 세상에서 과학에 의해 얻어진 결과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나의 요점은 우리가 과학을 받아들이는 데 기초가 되는 엄격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과학적 지식에 대한 믿음이 단지 엄격하지 않는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과학은 정의할 수 없는 통찰력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현재의 과학적 관점에서는 통찰력이란 단지 심리적인 현상이므로 이성적 추론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p.27).

그는 과학의 엄격한 기준이 인간 판단이라는 유연한 기준에 불가피하게 의지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런 유연한 기준을 제거하거나 심지어 그들을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경험적인 지식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 기준에 의존한다.

Burke(1985)는 과학에 있어서 근본적인 발견은 비이성적이고 꿈과 같은 상태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이런 발견들은 순전히 이성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는 발전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꿈 속에서 “광선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혁신하고, “만약 그가 빛에 올라 탄다면 빛은 정지된 것처럼 보일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p.303). 엔진오일의 원자구조를 발견한 August Kekule은 “불을 응시하다가 불꽃 속에서 원자의 꼬리를 보는 것은 마치 뱀이 자기 자신의 꼬리를 먹는 것과 같다”고 썼다(p.303). Newton은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 법칙을 깨달았다고 한다. 아르키메데스는 부력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Eureka(찾았다!)”라고 외치며 목욕통에서 뛰어 나왔다. 구텐베르그는 인쇄에 관한 생각을 “한줄기 빛처럼 오는 것이다”라고 묘사했다(p.303). 왈라드는 미친 듯한 흥분상태에서 진화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Burke(1985)는, 인간들이 자연의 다른 비밀을 알아내는 신비스런만큼 중요한 행동이 바로 과학의 핵심이요, 과학은 완전히 객관적이고 기계적인 일련의 방법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명한 물리학자인 Gerald Holten(1973)은 과학의 천재들은 (케플러, 뉴턴, 아인슈타인, 보아, 폴리, 보른, 쇼딩거, 하이젠버그 등), 모두 기본적인 가정, 직관, 통찰, 방법론적인 평가, 해석상의 이견, 개념적 논리비약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를 과학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과학의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은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이다. Tyler(1970)는 과학은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p.222).

객관적인 관점들과 주관적인 관점들 사이의 비평적인 분석에 있어서, Crissman(1944)은 객관성과 주관성 사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차이는 공식적인 검증력의 문제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건들, 개념들 또는 해석들은 객관적이라고 분류되는 반면,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은 주관적으로 여겨진다. “객관적인 지식은 개인의 주관성의 모든 단위들을 조사하고, 걸러내고, 재는 과정을 통해 자기중심적인것은 없애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관점이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은 어떻게 연구한 것인가에 대한 집합적인 의견일치를 반영한 것이다.

과학적인 방법

일반적인 생각들과는 대조적으로, Boulding(1980)은 과학적 방법에는 다양성이 있다고 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은 그것이 처음 사용될 때 과학적이 아니라고 간주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연구 중인 현상에 대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끊임없이 평가해야 한다. 단 한가지의 “과학적인 방법”밖에는 없다는 환상이 심지어 과학적인 공동체 안에도 존재하며, 그 외의 공동체에도 존재한다. 즉, 시금석은 과학적이지 않은 것과 과학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 ...과학공동체 내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과학이 아직도 표시 못한 문제 중의 하나는 여러가지 인식론 분야에 해당하는 적당한 방법의 개발이다.

Boulding(1980)은 과학적인 결과들과 과학적인 방법들을 구분했다. 비록 과학적인 방법들을 사용했더라도, 그 결과는 과학적이 아니라고 간주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연금술사들은 실험을 통제한다; 점성가들은 조심스럽게 관찰한다. 점장이와 골상학자들은 관찰과 측정을 통제한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논리적이다.

그는 “이런 것들은 고유의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며, 이들 중 어느 것도 과학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p.833). 다시말해, 연구자들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특별한 현상에 적절하다고 가정하고서 이 방법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방법과 현상 사이의 조화를 찾는 것이 과학적인 연구의 한 부분이다.

오늘날 사회과학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중의 하나는 특정한 현상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거나 만드는 것이다. 예를들어, 자연과학적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사도 해보지 않고서, 자연과학적 방법들을 심리학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실험 방법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필수조건이 있다. 실험 방법은 발생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들, 안정적인 변수들, 그리고, 분리될 수 있는 하위체계들의 조직을 연구하는데 적절하다(Boulding, 1980). 여기서 처음의 두 측면은 믿을만한 예언과 반복을 가능하게 해주며, 세번째 측면은 통제된 관찰과 실험을 하도록 해준다. Poincare (1952)는 더 나아가 “같은 종(種), 상대적인 독립성, 멀리 떨어진 부분, 기초적인 사실의 단순함”은 물질과학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지적했다(p.159). 그는 물질과학에서 “일반화는 즉시 수학적인 형태를 취한다. 왜냐하면, 관찰 가능한 현상은 서로 비슷한 다수의 기본적인 현상들의 중복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방식으로 특별한 등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지적했다(p.159).

Beloff(1973)는 연구 중인 현상이 연구 방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실험이 유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현상이 측정 과정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순수한 자연 현상을 다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만든 효과를 다루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p.18). 더 나아가 연구의 대상은 상호 변화가 가능해야 한다(Beloff, 1973).

우리가 인간을 다루는 동안에 모든 인간은 동질적이라고 논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한 인간이란 연구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유사하게 인간이 관련될 경우에 두개의 분리된 현상을 진정으로 비교할 수 있는가? 인간은 단순히 실험실 자극에 반응하는 대상으로 여겨질 수 없다. 인간 개개인은 실험대상으로 사용할 경우 이런 요구들이 만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가 있다. 연구자들은 실험 상황에서 피험자들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측정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발견들은 실험적인 인조사실로서 잘 알려져 있다(Adair, 1973).

Rosenthal과 Rubin(1978)은 개인간의 기대를 연구하는 345개의 실험들을 요약하였다. 개인간의 기대란 “실험자들이 예상한 결과들을 얻는 경향성 인데, 이것은 그들이 본질적인 반응을 측정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기대에 맞는 반응들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p.377). 그들은 “이런 현상의 존재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영향의 평균적인 크기는 무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실험하는 자들과 실험당하는 자들은 모두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기, 기대, 두려움, 욕망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심리연구에서 맥락과 의미를 제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리학에서 아무런 비판 없이 실험방법을 전용하는 것은 심리학에 큰 손해를 가져온다. 이로 인해 1970년대 초에 위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런 연구들과 발견들 중의 대다수가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된다(Cronbach, 1979; Gibson, 1985; Kantor, 1979; Koch, 1985).

분석 수준과 단위

오늘날 사회과학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중의 하나는 적절한 분석 단위를 발견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 과학에 존재하는 혼동의 대다수는 부적절하게 구분된 분석 수준과 적합하지 않는 분석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분석 단위의 발전이 분석 수준의 구분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일단 분석 수준과 단위가 확인되면, 연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그것들은 발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면들이다.

우리는 사회과학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또다른 과학의 전통을 검사해 보아야 한다. 물리학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을 Johannes Kepler에 의해 공식화된 지구운동 법칙과 Isaac Newton에 의해 공식화된 중력 법칙이다. Kepler의 법칙과 Newton의 법칙은 지구운동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이런 숭고한 지식은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믿어졌었다. 그들의 발견은 대략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진다: 기술, 설명 그리고 응용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예들은 과학의 이러한 3가지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 지구운동법칙과 중력법칙의 발견이다.

묘사, 설명 그리고 응용

사회과학에서 자주 소홀히 다루어진 과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기술이다. 기술은 사람들의 관찰을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것을 무질서하게 배열된 재료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분류하는 것을 포함한다. Francis Bacon은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것들을 조직화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첫번째 단계라고 설명했다.

과학의 두번째 측면은 관찰된 규칙들을 설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론들은 숨어있는 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전되었다. 특별한 이론으로부터 특별한 이론의 타당도를 시험하고 검증하기위해서 가정들과 예언들이 생기게 된다.

세번째 측면은 응용을 포함한다. 이것은 현존하는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과학적 지식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학, 농업 그리고 의학분야들은 “응용된 과학들”의 예가 된다. 과학의 성공적 응용은 특별한 문제에 대한 이론의 타당성과 적합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당면한 특정문제에 응용하기 위해서 이론을 제대로 해석하는 일도 중요하다. Kelper가 지동설을 발견하기 전에도 3천년에 걸쳐 조사한 별들의 움직임에 대한 도표 등 풍부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이러한 관찰들은 Ptolemy의 세계관(천동설)에 의해 조직되고 해석되었다. 천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였으며 모든 것이 그것을 둘러싸고 회전한다는 것이다. 관찰된 법칙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신의 천지창조)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그러나 Nicolaus Copernicus는 태양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회전한다는 대안적인 도식을 내놓았다. 새로운 기술은 지구운동을 단순화 시켰으며 천동설보다 자료를 더 잘 조직화 할 수 있게했다. 만약 Copernicus 체계를 채택했다면 더 정확한 달력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기술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도전하고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구운동 법칙의 발견에 있어서 두번째로 중요한 인물은 Tycho Brahe이다. 그는 다양한 행성들과 별들의 운동을 체계적이고 세세하게 도식화하는데 일생을 바쳤다. 대량의 자료는 그의 믿을 만한 제자인 Johannes Kepler에 의해 분석되었다. Kepler는 Copernicus의 이론체계를 사용해서 대량의 자료를 3개의 단순한 수학적 방정식으로 조직화 할 수 있었다. 3개의 방정식들로 그는 지구의 운동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예언할 수 있었으며 그것들이 3개의 지구운동법칙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행성들이 왜 이런 규칙적인 형태로 운동하는 지 설명하지 못했다.

유사하게도 갈릴레오는 추락하는 물체들은 그들의 내부적인 특성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속화한다는 것을 통제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다. 그러나 그도 역시 관찰되어진 규칙성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뉴턴은 이런 여러 정보들을 종합하고 수정된 Cartesian 협동체계를 사용함으로써 중력법칙을 공식화하고 지구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는 Kepler의 3개의 지구운동법칙과 Galileo의 낙하물체 관찰 뿐 아니라 춘분과 추분의 진행운동과 추의 진동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포괄적인 이론적 체계를 만들었다.

이들 발견은 과학과 기술에서 계속적인 발전의 길을 열었다.

중요한 발견들을 가능하게 한 꼼꼼한 관찰과, 신중한 묘사들에 의지해왔던 또 다른 과학적인 거장들이 있다. Albert Einstein은 그의 상대성 이론을 공식화함에 있어 Rutherford와 Bohr에 의해 편집된 대량의 자료에 상당히 의존하였다. 자연주의자로 남미를 여행한것이 특히, 갈라파고스 섬을 여행한것이 찰스 다윈이 그의 진화론을

공식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심리학에서 Zigmund Freud는 그의 병원의 환자들을 관찰함으로써 무의식의 역할들을 설명하는 이론을 공식화하였다. 유사하게 Jean Piaget는 그의 자식들의 발달과 성장을 관찰하고 증명함으로써 발전적 이론을 공식화하였다.

과학의 3가지 측면 즉 기술, 설명, 응용은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연속적인 단계다. 각각의 측면은 과학적 지식의 발달에 공헌한다. 이런 발견들의 가장 중요한 면은 분석에는 새로운 수준이 있다는 것과 그 새로운 수준에 해당하는 분석의 단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분석단위들은 분석의 특별한 수준에 한정된다. 예를들어 두 물체를 사이의 상호작용을 검증함에 있어 뉴우톤은 중력 법칙을 포함하는 그의 운동법칙을 공식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론은 3개가 상호작용할 경우에는 들어맞지 않아 붕괴된다.

Einstein은 에너지와 물질은 분리되거나 구분되지않는 실체이지만 그것들은 하나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변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상대성 이론). 그러나 그의 이론은 분자가 빛의 속도 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고 하는 양자 물리학에는 적용되지 않아 붕괴된다. Darwin은 분석의 단위로 종(specis)를 사용하였고, 형이상학적 근거(sources)들에 의하지 않는 응집적인 진화형태를 발견하였다(진화이론). 그러나, 그의 이론은 사회적, 문화적 진화를 설명할 수는 없다. Freud는 명백한 행동에 영향을 주고, 데카르트의 이성("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에 도전하는 무의식적 동기의 존재를 인식하였다. 이 발견은 무의식의 역할을 매우 잘 이해할수 있도록 해주지만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Piaget는 아동의 지능 발달을 설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감정적, 사회적, 문화적 존재들을 설명하는 데는 부적당하다. 사회과학자들은 아직도 적당한 분석 단위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물 세계에 대한 훌륭한 기록을 제공해 주는 동물형태학적 접근은 인간 세상을 검증하는데도 좋은 분석틀을 제공하는 것 같다. Konarad Lorenz와 Niko Tinbergen 같은 동물형태학자들은 최초의 관찰자들 이었다. 그들은 어떤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자연적 서식지에서 동물의 행동을 미리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관찰하는 동안에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서술하는 동안에 그들은 안정적인 변수들과 고립될 수 있는 하위체계(고정된 행동방식, 종(種) 특유의 방어기제, 타고난 이완기제)를 알아냈으며, 이와같은 분석 단위들이 통제된 실험에서 사용되었다. 그들은 동물들이 특정한 생태학적인 장소에 적응 했으며, 그들의 행동이 그 생태학적인 장소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데 만족하였다(Tinbergen, 1965). 그들은 이러한 자연적 서

식지로부터 추상화된 실험실 상황에서의 실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실험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자연적 환경에 적절한 실험을 설계했다.

개념적으로 그들은 동물들의 생활과 행동의 변화를 강조 하였으나, 본능의 기본적인 형태의 다양성은 강조하지 않았다. Roeder(1965)는 “호랑이의 이빨과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그들의 모양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진화론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논평하고 있다(p.7). 동물형태학에서 동물세계를 조사하는 연구방법은 인간세계를 연구하는 문화비교적 접근 방법과 유사하다.

비록 자연과학과 생물학이 인간 과학 발전의 모델을 제공 해 주지만, 한계를 갖고 있다. 인간 과학에서 연구의 대상은 또한 연구의 주체가 된다. 자연과학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비슷한 접근이 인간 과학에서는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 인간과학에서는 조사자 자신이 현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의 일부분이다. 조사 대상과 인간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 인문 과학 전통을 나타낸다.

인문과학 접근에서는 개념적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6개의 분석 수준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생리학적인 수준; 2) 개인적인 수준; 3) 집단적 수준; 4) 문화적 수준; 5) 생태학적 수준; 6) 보편적인 수준. 인간 기능에서 생리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수준도 연구되어야 한다. 다른 수준을 반드시 생리적이고 개인적인 수준에 포함할 필요도 없으며 포함할 수도 없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관습들을 따르느냐 아니면 얼마나 교육적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어떤 영역에서 결과들이 보편적이고 일반화 가능성이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 더우기, 그것은 결과들이 과학적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다.

과학 전통

인문 과학의 전통에는 분석의 적절한 수준, 단위, 방법을 명확하게 밝힌 유명한 학자가 있다. 인문과학 전통에서 중요한 인물은 Giovanni Battista Vico(1688-1744)라는 이태리 철학자이다. 1725년 그는 「새로운 과학 원리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인문과학을 자연 과학과 구분했다. Berlin(1976)에 의하면, Vico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인간을 변하지 않는 자연법칙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외부세계는 인간이라는 창조물과는 독립적이고 선형적으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그것을 단지 외부인으로서 관찰하고 오직 설명할 수 있을 뿐이고, 물리적인 세계들은 “알 수 있으나 명백하지는 않은 법칙들을 따

른다.”

지구에서 각 개인은 인간세계 발달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행위자이다. 인간은 인간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 그들 자신과 그들의 세계를 끊임없이 변형시킨다. 인간은 역사, 사회, 문화, 언어, 그리고 수학과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창조하에 있는 것이다. 인간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창조되었으므로, 그것은 명백한 법칙들을 따른다. “알 수 있는 법칙”들과 “명백한 법칙”들 사이의 차이는 관찰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통찰력을 행위자와 창조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예술품의 창조자들은 창조의 이유와 과정을 잘 아는 반면, 관찰자들은 오직 그것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근본적인 운동법칙은 관찰을 통해 오직 추론만을 할 수 있지도. 그러나 인간 세상의 근본적인 운동법칙은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 자신이 그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Vico는 더 나아가 인간들은 그들 자신의 역사에서 행위자인 동시에 창조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세계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종류가 자연과학에서 발견되는 법칙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Vico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묘사할 수 있고, 분류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에서 규칙들을 기록할 수 있는 외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그들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 대한 지식과는 다르며, 또한 인간이 창조한 세상은 인간이 부과한 규칙들을 따른다고 주장한다(Berlin, 1976, p.17). 사회과학은 자연과학하고는 연구의 내용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방법과 목표도 마찬가지로 달라야 한다고 vico는 주장했다.

Vico는 집단적인 수준에서 인간의 행동들에 널리 퍼져 있는 형태들을 인식했다. 그는 특별한 문화내에서 생각의 형태들, 예술, 사회 제도, 언어 그리고 삶과 행동방식등 모두에 공통으로 반영하는 일반적인 형태에 주목하였다. Vico는 각 문화는 그 나름의 형태를 발달시키고 변형시킨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더 나아가 각 문화는 계속해서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들은 기계적인 원인과 효과의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되며(현대화, 산업화, 서구화와 같은), 인간이 목적있는 행동에 대한 이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그들의 필요와 소망 그리고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비록 형태들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과정은 다른 시대의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명료한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형태를 이해하는 방법은 재창조적인 상상력인 환상(Fantasia)을 통해 획득된다.

그는 자연과학에서 연역적인 지식과 경험적인 지식이 연구에 있어서 가장 지배적인

형태라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세상에서 환상(Fantasia)은 지식의 새로운 종류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 방법은 상징적인 표현이란 그들의 세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에 대한 표현이라고 가정한다. 환상(Fantasia)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의 본질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이해하고 간파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그들자신의 문화로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관점으로부터 그들 자신의 문화의 정신적인 삶으로 흡수되어 들어가는 것을 포함한다. 이 과정은 또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사용한 상징적인 표현들을 이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표현 형태와 방식을 시험함으로써 본질을 개조하는 과정이다.

인문과학의 전통에서 중요한 또다른 사람은 Johann Gottfried Herder이다. 그는 Konigisberg에 있는 Emmanuel Kant의 학생이었다. 역사철학을 위한 「생각론(Ideals Towarel a Philosophy of History)」이라는 그의 책에서 그는 인간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합리주의적 접근과 경험주의적 접근을 사용하는 것을 모두 거부하고 문화과학의 전통을 인정했다.

Vico와 마찬가지로, 그는 인간세계에 절대진리, 보편법칙, 시간의 제한을 초월하는 사실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했다. 그대신 그는 Berlin의 인민주의, 표현주의, 다원론을 강조했다. 인민주의란 “집단이나 문화에 속하는 가치에 대한 믿음이다”(p.153). 그는 사람들이 인위적인 경계와 범주에 의하여 나누어질 수 없다고 믿는다. 물리적인 경계는 물질적이고 생물학적인 대상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인간은 이런 범주 밖에 존재한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범주화는 범주화하는 자신들을 포함한다. 그들은 범주의 영향을 받는다. 국가적이거나 정치적인 경계들, 피부색 그리고 인종은 인위적인 범주로 여겨진다.

Herder는 민족성 또는 민족정신 같은 “자연적”인 경계를 사용하자고 주장한다. 민족성은 Lazarus와 Steinthal(1860)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 되었다. “민족성이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의식을 가졌고, 또 자기들의 의식이 비슷하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공간적 근접성과 같은 조상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cf. Allport, 1968, p. 49). Herder는 각 문화는 자신들을 이해하고 남을 평가하기 위해 자신들의 민족성과 기준을 만든다고 했다.

Herder는 민족성은 특별한 문화적 맥락에서 발달하고, 기후, 교육, 지리,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욕구, 이웃과의 관계, 변화가능한 환경적인 요인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민족성이 구체화된 것이 언어, 신화, 종교, 민속, 예술, 문화, 도덕성, 관습 그리고 법칙들이다. 특정한 문화적 사회에 있는 개인들은 이러한 공통의 경험들과 공통의 기억들에 의해 만들어 진다. 개개인을 연결하는 주요한

매개물은 언어이다. 민족성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목표를 응시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상상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만들어 준다.

표현주의란 “일반적인 인간 행동, 특히 예술적 행동이 개인이나 집단의 전체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정도만큼 알 수 있는 어떤 원칙”이다 (Berlin, 1976, p.153). Herder는 예술작품과 같은 인간의 생산품은 의사소통의 형태이며, 진정한 자기 표현이라고 믿었다. 그 대상은 창조자와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의 가치는 단순히 그것의 기능적 유용성과 일치시킬 수 없다. 다양한 생산품의 형태와 내용이 다른데, 그 이유는 창조자들의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표현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감정이입(상상을 통해서 남의 감정을 이해하는것) 과정을 통해서 예술품들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Berlin, 1976).

다원주의란 “단지 다양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사람과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고전적인 개념은 본질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무의미하다는 혁명적인 추론과 더불어, 다른 문화와 사회의 가치를 동일한 단위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과, 등등하게 타당성 있는 이상들의 부조화를 믿는 것이다” (Berlin, 1976, p.153). Herder는 각각의 문화는 자신들의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모든 설명, 이해, 생활은 주어진 사회 공동체와 그것의 과거와의 관련성에 의존하며, 반복적이고 일반화된 형태와 맞아떨어질 수는 없다” (Berlin, 1976, p.24). 그들 자신의 기준을 사용하여 다른 문화나 고대 사회를 평가 하는 경향성은 왜곡된 관념을 갖게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오류를 초래한다. Herder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각각의 문화는 자신들의 견해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갖고 있으며; 문화의 힘으로 집단적 이상을 창조하고, 다른 문화의 기준과 규칙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기준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규칙에 의해서만이 각각의 문화는 진정으로 이해되고 평가될 수 있다: 불란서 철학자들은 그들이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회에 대해 거만하고 맹목적으로 기준을 제공하는 것 같고, 이 사람 혹은 저 사람, 이 문명(저 문명) 또는 이 시대(저 시대)를 칭찬하거나 비난하고; 어떤 것은 보편적인 모델이고 어떤 다른 것은 야만적이고 악하고 태워 없애야 한다고 했을때, 그들은 자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인다 (Berlin, 1976, p.22-23).

Herder는 문화의 다양성과 변화는 피할수 없을 뿐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인간 세상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는 “진리와 선은 영원하고 투명한 천구에 있어서는,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관념적인 형태가 아니라, 변화하는 것으로서 많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똑같이 경쟁적인 요구들과 목표들의 충돌은 피할 수 없으며, 합리적 해결은 불가능 하다. 그러기에 선택은 피할 수 없으면서, 또 고민스러운 것이다(Berlin, 1976, p.24). 다양성과 변화는 창조적인 과정의 일부이다.

이 두 철학자들(Vico와 Herder)은 인간 세상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틀을 제공해 주었다. 첫째, 그들은 방법으로부터 연구의 내용을 분리시켰다. 그들은 인간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제안한 도구는 환상(Fantasia)과 감정이입이다. 이런 것들은 관계를 맺고, 상상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독특한 인간의 능력이다. 그것들은 인간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구와 통합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관점들과 생활양식의 다양함을 자연적 현상으로 보려 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문화를 평가하기 위해 하나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 부족은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자기중심성, 문화적 수준에서는 자기 민족 중심성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양함은 문화의 독특한 역사와 생태학적인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며, 이런 관계를 제일 먼저 검사해 보아야 한다.

세번째, 그들은 표현 내용과 표현 양식을 구분한다. 비록 문화들 사이에 인간 경험의 다양성이 있더라도, 가장 큰 다양성은 내용이 명백해지는 방법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배고픔을 만족시키려는 욕구는 개인의 생존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많은 돈과 시간이 단지 사람들의 배고픔을 만족시키는데 사용되지 않고, 미각, 선물, 환경, 그리고 교제와 같은 심미적이고 사회적인 종류의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인간과 다른 모든 종(種)들의 성적인 각성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Hopson, 1979; Davidson, 1980). 이런 종들에게 있어 호르몬은 뇌와 생식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들은 예측가능하고 전형적인 형식으로 이끈다. Zimbardo(1985)는 “만약 당신이 한쌍의 쥐를 교미하는 동안에 보았다면, 당신은 그들의 모든 것을 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성적인 각성은 “성적인 도식”으로 통한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성적 반응의 도식을 배우는데, 그 도식은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또는 무엇과, 어떻게 그리고 왜하는가 하는 규정을 포함한다(Gagnon, 1977). 성적인 도식은 문화적인 표준들, 개인적인 기대들 그리고 개인의 과거 경험이 하나로 뭉쳐진 것이다. 경험의 해석, 특별한 성적인 사건들의 의미, 성적인 믿음들과 가치들, 상상력 그리고 기대는 성적인 도식의 부분들 이다(Byrne, 1981).

이런 다양함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행동이 일어나는 맥락

을 조사하여야 한다: 생태계 문화. 생태계란 인간이 다른 유기체들과 공유하는 자연환경이다. 문화는 “인간이 만든 환경의 부분이다”(Herskovits, 1948). 역사적으로 문화는 생태학적인 욕구들에 대한 집단적인 반응을 나타낸다(Berry et al, 1990). 그러나, 현대에 와서 문화는 생태학적인 요구들보다 더 중요한 지배적인 세력이 되었다.

생태학적인 수준

생태학이란 삶의 형태와 그들의 환경간의 전체적인 단계 모형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온, 습도, 토양상태 그리고 지형과 같은 기후적이고 자연적인 상태를 포함한다(Segall et al. 1990). 이런 기후적이고 자연적인 상태들은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과 식물들의 생존에 영향을 준다. 인류 역사초기에 있어서 가족, 족벌, 부족 그리고 공동체와 같은 개인들의 집단은 그들의 생태에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 발달하였다. 집단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은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음식 공급은 전적으로 그들의 생태학적인 장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문화들간의 다양성은 서로다른 생태학적인 압력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난다. 생태학적인 압력은 축적 가능한 음식물의 정도를 결정했다. 산이나 정글,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식량을 축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한 지역에서 더 이상 식량을 공급받을 수 없으면 그들은 새로운 식량자원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사냥꾼들이나 열매채집가들의 작은 집단이 최초의 문화적인 단위의 형태이다.

몇몇 이동하는 부족들은 토양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하고, 지형이 평평한 땅을 찾았다. 이런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울 수 있었다. 이런 경제형태들로 인해 사람들이 나중에 사용할 음식을 축적할 수 있었다. 농업의 효용성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땅에 의지하였다. 그들은 더이상 새로운 식량 자원을 찾아 이주할 필요가 없었다. 땅에서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자. 그들은 자신을 위한 안정된 식량 공급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런 사회 형태는 또 다른 문화적인 단위를 나타낸다.

이 두 공동체(유랑인, 정착인) 모두에서, 문화는 그 집단과 그 다음 세대가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적인 기제로 계속 작용해 왔다. 대부분의 생존 경제에서 생태학적인 요구와 인간의 중재 사이에는 깨지기 쉬운 균형이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생태학은 문화와 생존하는 개인들의 형태를 결정하도록 하는 압력과 같이 작용하여 왔다.

문화적인 수준

밀림, 산, 사막에 살면서 이주하는 부족들은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기술을 발달 시켰다. 자신들의 생태에 적응하기 위한 어른들의 행동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아이들에게 전수 되었던 것 같다.

문화적 전달에는 2가지 형태가 있다: 문화화와 사회화이다. 문화화는 아무런 가르침 없이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은 삼투현상과 비슷한 과정을 통하여 문화의 가치, 규준들을 받아들인다(Berry, Poortinga, Segall 그리고 Dasen, 1990). 그러나, 개인들의 쾌락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들로 인해 집단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생긴다.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바람직하게 만들기 위한 신중한 시도들이 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사회화이다(Berry et al, 1990). 이것은 바람직한 가치들, 기준들 그리고 기술들을 명백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문화화와 사회화는 두가지 형태로 행해지는데, 대체로 그들이 발생한 맥락에 의해서 구분된다: 가정 내에서의 사회화와 학교나 직장과 같은 공공기관에서의 사회화이다. 비록 각각의 환경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은 다르더라도, 일반적으로 가정에서의 사회화 목표와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에서의 사회화 목표는 일치한다. 문화화와 사회화의 목표는 일반적인 관점과 생산양식을 창조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때 이런 사회화된 측면은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Wirth(1946)는 “우리가 한 개인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이고,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은 논쟁할 것도 없이 일반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Barry, Child와 Bacon(1957)은 생존경제 생태학적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2가지의 광범위한 문화적 특징들을 발전시켰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정착하고 있는 공동체의 사회화에서는 순응, 복종 그리고 책임감이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반면에 이주하는 부족들에서는 단호함, 자율성, 성취심, 그리고 자신감이 강조되었다. 그들은 이런 특징들을 각각의 생태에서 적응적이고 기능적이라고 보았다. 정착하는 공동체들에 대해,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군중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상적인 방법을 고수함으로써 미래의 식량공급은 가장 확실하게 보인다. 농업은 아마도 똑같은 형태의 행동에 대해 더 적은 압력을 준다. 사회 규칙들은 성공적인 수확을 위해 식물들을 기르고, 다음 수확 때까지 저장된 생산품을 서서히 소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규정해준다. 고정

된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주의한 것은 부주의한 단 하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몇달 동안을 배고픔의 위협으로 이끈다. 어떤 개인이 기술 향상을 위한 시도를 처음으로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런 변화가 풍작을 가져올지, 재난이 되는 실패를 가져올지 즉시 이야기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장자나 현명한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관습에 의해 생긴 일상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은 이득을 가져다 준다(p.52).

반대로, 이주하는 부족들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

개인들이 고도의 기술들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이득을 주는 것 같아 보인다. 그날의 사냥으로 인해 매일매일의 음식을 얻는 곳에서 힘과 기술의 변화는 즉각적인 상이나 벌이 되는 음식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혁신은 일반적으로 두려운 것이 아닌 것 같다. 만약 유능한 사냥꾼이 기술을 변화시켰으나 이것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사냥감을 잡기위해 다시 원래의 과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만약 변화가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즉각적인 보상을 준다(p.52).

집단 수준

Barry와 다른사람들은(1957) 경제의 역할이 행동형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정확한 공동체에서 어른들은 성실하고, 순종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며, 이주하는 부족에서 어른들은 개인주의적이고, 단호하고, 모험적인 경향이 있다. 이런 특징들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사회화된다. 그것들은 각각의 생태에서 자신의 후손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필수적인 특징이다.

예를들어, 사냥하거나 식량채집하는 부족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그들은 사냥감과 과일을 발견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각각의 구성원은 자율성, 자신감 그리고 독립심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었고, 타인에게 도와달라고 의지할 수 없었다. 농업 공동체에서, 집단행동과 협동은 중요하다. 가족구성원들은 씨 뿌리는것 부터 수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들의 노력을 합치고, 함께 일해야 했다. 그러므로, 함께 일하는 능력이 이런 형태의 공동체에서 중요하다.

개인적인 수준

생태학적인 요구는 사회화 형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각과 인지 형태에도 영향을 준다. 인지적인 형태에 의하여 개인은 그 또는 그녀들이 지각하는 세상을 조직하고 해석하고 상호작용하여, 기능에 있어서 일괄적인 방식을 유지한다(Witkin와 Berry,

1975). 그것은 한쪽 끝은 장소-독립성, 다른 쪽 끝은 장소-의존적이라고 분류된 2차원적인 것이다. 장소-독립적인 인지 형태는 분석적이고, 개인 내부의 기준에 근거한 접근을 말하는 것이다. 장소-의존적 인지 형태란 더 전체적이고 외부 영역에 근거한 접근을 말하는 것이다. 인지 영역에서 장소-독립적인 사람은 사회적으로 자율성이 있고, 쌀쌀한 경향이 있는 반면에, 장소-의존적인 사람은 더 사회적 단서에 민감하고, 친밀한 사회적 관계들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발견되어 왔다(Berry, 1980).

이런 지식에 기초하여 Berry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다 :

생태학적인 요소에 관해서 보면, 사냥이나 수집 활동을 통해 자연 환경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우수한 재구성적 기술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이런 생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표시, 냄새, 음성들을 이런 맥락에서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더구나, 사냥, 수집과 관련된 유목정착 방식은 우수한 공간 감각을 필요로 한다. ...사냥감을 찾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숙영지로 다시 돌아오는 성공적인 사냥꾼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와 반대로 이런 기술들은 농사꾼에게 있어서는 가치를 지니는 것 같지 않다.

Berry(1966, 1976, 1979)는 그의 예언을 지지하는 일관된 자료를 발견했다. 집단적으로, 농민들은 장소-의존적이고, 사냥꾼은 장소-독립적인 경향이 있다.

사회적, 문화적인 변화

위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개인들과 각각의 문화들은 그들의 특별한 생태학적인 맥락에 적절한 기술들을 발달시켰다. 17세기부터, 생태학적인 맥락을 철저하게 바꾸기 시작한 인간의 간섭은 환경 상태들을 조정하고 결정함으로써 생태학적인 균형을 바꾸었다. 몇몇 요인들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 국제무역의 번성, 상인계급의 형성, 도시의 번영, 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달, 증대된 농업 효율성, 산업화와 도시화, 공동체들은 생존경제를 시장경제로 발전 시켜갔다.

인간의 간섭이 증대됨에 따라 생태학적인 영향력들을 조정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식탁에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농사를 직접 지을 필요가 없었으며,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 식량을 축적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광을 짓기 위하여 이웃의 도움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그대신 임금을 받기 위해 일했다. 그들은 번 돈으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사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돈은 자원들의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 매개적인 필수품 역할을 했다.

이런 변화들은 유럽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를 철저하게 변화시켰다. 국가의 출현과 농업 효용성의 증가로 인해, 많은 농노와 소작인이 농업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나오게 되었다. 그들은 다른 생계 방법을 찾기 위해 새로 형성된 도시들에 모여들었다. 이 사람들은 산업공장에 고용되었으며, 노동의 댓가로 임금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이런 일에 농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필요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지난 세대의 기술이나 지식들에 의존할 수 없었다. 노동자들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효용성이 큰 기계들을 작동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 일은 과학과 기술에서의 빠른 발달을 반영하는 새로 획득된 기술들을 포함하였다.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관계는 계약적인 것으로 지속적인 믿음과 복종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는 자신의 이득에 관심이 있었으며, 고용인의 복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많은 고용주들은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그들의 고용인들을 착취하였다.

농업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알았으며, 그들의 관계는 집단적인 통합과 인간적인 관계에 기초를 두었다. 도시는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타인들로 가득차 있었다. 이런 환경 아래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용주와 협력자들은 먼 곳에서 온 타인들인 것 같다. 그들은 때때로 혼잡한 슬럼가에 모여들었다.

이런 산업화와 도시화된 곳에서의 계약은 바로 그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일을 하고, 그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받는다. 이러한 관계들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만약 그들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적다면 그들은 실직을 한다. 각각의 개인은 그의 노동의 시장가치에 의해 임금을 받고 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 많은 노동자들, 심지어 어린이들 까지도 착취를 당한다. 그들은 이런 비참한 환경에서 장시간동안 일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이 자라난 이전의 공동체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농업공동체에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알았다: 가족들은 몇 세대 동안 같은 마을에서 살았으며 친구들이 함께 자랐다. 이런 사회에서 믿음, 협동 그리고 보수적인 경향성은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작업 환경과 작업 관계에 항의하기 위해 집단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집단 형태가 유럽에서 나타났다. 노동조합으로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은 조직화되었으며, 데모와 대결과 개혁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획득하였다. 많은 변화들이 제도화 되어, 현대화된 지역에서는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민주와 자유

를 주기 위해 관리를 선출했다.

이러한 집단 형태는 일반적인 이익과 경험과 목표들로부터 발전되었다. 유럽과 미국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즉, 추상적인 집단주의에 결부되고 “스스로 통제된 개인주의”에 대한 강조이다.

추상적인 집단주의

Hofstede(1980)는 50개국에 있는 IBM의 고용인 117,000명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설문 조사를 하여 산업화와 집단화의 정도를 발견했다. 개인주의가 매우 널리 퍼져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이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낮은 나라는 :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파키스탄, 페루, 대만, 태국, 홍콩 그리고 한국이다.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개인들을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들과 자신의 직접적인 핵가족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Hofstede, 1980). 집단적인 문화에서 개인은 “그들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는 친밀한 집단들을 하나 또는 여러개 구성하였다.” 집단은 구성원의 이익은 보호해 주었으며 그 댓가로 집단은 구성원들의 영원한 충성을 기대하였다.

Hui와 Triandis(1986)는 전 세계를 돌아 다니면서 모든 문화에 걸쳐 조사하여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그들은 6개의 뚜렷한 특징들을 발견 하였다. 다음의 목적을 위해서는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보다 더 좋아보인다 : 1)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2)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자원을 서로 나눈다. 3) 집단 내에서의 조화를 강조한다. 4) 부끄러움에 의해 통제된다. 5) 좋은 결과들과 나쁜결과들을 서로 공유한다. 6) 자신이 집단 생활의 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개인주의자들은 오직 그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핵가족들하고만 음식과 같은 것을 나눠 먹으려 하며 그들의 개인적인 목표를 집단 목표의 하위에 두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집단의 구성원들과 대결하려고 하며, 자신의 실패와 상공을 개인적인 책임으로 여기고, 그들 집단으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되어 떨어져 나오고자 한다.

유사하게, Bellah와 그의 동료들(1985)은 자신의 생활에 대해 말한 미국인 200명의 면접 내용을 보고하였다. 면접을 통해 그들은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가치들이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 1) 자신감, 독립심 그리고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종교 또는 공동체 ; 2) 쾌락, 유용성, 교환과 계약에 대한 강조 ; 3) 경쟁심,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 4) 형평, 공정성 ; 5) 타인에 대한 믿음 ; 6) 능력에 대한 강조 ; 7) 평등과 독단적인 권위에 대한 거부 ; 그리고 8) 현실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자기(自己) (Triandis et al, 1985).

그러나, 문화를 개인주의적, 또는 집단주의적이라고 인위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 각각의 문화안에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모두 존재한다. 개인은 집단과 독특한 관계들을 공유하는데, 그것은 개인이 그들의 생태와 맺게되는 관련성과는 비교되는 것이다. 각각의 문화에서 널리 퍼져 있는 개인과 집단주의의 형태는 광범위하게 변화된다.

미국과 한국등 여러나라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를 개인주의적 문화대 집단주의적 문화라고 범주화할 수 없다. 비록 몇몇 연구자들은 미국은 집단주의가 약한 개인주의의 국가라고 강력하게 주장 하지만, 이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미국에도 강력하게 널리 퍼져 있는 집단주의가 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집단주의는 추상적인 것으로, 다른 나라의 집단주의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의 집단주의는 앵글로 색슨의 신교도 가치와 믿음체계를 포함하며, 미국 사람들 특히 19세기의 미국 사람들의 삶을 통치했다(Chorover, 1980 ; Heller et al, 1984 ; McClell and, 1955 ; Ruggiero, 1979 ; Sampson, 1977 ; Samelson, 1978). 앵글로 색슨계 신교도들의 핵심적인 가치들은 기준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다른 모든 문화들과 개인들이 평가되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자연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믿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들(예를들어, 자유·민주·평등·정의)은 실제로 문화적인 것이다. 이것은 개념의 추상화된 내용을 이해하고 이런 가치들이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조사해 볼 때 진실이 된다.

20세기 초 남부유럽, 동부유럽, 아시아로부터의 이민이 증가되자, 문화적인 부조화가 생겼다. 앵글로 색슨 신교도들의 핵심적인 가치는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주민들이 동화되어야 하는 기준이나 목표의 역할을 하였다(Ruggiera, 1979 ; Chorover, 1980). 그리하여, 핵심적인 문화 요소는 추상화 되었고, 따라서 보편적이라고 주장되었다. IQ점사와 같은 “과학적인 도구”의 사용이 유행하게 되었다.

추상적인 집단주의는 한 수준에서 독특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을 필요로한다. 미국에서는 자제적인 개인주의가 가장 성행하는데 이것은 “확실한 자신-타인의 경계와 개인적 통제에 대한 강조를 연합한 것이다”라고 정의내려진다(p.16). Spence는 개인주의를 “개인들이 타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실체라는 믿음이다”라고 정의내렸다(p. 1288). 그것은 “피부로 느껴지는 자아와 비자아를 분명히 하고 섬세한 경계를 가진 자아감각”을 이끈다(p.1288). 미국에서는 개인들을 가족, 친척, 공동체와 같은 자연발생적인 관계들로부터 독립 하도록 고무시킨다(Bellah et al, 1985 ; Hsu, 1973 ; Maday & Szalay, 1976).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가족, 사회, 경제적인 집단을 형성한다. 미국에서 성숙은 자연발생적 집단으로부터 추상적인 집단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추상적인 집단주의는 핵심적인 가치들과 집단 존재의 의미가 현실로부터 추상되었을

때 존재한다. 따라서 핵심적인 가치들과 기능들은 저절로 명백하지는 않다. 이런 가치들을 보편적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한 백락이나 문화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일반적인 가치, 목표, 열망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이익집단을 형성한다. 이 공통된 가치체계는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의 발달에 근본이 된다. 집단을 굳건하게 설립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은 자신들을 연결해주고 이끌어주는 목표, 정책, 규칙, 법규들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이런 규칙들은 외관상으로는 합리적이고 보편주의적인 것 같아 보이나, 사실 그것들은 미국의 핵심적인 가치 체계를 나타낸다. 이런 형태의 집단들은 각각의 구성원들이 유사한 가치체계와 서약들을 공유할 때 형성될 수 있다.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집단은 토론할 것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수용되고 거의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자연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며, 결코 특정 집합체의 이익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그 구성원들은 독립적이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결정은 다수의 승인에 기초하여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원들은 개인의 재능과 수행에 의해 공평하게 분배된다. 집단을 대표하고, 불만을 중재하고, 재원이 공평하게 분배되는가를 감독하고,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표를 선출한다. 외관상으로 추상적인 집단주의는 이성적이고, 방법론적이며, 가치중립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각각의 구성원들은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핵심적인 가치체계를 태어나면서부터 받아들여 사회화된다.

추상적인 집단주의 내에도 다양성이 있다. 첫번째 범주는 유동적인 집단과 정적인 집단 사이의 차이이다. 공동의 목표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유동적인 집단을 형성한다. 이런 집단의 예로써는 임시 조직체, 이익집단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집단이 있다. 참가의 형태나 범위가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구성원에게 지속적인 충성심은 요구되지 않는다. 만약 구성원들의 요구나 이익을 만족시켜 준다면, 그 집단은 존속될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그 집단은 해체된다.

유동적인 집단의 두번째 형태는 계약에 의해 정의된다. 예를들어, 계약은 지적인 전문가(professional)와 요금을 받고 그들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specialist)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의사, 법률가, 계리사, 선생, 카운셀러, 교수는 그들의 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분야의 서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사하게, 노동과 경영도 그들의 관계가 계약에 의해 규정되는 집단적인 일이다.

이런 형태의 집단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집단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본적인 단위라고 여겨진다.

추상적인 집단주의의 두번째 범주는 정적인 공동체라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개인들의 자유, 민주, 정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론적으로 개인들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책임감 있고, 도덕적이고, 건전하고 이타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그들은 개인, 공동체, 공공기관들을 이기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법률과 규칙은 모든 시민의 권리와 공공기관 국가의 생존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정적인 집단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약 넘어서는 경우에 그 사람은 처벌받고 때때로 감금된다. 법률적인 조직체, 교정기관 그리고 군대는 정적인 집단의 예이다. 이런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법률에 의해 의무를 부여 받으며, 아무런 특권도 갖지 못한다.

때때로 유동적인 집단은 정적인 집단과 유사하다. 많은 이익집단들은 집단생존력과 구성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다. 만약에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집단 생존력을 유지하고 다른 집단들과의 경쟁에서 이긴다면, 그들은 자원과 서비스를 지배하게 된다. 경제세계에서는 이것을 독점이라고 부른다. 법률에서 이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경우에 독점은 정부나 공공의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된다.

이런 집단주의 형태는 자신의 목표들과 사회화 기제와 함께 자신들의 하위문화를 발달시킬 수 있다. 그들의 목표는 타인이나 거대한 공공체의 목표와는 서로 상치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공공체의 구성원들은 집단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된다. 곧 집단은 유동성을 상실한다.

비록 경제 영역에서 완전한 독점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서서비스 부분에서는 독점이 널리 퍼져 있다. 미국에서 법률과 의학 전문가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서비스의 완전한 독점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변화에 저항한다. 그들은 종종 고객을 희생시킴으로써, 그들 구성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런 전문가들은 반-정적인 집단을 대표한다.

식민지 팽창으로 인해 많은 문화들은 다른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지배를 당한 문화내에 존재한 집단들이 가장 먼저 파괴 된다(분열되거나 정복된다). 이런 집단의 파괴로 인해 반란을 일으키는데 한계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지배된 집단의 분열을 유지하는 또 다른 집단 형태에 의해 대치된다. 각각의 개인은 지배적인 가치 체계에 동화되도록 강요된다. 그리고, 그들은 지배 집단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진다. 동화된 개인들은 생존할 수 있는 집합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은 완전히 성공할 수 없다. 그들이 지원을 받을때, 그들은 지배적인 시각에

완전히 빠져들고 형상화되어, 지배 집단의 위기를 정당화하고 실증하는 경향이 있다. 지배적인 문화는 생존할 수 있는 집단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 집단이 추상적이고 도전하거나 파괴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이것은 가장 효과적이다.

관계의 문화

관계의 문화에서 차연히 형성된 관계는 개인의 태도, 가치,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들어, 홍콩에서는 집단을 유지하는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Leung와 Bond(1984)는 자신들의 실험에서 미국 사람들은 자신의 수행에 기초하여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좋아한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파트너보다 많은 일을 했다면, 더 많은 보수를 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홍콩 사람들은 그들이 집단 구성원보다 더 많은 일을 했더라도, 보수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이런 결과들을 두 문화에서 상호작용의 목표들이 다른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더 많은 생산과 큰 효용성을 위해 경쟁하고, 개인들은 그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홍콩에서는 생산효용보다 집단의 화합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홍콩사람들은 그들이 집단의 다른 구성원보다 더 많은 일을 했더라도, 집단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분배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Haruki와 Shigehisa(1983) 그리고 Haruki 등은(1984) 일본에서 비교할만한 결과들을 발견했다. 그들의 연구에서, 검사대상자들은 과업을 정확하게 수행한 경우에 보수를 받았다. 이런 보수들은 과제에 대한 학습을 증가시킨다. 일본의 실험대상자들은 다른 사람이 그들 대신에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똑같이 학습을 잘 한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그들 자신이 보수를 받는 경우에만 수행을 잘하고, 다른 사람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수행을 잘하지 못한다. 이 연구는 인간관계가 일본인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자기 인식 방법에 미치는 문화의 효과는 명백하다. Maday와 Szalay(1976)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 관계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자기 개념은 홀로 서 있는 사람이다. 그 또는 그녀가 성숙한 후에 그들의 가정에서의 위치는 완전히 부인되지는 않지만 약화된다.

그들은 연구에서 자기 개념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인들의 반응에서 그들은 미국인들이 친족보다 타인들의 신체적 모습과 감정 상태들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가족의 도움 없이 그들이 관계를 맺어야 하는 타인들로 둘러 쌓여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런 노력은 고독을 동반하며, 확실한 성공을 위해 한

조(team)를 이루어야 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고, 외모와 관련되어 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가족, 사랑, 이상, 성공, 물질적인 재산등을 중심으로 모인다. 이런 반응들은 한국인 연주대상자들은 그들 자신을 가족이라는 집단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기를 검사할 경우 가족이 중요하다.

그들은 한국인 미국인 모두가 그들의 인생에서 자신을 시험하지만 그 청중들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팔아야 한다. 그러므로 외모·상냥함·사회적인 행동을 중시한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가족, 친척관계에서 자신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성공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야망, 이상, 물질적인 재산이 중시된다.

Rohner와 Pettengill(1985)은 전세계의 부모와 아이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를 실시했다. 그들은 모든 인간사회에서 따뜻함과 통제는 부모의 중요한 두가지 측면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에서 청소년들은 엄격한 정신적 통제를 부모의 적대감, 공격, 불신, 그리고 거부라고 여긴다. 이런 관점은 미국의 부모들이 독립심과 자신감을 고무시킨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부모들은 청소년들이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경우 통제를 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통제는 따뜻하고, 조화로운 부모와 아이의 관계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결과는 정반대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통제를 따뜻함의 표시라고 여기며, 거부의 표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관여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과 일치한다. 자기 아이들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다른 집단적인 문화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에서는 자원을 나누고,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서로 돕는 경향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학문적, 경제적, 사회적인 성공에 있어서 부모의 관여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육 : 인문과학적 접근

다음에 제시되는 3가지 예는 자연 과학적 접근과 인문 과학적 접근의 차이에 강조를 둘 것이다. 3문화(하와이 토착민, 터어키인, 일본인)의 예는 인문과학적 접근의 장점을 입증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관련된 문화를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조사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북아메리카의 다른 토착문화처럼 하와이 원주민들은 식민지화를 경험했다. 식민지화

됨으로 인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능적 집단의 단위를 파괴시켰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생태적인 압력에 부응했고 생존 가능한 문화적 집합체를 만들었다. 그들의 문화 집단이 추상적인 집단으로 대치되었을 때 그들의 운명은 변화하였다. 그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을 조절하고, 자신의 뜻을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붕괴의 효과는 놀랍다. 하와이 원주민의 예상 수명은 미국의 다른 주(State)의 평균보다 6년이나 낮다. 유아의 사망률은 선천적 비정상과 체중 미달과 함께 하와이 주에서 가장 높았다. 그들은 니코틴, 알코올, 약물 중독의 비율이 높았다. 유아의 출생 합병증의 비율도 높았다. 그들은 사고로 죽을 확률이 높았으며, 어떤 병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은 더욱 더 컸다. 그들은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담과 같은 만성적인 병에 걸릴 위험이 높았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그들은 당에 걸린 후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다. 그들은 니코틴, 알코올, 약물등을 매우 많이 섭취했다. 그들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건강에 해로운 생활양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의료 봉사를 거의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은 건강교육, 검사, 상담에 거의 참가하지 않았다. 그들은 병이 매우 악화된 후에야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Medical Task Force, 1985).

비록 하와이 원주민이 그 나라 인구중 17%를 차지하지만, 1962년 그들은 재정적으로 궁핍한 가정의 30~40%; 체포된 청소년의 42%; 불법적인 태생의 51%; 이혼한 사람의 20%를 차지했고, 이런 상황은 1980년에도 변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하와이 원주민들은 우생학적으로 “위험한 아이들”이라고 여겼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배움을 통해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종종 비행을 저질렀다.

하와이 태생의 아이들은 다른인종이나 대다수의 미국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 그들의 학업 성적은 매우 저조했다. 일반적인 학교환경에서 하와이 아이들은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난폭하고, 파괴적이며, 학교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인식력과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하와이 토착민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 관념은 “게으르고, 아무런 쓸모도 없고, 무책임하고, 나태하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하와이 섬이 식민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냈다.

프톨레미의 세계관이 물질과학에서 몇세기 전에 이미 무시되어 졌더라도, 이것은 아직까지 사회과학에서는 지배적인 세계관이다. 자기 민족 중심적이고, 자신의 문화기준에 따라 남의 문화를 열등하다고 보는 경향이 널리 퍼졌다. 이렇게 했던 목적은 다른 문화를 그 문화적 관점에 따라 이해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

다른 문화를 평가하려는 데 있었다. 이로 인해 불평등과 부정의를 정당화시키고 이것은 사회과학의 역사에서 매우 자주 나타난다. 이런 관점은 비윤리적,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부분들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증명할 것이다.

다음의 예들은 분석 수준들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 한다. 교육성과, 경제적인 발전과 같은 가시적인 결과들을 사용해서 복잡한 자연과 문화의 의문을 풀어 볼 것이다. 그것은 한 가지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판단하는 함정(유혹)을 지적해 주는데, 특히 그 기준이 생물학적인 결정론에 관한 것일 경우 지적해 준다.

하와이 원주민의 교육 경험

하와이 태생의 학생들의 낮은 수행력과 높은 비행률은 문화 결손 모델과 문화 상반성 모델(Tharp & Gallimore, 1975)이라는 두 가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문화 결손모델은 하와이 원주민 아이들에게서 종종 문화적으로나 유전적으로 선천적인 결함이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그들에게는 결함이 있다. 그들은 적절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절될(fixed) 필요가 있다. 이런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보상 교육프로그램과 조기보완 교육(early enrichment program)이 만들어졌다(i. e, the Head Start Program). 이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이 자란 환경이 열악하고 따라서 그런 결손을 보상하기 위한 경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이런 아이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하였다. 하바드의 교육 심리학자인 Arthur Jensen(1969)은 그들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결론내렸다. 그는 정신적인 능력은 선천적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함은 그들의 환경에서가 아니라 유전자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문화 상반성 모델은 어떠한 결함도 가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강조하는 문화적 규준이 가정 환경에서 획득되는 문화적 규준(cultural norms)과 다르거나 양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Tharp & Gallimore, 1975). 아이나 문화의 선천적인 특징때문이 아니라 이런 양립 불가능한 상반성으로 인해 낮은 수행력과 높은 비행률을 초래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이 두 가설은 하와이 원주민들이 처음으로 유럽 사람과 만났을때 생겨났다.

역사적인 선례들

하와이 문화를 변화시킨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이다. 이들은 하와이

원래의 종교를 자신들의 종교로 대치시켰다.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하와이 토착민들은 자신의 뜻을 정확히 밝히고,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1820년 3월 30일 Hiram Bingham이 이끄는 선교사 가족들은 보스턴을 떠나, 하와이 섬에 도착했다(Daws, 1968). Bingham은 하와이 사람에 대해 “불공정, 간음, 사악함, 살해, 논쟁, 속임수, 악의..., 밀고자, 뒤에서 헐뜯는 사람, 신을 경멸하는 자, 악의 있는 사람, 자만심 있고, 허풍쟁이이며, 나쁜 짓을 하고, 부모님께 복종하지 않으며, 자연에 대해 사랑이 없고, 무자비하며, 자비롭지 않다.”고 생각해 미리 경계를 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죄로부터 그들을 구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하와이에 오게 되었다. 그들이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상상을 초월한 충격을 받았다. Bingham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머리, 발, 가무잡잡한 피부를 거의 다 드러낸 거의 알몸인 야만인들이 지껄여 대고 있었으며, 빈곤하고 퇴화되고 야만스런 외모는 섬뜩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인간이 되게 하소서!”라고 개탄했다(Daws, 1968, p.64).

그들을 교육시키고 개종시키기 위한 최초의 시도는 관심을 끌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호기심 없이 종교적인 의식에 참가했으며, 그들은 곧 “옷을 입는 것은 압박감을 주며, 글을 읽고 쓰기 위해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Bingham은 여성들이 집안일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반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몇 시간, 며칠 동안 열정적으로 홀라춤을 추는 것은 즐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와이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들에게는 가치와 참여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1778년 1월 18일 하와이 섬에 가장 먼저 도착한 James Cook 선장은 하와이 사람들에게 대해 좀더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이고, 따뜻하며, 친절하고 솔직하다”는 것을 발견했다(p.2). 그러나 그들은 “때때로 사람을 배반하고 믿을 수 없었다”(p.2).

초기 정착자들은 하와이 원주민들의 근면함과 숨씨에 놀랐다. 예를 들면, 19세기가 다 갈 무렵 Boyd라는 목수는 Kamehameha왕에게 방을 만들어 주기를 거절했는데, 그 이유를 “만일 원주민들이 모든 일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외국 상인이나 기술자들을 위한 장소가 섬 어디에도 존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Isacc David도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것을 원치 않았다(Daws, 1948).

그들의 노동 윤리 관점에서 Cook과 Vancouver 모두는 타로토란(taro)이라는 식물을 관개하기 시작하는 일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2년(1809~1810) 동안 Oahu에 살았던 Archibald Campbell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하와이 사람들은 그가 보았던 어느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고 그들의 작업 능력은 그들이 외국인에게서 배운것에 의해 검증되었고, 새로운 출구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하와이 사람들은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었다(p.49).

깊게 존재하는 편견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하와이 원주민 대부분을 개종시킬 수 있었고, 교육시킬 수 있었다. 하나의 중요한 성공은 Kaahumanu 왕비가 중병에 들어서 Bingham의 아내가 병간호를 했을때 일어났다. 회복된 후 왕비는 원주민들을 교육시키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녀의 노력에 의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고, 전 하와이의 주요 지역에 학교가 들어섰다. 모든 사람들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그 행사는 고유의 하와이 양식에 의해 행해진 것이었다.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합쳐지는 의식, 행사가 되었다.

학교의 시험이 다가오자 원주민들은 매우 열정적이어서 일주일 혹은 10일 동안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선교장소 주변에 모여서 그들의 성취를 증명하기 위한 순서를 기다렸다. 하와이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고, 장식하고, 공적인 수행을 하고, 즐거운 경험인 이런 시험을 그럭저럭 잘 해냈다. 교육과 신앙 안에서 20세기초의 위대한 홀라댄스 모임의 메아리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Daws, 1968, p.90).

Reuben Tinker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

만남의 장소에서 학교 시험을 알리기 위해 조개 나팔을 불었다. 약 20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는데, 어떤 사람은 상록 화관을 머리에서 발까지 둘러 쓰고, 토착 의상을 겹겹이 입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땅은 머리로 만든 긴 목걸이를 하고, 빨강, 노랑, 초록색 깃털로 만든 아름답고 비싼 화관을 쓰고, 칼리코와 실크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흥미를 갖고 행복해 하는 즐거운 행사이다... 왕과 신하들이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험을 받는다... 이때 선생님 중 한사람이 군인처럼 힘차게 소리지르면 모든 사람들이 똑바로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Bingham이 소리지른 사람에게 그들이 써야 할 문장을 제시해 주면 450개의 연필이 기름이 부족한 기계의 음향과 같은 소리를 내며 움직인다. 그들의 문장은 심사되며, 일반적으로 옳다는 것이 발견된다(p.90~91).

Kaahumanu왕비의 노력으로 선교사들은 하와이 원주민들의 교육 정도를 뉴잉글랜드의 주들과 비견될 만큼 그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향상시킬 수 있었다. 선교사들은 우연한 기회를 잘 활용함으로써 중요한 사회적 변화들을 이룩하였다. 비록 하와이 원주민 개개인을 개종시키려는 최초의 노력은 실패하였지만, 사회의 핵심 인물인 Kaahumanu왕비를 개종시킬 수는 있었다. 그녀는 존경과 신뢰를 받았

다. 따라서, 그녀는 새로운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장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왕비를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녀를 따랐다.

선교사들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도덕성 때문에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다. 1860년 섬을 방문한 Hork Twain은 선교사들에 대해 복합된 평가를 하였다. 그는 그들을 “편협하고 ; 엄격하고 ; 느리고 ; 모든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자연적인 습관에 무지하고 - 단, 그들의 직업에 남아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 50년정도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노력을 “신앙심 있고 ; 열심히 노력하고 ; 기도하고 ; 자기 희생적이고 ; 호의적이고 ; 사람들의 안녕과 신교의 중요성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p.161).

Haoles(백인 외국인)의 두번째 세대는 융통성이 별로 없었다. 비록 선교사들이 편협하긴 했지만 그들의 의도는 순수하게 그들을 문명화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죄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다음 세대는 별로 이타적이지 않았다. 선교사들, 기업가, 농장주, 정치가들의 자식들은 교육이나 개종보다는 이익과 권력에 관심이 있었다. 통치자로 지명된 Sanford Dole은 하와이 원주민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믿었다. 그는 이런 계층 즉, 무책임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믿었다(Daws, 1968, p.294).

이런 태도는 Kamehamehas왕의 계승자인 Bernice Pauahi공주가 1884년에 죽었을 때 단적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유언에서 섬 전체의 $\frac{1}{9}$ 에 해당하는 땅을 하와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데 사용하도록 남겨 놓았다. 소년, 소녀들의 학교가 이런 목적에서 세워졌고, 그것들은 Kamehameha School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녀의 남편인 Charles R. Bishop은 Bishop평의회 의장이 되었다.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William O. Smith, Charles Montagus Cooke, Charles McEwen Hyde, 그리고 Samuel Mills Damon)이 직위들을 갖게 되었다. 하와이 사람은 한 사람도 위원회에 임명되지 않았다. Daws(1968)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시 한번 좋은 의도를 가진 백인이 원주민들의 땅을 통치하고 하와이 사람들에게 하와이인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였다.”

Pauahi공주는 Kamehameha학교에 “일반적인 영어부분에서 기초적이고 중요한 교육과, 도덕적 가르침과, 사람들을 선하고 유용하게 만드는 유용한 지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 1911년 소년학교 교육위원회의 한 위원은 Kamehameha학교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고 기록했다.

상점으로부터 상인을 만들어 내는 것과 농장에서 일하는 방법을 아는 농경소년을 길러내는 데 있다. 훌륭한 상인과 농부가 되도록 교육시키려 하였다. Kamehameha학

교에서는 고등학교나 Oahu대학에 가기 위해 준비하려는 생각들이 좌절되었다(p.300~301).

무엇보다도 고등 교육을 받는 것은 하와이 원주민의 궁극적인 목표의 일부분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와이 원주민이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받고, 문명화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또한 위원회의 행동은 그들의 전문적인 관심조차 진실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하와이 원주민들은 기술자, 상인, 심지어 Castle & Cook, Bishop be Company와 같은 위원회가 소유하는 회사의 사무원 조차도 될 수 없었다(Daws, 1968).

그들은 업무수행을 잘 하리라고 기대되지 않았다. 구조적인 장벽이 이와 같은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생겼다. 선교사들에게서 받은 교육은 그것들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하와이 원주민의 문맹률이 학교가 생김에 따라 대체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한 시행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조직적인 활동 아래서 하와이 원주민이나 미국의 자유 시민은 그들의 섬에 있어서는 자비의 대상들일 뿐이다”(Daws, 1968, p.302).

현재의 상황

하와이 원주민 아이들의 낮은 성취나 태만한 행동은 단순히 능력부족 때문이 아니다. 또한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들의 공부가 저조한 것은 그들의 능력과 요구가 상반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년 동안의 일련의 연구에서 Tharp와 Gallimore(1976)는 경험적으로 문화 결손 가설을 반박하고 문화상반성 가설을 지지하였다.

그들은 하와이 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하는 것은 그들의 가정에서 강조되는 가치와 학교에서 강조되는 가치들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수행의 차이는 어떤 결손보다는 문화적 상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보급된 가치, 기준, 행동의 종류가 가정에서 강조된 것들과 상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이 낮은 출석률, 저조한 학업 수행, 파괴적인 교실에서의 행동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하와이 아이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기존의 믿음과는 상반되게 아이들이 매우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들은 요리하고, 청소하고, 그들의 동생을 돌봄으로써 가족의 생활에 참여하였다. 한 개인으로서 아이들이 일을 해야 할 때 그들은 술선해서 일을 했다. Tharp와 Gallimore는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은 집단을

형성하고, 자신은 그 일을 수행하는 단위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개인적인 창조와 책임감을 격려하고, 집단적 활동을 금지시킨다. 이것은 아동들의 저조한 학업 수행과 파괴적인 교실에서의 행동이 학교와 가정 사이의 상반성 때문이지 문화적 결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다.

이러한 기술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은 아이들 자신의 문화에서 강조하는 것과 유사한 가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교실환경을 만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Kamehameha Early Education Program(KEEP)이라고 불린다. 새롭게 만들어진 교실환경에서는 집단적인 창의력과 책임감이 강조된다 :

선생은 교실에 들어와 과제를 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그녀에게 협조하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관찰하는 것을 허락했고, 그들이 수행에 있어서 그녀를 관찰하는 것을 허락했다... 며칠이 지나서 약 여덟명의 아이들로 구성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 아침 일에 참가하기 위해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모였다. 몇주 내에 그 활동은 제도화되어 학급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참가하게 되었다. 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학업 과제 자체가 아이들에 의해 조직화되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학업 센터의 그날의 계획을 보고 나서 적당한 작업 용지와 교재, 과목 물품들을 정하고 그것들을 방 주위와 저장 상자에 분류해 놓는다. 이러한 아이들의 책임감 체계는 학교 생활에서의 청소까지 확장되었다(O'Donnell & Tharp, 1982, p.302).

관찰자들은 이러한 아이들에 의해 나타난 자부심과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느낀 관계와 소유 의식에 놀랐다. 유사한 조정(intervention)에 의해 그들은 확실하게 그들의 사회 언어와 인지 기술을 국가의 평균(미국의 평균)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Tharp & Gallimore, 1988 ; Tharp, 1989). 이러한 맥락에서 아이들은 더 이상 위험한 아이들로 간주되지 않는다.

KEEP 프로그램은 학교의 가치와 기준이 가정과 조화될 경우에만 아이들의 수행이 향상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해 왔다. 그들은 경험적으로 아이들이 특별한 문화에 의해 강조되고 전달되는 일련의 가치와 기준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 왔다. 그들은 특수한 사회생태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문화가 다른 가치들을 제공해 줄 때, 개인의 능력은 반대방향으로 영향을 받는다. 위의 예에서 하와이 원주민의 아이들은 본질적(유전적)으로 무능력하거나 파괴적이지 않다. 하지만 제공된 환경이 그들 원래의 기능방식을 가로막고 이국적인 기능방식을 강요한다.

KEEP 프로그램의 비극적인 면은 이 프로그램이 3학년까지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4학년부터 아이들은 정규적인 교실환경에 놓여진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그들은 두 환

경 간의 상반성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출석률은 낮아지고, 태만한 행동을 나타내며, 학업수행이 저하된다. 일년 내에 그들이 획득했던 어떤 이득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그들은 위험한 아이들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역사는 그 자체로 다시 한번 반복된다.

가정과 학교의 상반성이 지속되는 한 아이들이 체제내에서 생존하는 것은 어렵다. 그들은 가정에서의 압력과 사회요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 두환경들 사이의 간격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정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Cigdem Kagitcibasi와 동료들은 터어키에서 그러한 조정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교육 : 터어키인의 경험

Cigdem Kagitcibasi와 그녀의 동료들(1989)은 이스탄불에서 수입이 적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4년동안 장기적인 연구를 하였다. 하와이 원주민처럼 이런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며, 비행을 저지르고, 학문적인 면에서 우수하지 못하다. 그들은 3가지 이상의 결과를 밝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에서 초기에 실시한 보완 프로그램(Enrichment Program)이 그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문제가 가정과 환경에서 강조하는 가치들이 양립할 수 없다는 데 있음을 확인했다. 아이들은 인식력과 언어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간다. 그러나, 가정에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글을 읽고 쓰지 못하며, 아이들에게 정식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교육의 가치를 알지 못하며, 특히 그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기본적인 가치들과는 모순이 된다.

연구자들은 수입이 적은 지역의 어머니를 만나 그들을 기쁘게 하는 아이들의 행동에 관해 조사했었다. 그들은 애정적이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과 같이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였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행동의 약 80%가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반면에 아이들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머니들을 불쾌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환경을 창조하거나 유지할 힘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 어른들, 특히 어머니들은 환경을 만들고, 조절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특별한 가치나 기술들을 강조한다. 종종 가정에서 강조되는 가치, 기술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가치들과는 서로 상치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때때로 어느

환경에서는 강화를 받으며 획득한 행동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는 처벌을 받는다.

서구식 교육은 아이들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이 되도록 가르친다. 인식력과 언어기술들이 사회적 기술과 관계 기술보다 중시된다. 이러한 가치, 기술들은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기술을 강조하는 가정 환경과 직접적인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관계 지향성에 도전을 하거나 이것을 손상시킨다면, 학교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 되도록 받은 교육은 아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

Kagitcibasi와 그의 동료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보다 그 공동체의 어머니들에게 가정교육을 시키고, 집단토론을 시켰다. 토론에서 아이들이 애정적이고, 친밀하고, 타인을 돕고, 예민한 것과 같은 관계 지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덧붙여, 자율성, 독립심, 의사결정, 자신감같이 학교에서 중요시 하는 가치들은 어머니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가치들은 가정의 관계 중심적인 가치들과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들은 또한 어머니들에게 아이들이 배우게 될 교과과정(인식력, 언어기술)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 이것은 어머니들이 최초로 정식 교육과 접촉한 것이다.

4년간 연구를 하는 동안에 그들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태도를 평가 하였다. 그들은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어머니들이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훨씬 더 아이들의 자율적인 행동에 가치를 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적 이었던 것이다. 즉, 이런 어머니들은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밀접한 관계유지와 자율성의 중시는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이런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들의 학업 성적을 향상시키고 고등 교육을 받게 하려는 큰 열망을 갖게 되었다.

비록 아이들이 아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집중력, 인식력, 언어기술,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에서 뚜렷한 향상을 보였다. 아이들은 또한 자신감 있고, 자율적이 되었다. 아이들과 어머니들에게서의 이러한 변화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Kagitcibasi(1990)는 프로그램이 성공한 것은 문화적 접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접근은 맥락과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

보완 프로그램(enrichment program)은 인간의 친족관계에서 존재하는 구성체제와 어린이의 궁극적이고 전체적인 발달을 위해 인간의 친족관계를 강화하는 조직을 통해 도입된다. 이런 방식으로, 역사적 접근에서 전체적인 사회적 맥락을 통합하면

서, 초점이 개인으로부터 개인과 그들의 전체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옮겨간다. 격려(empowerment)모델보다 결점(deficiency)모델이 어머니들로 하여금 아이들의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깨닫도록하는 연구에 사용되어졌다. 역시 두 연구 모두에서 비직업적인 가정방문가, 집단토의, 국부적인 상호작용가, 의사소통자들이 어머니들에게 더 많은 후원을 제공하기 위해 가족적이고 사회적인 유대감을 이용하였다(p.137).

3번째 예 : 일본인의 경험

20세기가 바뀔 무렵 아시아계 미국인은 대체로 “유전적으로 열등하다”고 보여졌으며, “황색 위험”이라고 명명되었었다(Chorover, 1980 ; H.C. Kim, 1989). Vernon (1982)은 그들을 “단순한 노동과 천한일이나 종사하고, 백인사회에 평등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종(種)의 하나.”라고 간주하였다. 그들은 큰 고난과 적대감, 인종차별에 직면하게 되었다. 1924년 동양인 배척(Oriental Exclusion)이민법은 아시아 이주민이 미국으로 오는 것을 금하였다. 이 법안은 “유전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이 미국을 오염시키고 국제적으로 퇴보시킬 것같은 두려움 때문에 채택되었다(Chorover, 1980).

하지만 현재 이러한 차이점들은 그 반대가 되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모범 소수민족으로 인식되고 명명되었다. 그들의 경제적, 교육적 성취가 부분적으로 그들의 유전적 우월성의 탓으로 돌려지게 되었다. 그들은 다수의 백인들보다 교육면에서나 직업면에서나 모두 더 높은 수준의 성취자로 여겨졌다. 일본계 미국인과 함께 일본의 아이들을 미국 아이들과 비교하였을 때 수학과 과학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보인다. 60년 만에 유전적으로 열등한 인종이 갑자기 우수한 인종이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결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민족 중심주의와 단순한 사회생물학적인 관점을 버리고 먼저, 일본 문화에 대해 기술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자. 일본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의 표준화된 시험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런 차이는 어린 아이에게 나타난다.

Stevenson과 동료들은 이런 차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수학 시험을 만들었다. 두 나라의 수학 교재를 분석하여, 1학년과 5학년의 표준화된 수학시험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두 나라에서 비교될 수 있는 아이들의 표본을 뽑았다. 1학년에 240명, 5학년에 240명을 뽑았다.

예측한대로 두 학년 모두에서 일본아이들이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5학년에 더 크게 나타났다. 그들은 “5학년에 미국의 가장 높은 점수 평균

이 일본의 가장 낮은 점수 평균보다 더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수많은 설명을 할 수 있다. 첫째, 문화적 차이보다는 각 나라의 특성 즉 교과과정 같은 차이때문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이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1학년에서도 점수의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1학년 1학기에 시험을 보았고, 그 기간에 교육을 받지 않았었다. 심지어 똑같은 내용을 1학년에게 가르쳤을 때에도 일본 학생이 여전히 더 좋은 점수를 땀다.

두번째 가능성은 일본의 선생님들이 미국의 선생님들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을 소유하고 많은 경험을 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옳은 설명이 아니다. 두 나라 선생님들간에 차이는 없었다.

세번째 가능한 이유는 부모의 교육 정도이다. 일본 부모가 미국 부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였다. 미국 부모의 교육 수준이 더 높았다.

Veron(1982)의 가정에 의하면 일본학생들이 단순히 더 총명할 수도 있다. 결과와는 반대로 미국 아이들이 지능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따라서 “유전적 우월성” 가설은 반박되었다.

하지만 수학과제에 소비된 시간의 양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미국 학생들에 비교해 일본 학생들은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수학과제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그들의 숙제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수학과제에 몰두하는 시간의 양에 더하여 일본 학생들은 미국 학생보다 더 집단 활동에 참여하고, 더 주의 깊고, 더 적절한 행동을 한다.

Stevenson 등(1986)은 부모의 기여도가 일본 학생이 미국 학생보다 수학에서 우수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인 것 같다고 결론지었다. 일본 문화의 사회화 과정이 어린이들의 학교에서의 공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 다시말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그들의 공부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가치의 종류를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가정에서의 사회화

일본 문화의 사회화 관례는 Azuma(1986), Befu(1986), Hessel(1986), Kojima(1986), White & Levine(1986), Yamamura(1986)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부분은 이러한 논문의 요약이다.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을때 일본의 엄마는 그녀의 자식과의 거리를 최소화시키려 하며, 가능하면 그 아이를 만족시켜 주려고 노력한다. 그러는 아이가 안전감을 느끼도

록 해주며, 그녀와 아이사이의 간격을 최소화 하고, 아이의 모든 욕구들을 알기 위해 가능하면 아이와 거리를 가깝게 한다. 그러한 것은 그녀 자신의 막대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화는 상호 신뢰의 유대를 생성하는 것이다(일본에서는 amae라고 부른다). 엄마의 몰두와 관대함은 아이에게 강한 신뢰감을 갖게 해준다. 동시에 아이는 엄마를 통해 만족, 안전, 사랑을 얻어야 한다는 감정을 갖게 된다. 아이는 점차로 무엇이 엄마를 즐겁게 하는것인지 알게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Doi(1985)는 amae란 “만족의 기대와 함께 의존하려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아이는 심지어 포악한 것이라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는 돌보는 사람의 욕망과 감정에 예민하다.

아이는 점차로 삼투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엄마의 가치를 배우고 동일시하게 된다. 신체적, 심리적으로 밀접한 접촉을 유지함으로써 아이는 엄마와 동일시 하는 것을 배우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상호 신뢰의 감정으로 인해 아이들이 엄마의 희망과 가치에 동화된다. 그리고 amae관계를 통해 아이는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는 엄마의 욕망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다. 엄마의 가치, 열망과의 동일시는 그들 사이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아이들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로 엄마로부터 분리되거나, 분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심리적, 신체적 거리를 이용하여 아이들의 행동을 형성하거나 수정한다. 엄마는 자신들의 헌신과 관대를 통해 아이들을 통제한다.

대조적으로 미국의 엄마는 개인주의와 독립심을 강조한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자율적이며, 그들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도록 고무시킨다. 전형적으로 엄마는 아이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그 거리는 형식적인 권위를 적용하는데 사용된다. 엄마는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와 약간의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일본 아동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는 그러한 동일시와 복종심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다른 가정, 친척, 선생님과 같은 다른 사람들과 회사 같은 더 큰 사회집단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어머니는 아이의 성인생활에 대비한 준비를 해주고, 가정과 외부환경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해야 한다. 어머니는 점차적으로 자기 아이에게 사회적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이런 목표를 달성한다.

Sunao의 개념은 일본 아이들의 사회화에서 강조된다. 그것은 “순응”, “복종”, 그리고 “협동”으로 번역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개방된 마음, 무저항, 진실, 확실한 의지, 정신적 협동등을 함축하기도 한다. 이것은 아이가 협동하기 위해 그의 자율적인 면을 포기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서구와 같이 협동은 반드시 자기의 소

망을 희생시킨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집단적으로 조화롭게 함께 일하는 것이 자기자신을 나타내고,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아동의 발달 이론에 의하면, 아이들은 자기 충족의 목표와 사회적 통합의 목표를 합치려고 align(협력)하고자 한다.

서로 협력하려는 욕구가 일본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이입, 수용 혹은 개방된 마음을 의미하는 yutaka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상호간의 감정과 타인의 욕구를 고려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비록 그것이 서양인의 귀에는 수동적이고 여성적인 것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음으로부터의 확신, 풍부하게 주고받음, 사회적 관계를 충분히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간 관계에서 조화를 유지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ningen-rashii(“인간-좋아함”의 의미)은 아이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특징이다.

조화로운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욕구를 넘어서 개인적인 유능함도 중요하다. 일본의 교육체제에는 성취를 위해 경쟁하도록 하는 상황이 있다. 소수의 학생만이 명성이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이런 대학을 졸업하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 받게 되며, 이것은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이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은 일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일상적인 말이다. 그것은 밤에 5시간 잔다면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투의 노력은 끈질김, 고난, 참을성, 최대한의 자기 노력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일본 단어들에는 영어번역이 적절하게 묘사할 수 없는 매우 긍정적인 본래의 가치가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일본 학생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숙제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Lebra(1976)는 문장완결 과제에 대한 조사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본인 반응자의 70%이상은 성공이 근면, 노력, 참을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유사하게, Hess와 동료들(1986)은 일본 어머니들은 그들 자녀의 저조한 성적을 노력 부족때문이라고 여긴다는 것을 알았다. 이와 비교해 볼때 미국 어머니들은 저조한 성적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서의 훈련에 돌리려 한다. 마찬가지로, 일본 아이들도 미국 아이들보다 성공적인 공부에 있어서 노력에 많은 비중을 둔다. 일본 아이들에게는 경쟁이 외적으로 지향된 것이라기 보다는 내면적으로 지향된 것이다. 외적인 경쟁보다는 내면적인 추구에 의해 사회적인 조화가 유지된다.

공부에서의 뛰어난 것은 개인적인 능력의 증거로서 뿐만 아니라, 그 집단의 결함과 기여의 방식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아이들이 도덕적 성격을 인내와 끈질김을 통해 발달시킨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우수한 공부는 중요하지만, 그것은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한

능력들 중에 하나의 가치적인 증거일 뿐이다. 대조적으로 White와 Levine(1986)은 미국인들은 독립심과 같은 매우 개인적인 기술과 특성들을 보다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 능력을 보다 더 추상적인 것으로 혹은 목적이라기 보다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환경

일본 학교의 전형적인 분위기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보호와 만족감 뿐만아니라,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우수해지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압박감과 집단내에서 협동해야 하는 압력들을 재확인하고 있다. 선생님에게로 옮겨진 amae관계 때문에 학생들은 가능한 한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일본 학생들은 더 주의 깊고, 부적절한 행동을 덜 하여, 미국 학생들보다 공부와 숙제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연구자들은 비록 일본 학급의 크기가 미국의 학급 크기 보다 크더라도 이런 이유때문에, 일본 선생님들이 더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White와 Levine(1986)은 일본에서는 미국에서보다 가정에서 강조하는 가치들과 학교에서 배우는 가치들 간에 더 많은 일치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일치로 인해 아이들의 성격, 능력 그리고 가치들의 발달에 있어서 갈등과 모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명백하게, 일본 아이들의 목표는 우리들의 목표보다 학교 환경에서 더 쉽게 획득되어 진다. 우리의 목표들과 이상들은 문화적인 환경과 관계 없이 아이들 발달의 현실과 갈등을 일으킨다. 더우기 미국에서는 학교가 아동 발달에 관한 우리의 관념들과 아이들에게 가치 있는 실제적인 특질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p.61).

이런 학교와 가정 사이의 가치들의 일치로 인해 일본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학교에서 더 공부를 잘한다.

작업 환경

가정과 외부 환경에서 강조되는 가치들 사이의 일치는 작업 환경에도 적용된다. Misumi(1985)는 일본 기업들은 놀랄만한 경제적 성장과 질 좋은 생산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 문화적 가치들을 통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

면 우수한 업적과 개인들 간의 조화 모두를 중요시하는 지도자들과 집단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조들은 각각 그들의 사회화 경험과 교육 경험에 해당한다.

1960년대 초반, Jyuji Misumi와 그의 동료들은 생산력을 최대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특질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프로그램(field research program)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한 집단이 2가지 기능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하나는 목표 획득과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의 단결과 조화와 관련된 것이다. 그들은 집단 환경에서 강조되는 특별한 지도자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지를 만들었다.

가장 먼저 Chuko Kogyo 석탄광업회사(Coal Mining Company)를 대상으로 현장 연구를 하였다. 광부들은 같은 채굴장에서 3개조가 3교대로 일하도록 조직되었다. 각각의 집단에는 감독이 있었다. 그 일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들은 어떤 집단은 매우 생산적인데 반해, 다른 집단들은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권위주의적인(patriarchical) 한 사람 또는 규칙의 지도가 탄광에서의 생산력을 증대시킨다고 생각했다. 지도자들이 일방적으로 그들의 부하들에게 명령하고 지도해주며, 부하들은 이런 명령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대였다. 놀랍게도 그들은 생산성만을 강조하고, 권위주의적인 지도력 양식을 사용한 지도자들이 가장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생산성과 집단 결속을 모두 강조한 지도자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런 결과들을 기업 행정부에 알려주었다. 경영진은 작업장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과 타인을 동일시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도록 고무시키기 위해 소규모 집단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 석탄차를 타기 직전에 6에서 8명의 노동자들은 소규모의 모임을 가졌다. 심지어 분과의 장(長)들, 소집단의 장(長)들, 공장지배인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다. 이러한 과정들은 생산성과 기업의 사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두번째 연구는 Nishitetsu 철도회사(Railway Company)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버스운전사를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이 회사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버스를 소유했다. 1960년대 초반에 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사고들은 너무 빨리달리는 운전사의 실수 때문이었다. Misumi와 그의 동료들은 사고를 내는 경향이 있는 운전사들을 약 10명 정도로 이루어진 소집단에서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경험한 좌절이나 불만등을 표현해야 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자신이 이행하기로 계획한 안전 운전 습관들에 대해 종이에 쓰도록 했는데, 그 종이는 자신이 갖는 것이

었다. 10달 후에 사고는 평균 70%에서 14%로 극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이 연구가 있는 후에 Nishitetsu는 안전운전운동(Safety in Transportation Campaign)이라는 소규모 집단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사고 방지와 안전-운전 습관들에 초점을 맞추어 소규모의 집단 모임을 만들었다. 게다가 지도자들은 지도력 형태의 2가지 차원에 대해 부하들의 평가를 받았다. 이런 정보를 지도자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행동을 바꾸어 예민해지도록 했다. 모든 버스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비록 버스 운전사들이 운전해야 할 거리, 가동중인 버스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통량이 증가하였지만, 실제적인 사고율은 집단 결정과정이 실행되기 전 사고율의 $\frac{1}{10}$ 이하로 감소되었다.

Misumi와 그의 동료는 Nagasaki 조선소와 Hiroshima에 있는 조선소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집단 활동들과 비슷한 연구 과제를 도입하였다. 그들은 소규모 집단 활동들이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로 도깨비 불처럼 퍼졌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작업장에서의 소규모 집단활동이 일본 경제 성장의 추진력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기업들은 가정에서의 사회화 관습들과 교육 경험이 조화를 이루는(일치되는) 경영 형태를 발달시켰기 때문에, 국제적인 시장에서 경쟁하여 대단한 성공을 이룩할 수 있었다.

요약과 결론

사회 과학 전습의 목표는 지식을 그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경험할 지식들을 나타내는 데 있다. 사회과학 접근에서 중요한 단계는 그들의 문화적 맥락 안에 존재하는 심리적인 현상들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비록 개인들이 다양한 자극에 접하는 복잡한 세상에 있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을 아무렇게나 취급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관점에서 본 세상은 모든 상황들에서 의미있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집단과 문화마다 집단적으로 그들의 환경을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한 전략들이 발달되었다. 특별한 문화 내에 살고 있는 개인들은 이러한 복잡한 환경을 다루기 위해 그들 자신을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분석 단위에 개인적인 능력과 집단적인 능력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실험 설계에 의미와 맥락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실험 과정에서 파괴될 필요도 없고, 파괴될 수도 없다.

청소년들을 위한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문화와 그 안에 포함된 구성원을 이해해야 한다. 문화, 집단 그리고 구성원 개개인의

들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 특히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은 비과학적일 뿐 아니라 위험스럽기조차 하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소위 “식민주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인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 어떤 과학적인 기준도 단지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아직 인간 세상을 세밀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술하지 못한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인간에 대한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심리학적 기술과 사회학적 기술의 대부분이 한계에 접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간복지에 위험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간 특성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인간 특성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을 배제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 심리학 연구들에서 우리는 많은 인간 특성들을 그들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배제해온 것이 사실이다. 흔히 보편주의자들은 가족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바로 집단간 갈등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신에 그들은 자유, 평등 및 정의 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가 됨을 느끼고 있으나 나는 오히려 집단적 충성심과 집단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인 협조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상은 자신과 타인과의 유대를 공고하게 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자연스런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단지 생존할 수 있는 집단성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생성력 있는 집단성 없이는 세계적인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청소년을 위한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우선 우리 문화에 있는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차이를 평가하고 이해함으로써 이것이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맥락 안에서 우리의 삶과 청소년을 이해하는 것은 전체적인 협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번째 단계이다. 내적인 조화, 가족 간의 유대감, 공동체 의식, 문화적인 신념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는 확실하게 전체적인 관계들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들을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참 고 문 헌

- Adair, J. G. (1973). *The Human Subject*. Boston: Little, Brown & Co.
- Allport, G. (1968). Historical background of modern social psychology. In G. Lindzey, &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ume 1*. Reading, MA: Addison-Wesley.
- Azuma, H. (1986). Why study child development in Japan. In H. Stevenson, H. Azuma, & K. Hakuta (Eds.),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Japan*. New York: W. H. Freeman.
- Becker, H. S. (1963). *The Outsiders*. New York: Free Press.
- Befu, H. (1986).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child development in Japan and in the United States. In H. Stevenson, H. Azuma, & K. Hakuta (Eds.),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Japan*. New York: W. H. Freeman.
- Bellah, R. N. et al., (1985).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New York: Harper and Row.
- Beloff, J. (1973). *Psychological Sciences: A Review of Modern Psychology*. London: Crosby Lockwood Staples.
- Berlin, I. (1976). *Vico and Herder: Two Studies in the History of Ideas*. New York: Viking.
- Berry, J. W. (1979). Culture and cognitive style. In A. J. Marsella, R. G. Tharp, & T. J. Cebrowski (Eds.), *Perspectives on Cross-Cultural Psychology*. New York: Academic.
- Berry, J. W. (1976). *Human Ecology and Cognitive Style: Comparative Studies in Cultur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New York: Wiley.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1990). *Human behavior in global perspective: An introduction to cross-cultural psychology*. New York: Pergamon.
- Boring, E. G. (1921/1950). *A History of Experiment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oulding, K. (1980). Science: Our common heritage. *Science*, 207, 831-826.
- Boyd, R., Richerson, P. J. (1985). *Culture and the Evolutionary Proc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Bridgeman, P. W. (1927). *Logic of Modern Physics*. New York: Macmillan.
- Brown, R. (1986). *Social Psychology, Second Edition*. New York: Free Press.
- Burke, J. (1985). *The Day the Universe Changed*. Boston: Little, Brown & Co.
- Cattell, J. M. (1904-1905). The conceptions and methods of psychology. *Popular Science Monthly*, 66, 176-186.
- Chorover, S. L. (1980). *From Genesis to Genocide: The Meaning of Human Nature*

- and Power of Behavioral Control*. Cambridge, MA: MIT Press.
- Crissman, P. (1944). Are psychological data and methods subjective? *Psychological Review*, **52**, 281-284.
- Cronbach, L. J. (1975). The two disciplines of scientific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30**, 671-684.
- Danziger, K. (1979). Social origins of modern psychology. In A.R. Buss (Ed.), *Psychology in Social Context*. New York: Irvington.
- Davidson, J. M. (1980). The Psychobiology of sexual experience. In J.M. Davidson & R. J. Davidson (Eds.), *The Psychology of Consciousness*, 271-331. New York; Plenum.
- Daws, G. (1968). *Shoal of Time: A History of Hawaiian Islands*. Honolulu: Univesity of Hawaii.
- Doi, T. (1985). *The Anatomy of Self: The individual Versus Society*. Tokyo: Kodan-sha International.
- Gagnon, J. H. (1977). *Human sexualities*. Glenview, IL. Scott, Foresman.
- Gbson, J. J. (1979).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Haruki, Y., & Shigehisa, T. (1983). Experimental analyses of the types of reinforcem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social behavior theory. *Waseda Psychological Report, Special Issue*, 63-93.
- Haruki, Y., et al., (1984). Effects of alien reinforcement and its combined type of learning behavior and efficacy in relation to person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9**, 527-545.
- Hess, R et al., (1986). Family influences on school readiness and achievement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 overview of a longitudinal study. In H. Stevenson, H. Azuma, & K. Hakuta (Eds.),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Japan*. New York; W. H. Freeman.
- Hui, C. H., & Triandis, H. C. (1986).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c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225-248.
- Ho, D. Y. F. (1982), Asian concepts in behavioral science. *Psychologia*, **25**, 228-235.
- Hofsteds, G. (1980). *Culture's cosequence;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ey Hill, CA: Sage.
- Holten, G. (1973). *Thematic Orgins of Scientific Thought: From Kepler to Kinstei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Hopson, J. L. (1979). *Scent signals: The silent language of sex*. New York: Morrow.
- Hsu, F. S. L. (1973). Prejudice and intellectual effect in American anthropology. *American Anthropologist*, **75**, 1-19.
- Hui, C. H., & Triandis, H. C. (1986).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225-248.

- James, W.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2 vol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Kagitcibasi, C. (1990). Family and Home-Based Interventions. In R. W. Brislin (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Newbury Park, CA: Sage.
- Kagitcibasi, C., Sunar, D., & Bekman, S. (1989). *Preschool Education Projects*. Ottawa: IDRC Final Report.
- Kamin, L. J. (1974). *The Science and Politics of I.O.* New York: Lawrence Erlbaum.
- Kemle, E. C. (1966). *Physical Science: Its Structure and Developments*. Cambridge, MA: MIT Press.
- Kim, H. C. (1989). *Annotated Bibliography of Asian-American Experience*. Greenwood Press.
- Koch, S. (1985). Forward: Wundt's creature at age zero—and as Centenarian: Some aspect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New Psychology." In S. Koch, & D. E. Leary (Eds.), *A Century of Psychology as Science*. New York: McGraw Hill.
- Koch, S., Leary, D. E. (1985). Introduction. In S. Koch, & D. E. Leary (Eds.), *A Century of Psychology as Science*. New York: McGraw Hill.
- Koch, S. (1969). Psychology cannot be a coherent science. *Psychology Today*, **16**, 61-67.
- Kojima, H. (1986). Child rearing concepts as a belief-value system of the society and the individual. In H. Stevenson, H. Azuma, & K. Hakuta (Eds.),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Japan*. New York: W. H. Freeman.
- Lachenmeyer, C. W. (1970). Experimentation — a misunderstood methodology in psychological and social-psychological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25**, 617-624.
- Lebra, T. (1976). *The Japanese Patterns of Behavio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 Lenzer, M. (1974). *August Comte and Positivism: The Essential Writings*. New York: Harper & Row.
- Leung, K., & Bond, M. H. (1984). The impact of cultural collectivism on reward alloc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Social Psychology*, **44**, 789-804.
- Locke, J. (1690).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 Maday, B., & Szalay, L. B. (1976). Psychological correlates of family socia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n T. Williams (Ed.), *Psychological Anthropology*. Hague: Mouton.
- March, P., Rosser, E., & Harre, R. (1978). *The Rules of Disorder*. London: Routledge & Keagan Paul.
- Martin, C. L., & Halverson, C. F. (1981). A Schematic processing model of sex typing and stereotyping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1119-1134.
- Masters, J. C. (1981). Developmental psycholog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2**, 117-151.
- Merz, J. T. (1904/1965). *A History of European Thought in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Mill, J. S. (1843/1862). *A System of Logic*. London: Parker, Son & Bourn.
- Miller, G. (1985). The constitutive problem of psychology. In S. Koch, & D. E. Leary (Eds.), *A Century of Psychology as Science*. New York: McGraw Hill.
- Misumi, J. (1985). *The Behavioral Science of Leadership*.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 Murray, J. D. (1983). *A History of Western Psychology*. Englewood Cliffe, NJ: Prentice-Hall.
- O'Donnell, C. R., & Tharp, R. G. (1982). Community intervention and the use of multidisciplinary knowledge. In A. S. Bellack, M. Hersen, & A. E. Kazin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Behavior Modification and Therapy*, New York; Plenum.
- Papitone, A. (1981). Lesson from the history of social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36**, 972-985.
- Pettengill, S. M. & Rohner, R. P. (1986). Korean-American adolescents' Perceptions of control, Parental-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Adolescent Conflict. In I. R. Lagunes, & Y. H. Poortinga (Ed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Studies of Behavior Across Cultures*. Lisse; Swet & Zeitlinger.
- Poincare; H. (1952). *Science and Hypothesis*. New York: Dover.
- Polanyi, M. (1968). Logic and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23**, 218-225.
- Pollner, M. (1974). Sociological and common-sense models of the labelling process. In R. Turner (ed.), *Ethnomethodology*, New York; Harmondsworth.
- Ribot, T. A. (1879/1886). *Psychologie allemande contemporaine* (German Psychology Today). Translated by J. M. Baldwin. New York; Scribner's.
- Roeder, K. D. (1965). Introduction to N. Tinbergen, *Animal Behavior*. New York; Time-Life Books.
-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Rosenthal, R., & Rubin, D. I. (1978). Interpersonal expectancy effects: The first 345 studies. *Th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 377-415.
- Ruggiero, J. A. (1979). Research on social class and intolerance in the context of American history and ideology. *Journal of the History of Behavioral Sciences*, **14**, 166-176.
- Samelson, F. J. (1979). From "race psychology" to "studies in prejudice;" some observations on the thematic reversal in social psychology. *Journal of the History of Behavioral Sciences*, **14**, 265-782.
- Stevenson, H. et al., (1986), Achievements in mathematics. In H. Stevenson, H. Azuma, & K. Hakuta (Eds.),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Japan*, New York: W. H. Freeman.
- Tharp, R. G., & Gallimore, R. (1979). The ecology of program research and develop-

- ment; A model for evaluation succession. In L. Sechrist and associates (Eds.), *Evaluation Studies Review Annual, Vol 4*. Beverly Hills, CA: Sage.
- Tharp, R. G., & Gallimore, R. (1988). *Rousing Minds to Life: Teaching, Learning and Schooling in Social Contex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rndike, E. E. (1911). *Elements of Psychology, Second Edition*. New York; A. G. Seiler.
- Tinbergen, N. (1965). *Animal Behavior*. New York; Time-Life Books.
- Tyler, F. B. (1970). Shaping of the science. *American Psychologist*, **25**, 219-226.
- Watson, J. B. (1913). Psychology as the behaviorist views it. *Psychological Bulletin*, **20**, 158-177.
- White, M. I., & LeVine, R. C. (1986). What is an Li Ko (good child)? In H. Stevenson, H. Azuma, & K. Hakuta (Eds.),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Japan*. New York; W. H. Freeman.
- Wirth, L. (1946). Preface to K. Manheim, *Ideology and Utopia: An Introduction to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 Witkin, H. A., & Berry, J. W. (1975). Psychological differentiation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6**, 4-87.
- Vernon, P. E. (1982). *The Abilities and Achievements of Orientals in North America*. New York: Academic.
- Vygotsky, L.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Yamamura, Y. (1986). The child in Japanese society. In H. Stevenson, H. Azuma, & K. Hakuta (Eds.),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Japan*, New York; W. H. Freeman.

토론 : 청소년들의 건강생활과 스포츠활동의 중요성

트루(Elmar Truu)*

나의 청소년문화 보고서에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에스토니아 공화국 청소년들의 건강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체육활동에 관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건강과 원만한 성장을 위하여 체육과 스포츠활동의 중요성에 관하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다. 그래서 규칙이나 규정에는 여러곳에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스포츠활동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많은 토론이 있어 왔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한 노력이 실현되지는 못하였고, 후세인 청소년들의 생활에는 향상을 보지 못하였다.

조사연구 자료를 보면 청소년들의 건강은 매년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령전 아동의 15%는 만성적 질병을 가지고 있고, 11세가 되면 32%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건강이 나빠지며, 15세에 이르러서는 47%, 그리고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는 17-8세에는 50-53%에 달하게 된다(자료 : 1988년 11월 22일 일간 "Soviet Sports").

소년기의 사망율은 세계에서 50번째로 매년 천명중 25명에 이르고, 심장의 비정상발달은 에스토니아 공화국 청소년들에게 일반화 되어 왔다. 다시 말하자면 신장과 몸무게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볼 때 50% 이상의 청소년들의 심장이 그 크기에 있어서 정상적인 발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하지 못한 청소년은 성장후에도 쉽게 병약한 성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같은 문제점들도 건강하지 못한 병약한 국민들과는 함께 해결해 낼 수 없을 것이다.

* 소련, 에스토니아공화국 체육부 고문, 탈린교육방법연구소 교수

소련의 보건부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질병율은 3.8배나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자료 에스토니아 공화국 주간 신문, “Soviet Teachers”-현재는 “Opetajate Leht”, 1988. 11. 2). 가장 흔한 질병이 심장혈관 계통의 것으로 밝혀졌다.

에스토니아 공화국의 수석 공중보건 의사인 오쿠탐(OKU Tamm)은 1988년 10월 19일과 21일자 “Spordileht”에서 “생명연장의 비결은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기술에 있다”고 기술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에 익숙되어 있지 못하다. 운동량의 부족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여 학령전 아동들의 35%(학자에 따라 50%까지도 발표됨), 소학교 과정의 50%, 중등과정의 60%, 고등과정의 75-80%는 육체적 활동이 충분치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성인의 90%는 운동결핍증에 걸려있다. 40대 이후에는 40-50%만이 스포츠활동을 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공화국 학생들의 90%는 필요한 만큼의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지 못하고 있으며, 50-65%는 과도한 학업, 텔레비전 시청, 독서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음식량과 운동량의 불균형으로 50-60%의 에스토니아 학생들은 너무 크고, 16-23%는 비만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자료는 에스토니아 청소년들의 생활방식의 변화와 건강문제에 있어서의 향상이 있어야됨을 증명해준다고 보겠다.

전반적인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다.

- 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준다.
- ② 생에 대한 긍정적 생각과 태도를 가르쳐 준다.
- ③ 정서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프로그램 보급
- ④ 의료적 조치 증대
- ⑤ 음주와 흡연의 삼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최소한 육체적 활동과 스포츠는 청소년들이나 성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는 평상시 즐길 수 있는 운동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운동의 생활화만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에 관한 문제를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기타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생활태도와 관계를 맺으면서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생활태도”는 다양한 활동구조를 의미하는데 가치평가와 사회적 관계가 포함된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활동구조나 태도에 대한 연구에 중점이 주어질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여가를 수동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보게되는 상호관계에 있어서 태도 비교도 있게 된다. 이 연구는 1977-1987년까지 10년간의 장기 사회조사연구로서 에스

토니아의 북동쪽 오일 산업중심 도시인 코트라 해르베(Kohtla Järve)에서 실시하였다. 도시의 인구는 10만명이고, 인구중 2/3은 타지역에서 이주해와 살고 있다. 코트라 해르베시는 북쪽 에스토니아 산업지역의 인구가 고르게 모여있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기본조사방법은 시내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1977년에는 577명이 그리고 1987년에는 650명이 조사대상이었다.

연령분포는 14세에서 18세까지이며 36.5%는 소년이었고, 67.2%는 러시아계 학교 학생들이었다.

설문지의 주 관심사는 첫째는 일상생활에서의 스포츠활동과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대하여, 둘째는 청소년들의 가치추구 입장에서본 건강의 중요성과 육체건강, 그리고 셋째는 스포츠활동에 대한 태도 확립을 도와주는 요인들이었다.

학생들에게는 16개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열거해주고 7점 기준으로하여 가장 작은 1점은 참가하기 싫은 경우, 그리고 7점은 참가하기를 원하는 경우로 정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에스토니아 아이들은 자신의 자유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보내고자 한다. 배구, 축구, 배드민턴 등 경기시합은 매우 인기가 좋다.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이나 독서같은 수동

<표 1> 여가활동 평가

		7점기준
1	친구들과 즐기기	5.9
2	친구들과 운동경기: 배구, 농구, 축구, 배드민턴 등	5.6
3~4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음악 청취	5.5
3~4	서적이나 잡지 독서	5.5
5	영화관 영화관람	5.3
6	연주회 등 영화관 관람	5.1
7	춤추기	4.6
8	스포츠 클럽에서 운동	4.5
9	공원이나 체육관에서 걷기	4.3
10	학교활동이나 과외활동 조직	3.8
11	기술, 사진, 목공예 클럽에 참가	3.6
12~13	예술관 관람	3.5
12~13	체육관에서의 경기관람 하거나 축구 등	3.5
14	아마추어들의 미술관 전람	3.4
15	특별한 활동없이 편히 쉬	3.3
16	음악이나 미술교육 참석	3.0

<표 2>

여가활동 영역

	지 수	차별적 지표
1. 수동적 태도-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친구, 휴식	19.9	54.8
2. 다양한 취미살리기-기술연마, 댄스, 사진기술, 독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제작	15.2	51.5
3. 체육활동-게임참여, 산보, 체육활동 참여	17.9	50.9
4. 예술활동 참여-연극활동, 극장이용, 음악·예술학교	15.1	45.6

적인 활동도 동일하게 인기가 있다. 그러나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능동적 참여가 요구되는 공작만들기, 연극활동 등은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10년전의 조사와 비교해 본 결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한 스포츠 훈련도 인기가 하락했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함께 정해진 훈련계획에 따라 놀이 같은 활동을 선호하고 있었다. 조사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을 다음의 4개 주요영역으로 설정하였다(<표 2> 참조).

표 2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수동적인 여가활동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선호하고 있다.

여가활동에 있어서 수동적인 참여에 흥미를 가진 청소년집단은 학교생활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취미중심의 청소년들은 육체적인 활동은 최소화하고 스포츠활동 보다는 취미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 마련이다.

예술중심활동의 청소년들은 체육활동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알맞은 체육활동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를 갖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는 예술활동과 스포츠활동이 조화를 이루며 실행될 수 있는 측면으로의 방향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과거 10년 동안 청소년들의 가치변화는 <표 3>과 같다.

질문은 11가지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물었는데 중요성 정도에 따라 1-11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지난 10년간에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10년전의 7위에서 3위로 그리고 가족관계가 4위에서 2위로 올라왔고, 변화없이 중요성이 강조되는 영역은 정신적인 편안함을 요구하는 정서생활영역이었다. 공부와

〈표 3〉

청소년들의 가치관 변화(1977~1987)

순 위	다양한 가치	평 균
1 (1)	건강(육체적 용모)	3.1(3.4)
2 (4)	가족(가까운 친척 돌봄)	3.6(5.0)
3~4 (7)	대화(친구, 즐거운 친구)	5.3(6.0)
3~4 (3)	활동적인 생활(즐거움, 흡족함)	5.3(4.7)
5 (2)	공부(일)	5.7(4.1)
6 (6)	자신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	5.9(5.8)
7~8 (5)	자기향상	6.5(5.5)
7~8 (9)	경제적 안정(물질적 복지)	6.5(7.5)
9 (8)	사회적 인정	6.9(6.1)
10 (10)	즐거운 생활(즐거움)	7.2(8.0)
11 (11)	이성에 대한 인기도	9.2(9.3)

(괄호안은 1977년 조사결과임)

자신의 향상분야에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주지할 만하며 10년전에는 2위와 5위에서 최근에는 5위와 7위로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사회의 구조상 교육에 의한 특권과 자신의 발전이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누구나 평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보아지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학교에서의 학습이나 지식에 대한 관심유발이 실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교육에 대한 평가절하는 대학졸업자가 일반 노동자보다 수입이 적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된다.

10년정이나 최근까지 변함없는 것은 건강과 몸무게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71.2%가 스포츠활동과 건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41.2%는 스포츠활동이 자신의 육체적 능력향상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41.1%는 스포츠를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과 의지력 배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상관관계 분석 또한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학생들은 스포츠가 자신들을 보다 건강하게 그리고 학업의 성공과 사회생활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학생들의 스포츠활동 지원을 현실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를 하게 되었다.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잘 알고 있는데 왜 일상생활 과정에는 스포츠활동에 능동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데 해답을 얻기 위해서이다. 다행히 특정분야에서는 과거 10년간 스포츠활동이 증가되기도 하였으며 학교에서의 체

〈표 4〉

하기 스포츠 활동 참여도

	주1회 이하	주1회	주2~3회	주4회 이상
소 년	14.2	12.5	37.1	36.2
소 녀	24.9	15.4	28.5	31.2
합	21.2	14.4	31.6	32.9

〈표 5〉

스포츠 참여 형태

특 별 한 체육활동	학교내 스포츠 활 동 부	친 구 와 독립적으로	가족과 함 께	개인적 으 로
13.4	12.0	39.5	4.2	30.9

육시간도 일주일에 40분씩 2회를 실시하고 있었다(〈표 4〉와 〈표 5〉 참조).

표 4에 나타나듯이 소년들이 소녀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고 있다. 소년의 경우는 13-14세가 되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는 결정적인 나이가 되고 있으며 소년의 경우는 몇년후인 15-16세에서부터 현저하게 관심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는 현재의 스포츠활동이 엘리트 체육중심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스포츠 분야에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무시되기 쉬운 분위기, 그리고 건강체육, 즐거운체육을 위한 시설의 부재, 지도자의 부재와 무관심이 그 원인이라고 보겠다.

한참 자라나는 소년들은 특히 친구들과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구기운동이나 단체경기기를 즐기기도 한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흡연이나 음주 그리고 마약이나 비행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스포츠활동과 무관하게 지낼 수도 있다.

이상에서 결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전반적인 면, 즉 사회, 교육, 의료, 조직적인 면에서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어떻게하여 청소년들이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재능과 발달정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스포츠활동에 기쁘게 참여하고 육체적 운동을 실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기성세대의 의무로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주어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씩씩한 국민으로 자라도록 키우는 일

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스포츠활동은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즉, 모든형태의 체육활동-엘리트 스포츠, 단체 스포츠, 연소자 스포츠, 경기 스포츠 및 스포츠 행사, 복지체육이나 레크레이션 활동, 생활체육 등 그러나 청소년들의 여가와 흥미에 기초할 때 다음의 세가지 형태에 의한 과외활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① 놀이형태의 활동 ②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 그리고 ③ 스포츠활동이 그것이며 일반적인 형태의 육체적인 활동은 다음의 영역에 따라 특징지워질 수 있다.

1. 정규적으로 참여하는가
2. 육체적인 노력의 수준(활동의 횟수와 강도)
3. 성취목표-건강향상, 레크레이션, 결과의 성취 및 향상수준
4. 활동여건-거리, 체육시설, 레크레이션 교실 등
5. 기구의 구성 정도-즉, 스포츠 클럽회원, 체육학교, YMCA등 기관, 사설 등
6.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목적

연구보고 90-01-02

청소년 문화

1990년 12월 25일 인쇄

1990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이 윤 구

발행처 한국청소년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5동 산218

전화 : 695-3855~7 FAX : 695-0377

157-015

인쇄처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48-73

본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음.
